

2019 해외취업 성공스토리 공모전 수상작품집 나는 세계로 출근합니다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WORLDJOB+

월드잡  
플러스와  
함께

나는  
세계로  
출근  
합니다

2019 해외취업 성공스토리  
공모전 수상작품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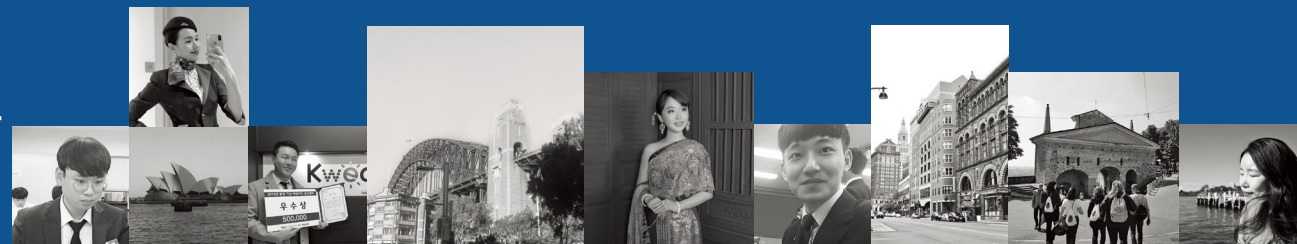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무역협회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ICA  
한국국제협력단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월드잡  
플러스와  
함께

나 는  
세계로  
출 근  
합니다

2019 해외취업 성공스토리  
공모전 수상작품집

contents

발간사	04	해외진출을 위한 도전과 노력,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해외진출은 성공입니다
수기부문 / 대상	08	정은화 / 두려움을 떨치고 도전하자
수기부문 / 최우수상	14 20	이성은 / 나의 Malaysian Dream 성공기 김희인 / 비전공자에서 일본 IT 개발자로
수기부문 / 우수상	26 32 38 44 50 56 62	진현주 / 동경의 나라였던 미국을 사랑하게 된 이유 권혜수 / 이탈리아가 정말 좋아 해외취업까지 하게 된 나의 이야기 박진봉 / K-Move School 청해진 프로그램 3기 김정민 / 나만의 취업 성공 가이드 최남철 / 제 학점은 2.08입니다 장준수 / 일본취업은 도피처가 아닌 성장하기 위해 가는 곳 박민지 / 롤러코스터 같았던 1년
수기부문 / 장려상	68 74 78 84 88 94 100 104 108 114	윤하진 / 새로운 경험만이 또 다른 나를 만든다 이승희 / 스물여덟, 일본취업이라는 새로운 여행을 나서다 고정주 /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세계인 이병세 / 처음, 두 번째 인생, 세 가지 언어 김소연 / Los Angeles 중심의 문을 두드리다! 조지혜 / 생각의 지평을 넓혀준 싱가포르 해외취업 오승희 / 조금 늦어도 괜찮아, 철전팔기 승무원 합격수기 안선하 / Vietnam cái gì? 염동렬 / 아버지의 뉴델리 서윤석 / 베트남에서 “서윤석”이란 꽃을 피우다
NOW부문 / 대상	122	손승희 / 해외취업, 누구나 꿈꿀 수 있지만 아무나 이룰 수는 없다
NOW부문 / 최우수상	130	구자경 / BIG4 출신 말레이시아 세무컨설턴트는 왜 회계법인을 그만두고 중국의 데이터 분석가가 되었을까?
NOW부문 / 우수상	136	원다혜 / 고단했던 한국 교직생활 마무리, 그리고 호주에서의 행복한 교직생활 시작!
NOW부문 / 장려상	142 148	윤희경 / 코리아잡에서 월드잡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건축 외교관을 꿈꾸며 손재우 / World Job을 통한 Job 여행기, 이제 내 무대는 이 세계다
영상부문 / 대상	156	이민규 / 저는 태국 태권도 사범입니다
영상부문 / 최우수상	158	공지연 / 패션 디자이너, 호주 유치원 교사가 되다
부록	160	청년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해외진출을 위한  
도전과 노력.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해외진출은  
성공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김 동 만

청년 여러분, 어느덧 따사로운 햇살이 우리를 비추고 꽃들이 만개한 봄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일상이 바뀌고, 많은 국가들이 서로 국경을 닫은 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국민안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단의 사업들도 잠시 멈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세계를 향한 청년들의 꿈은 계속되고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부터 해외 취업에 성공한 청년의 현지 정착과 경력개발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위해 많은 유관기관들과 협업하며 청년해외취업 지원사업(K-Move)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 청년 여러분들이 다시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온라인 고충센터, 화상상담, 온라인 설명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가능성이 높은 국가와 직종을 신규로 발굴하고, 더 나은 해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해외취업 아카데미 역시 청년들의 수요가 많았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개편하고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해외진출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여 여러분이 안전하고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책에는 수기 부문 20명, NOW(Nomad of Worldjob) 부문 5명, 영상 부문 2명 등 총 27명의 청년들이 각자의 노력과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찾고 취업에 성공한 과정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새로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도전을 이어나간 것과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노력일 것입니다.

이들의 경험담을 통해 자신감과 용기를 얻어 국내뿐만 아니라 더욱 넓은 세계로 여러분의 꿈을 펼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미래를 그리기 위해 가장 적합한 곳이라면 세계 어디로든 도전해보시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도전과 노력에 아낌없는 응원과 박수를 보내며 우리 공단은 여러분이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항상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모두의 성공스토리를 응원합니다.

2020년 4월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김 동 만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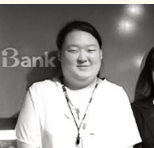
해외취업

성공스토리

공모전

수기부문

수상작품집



정은화



이성은



김희인



진현주



권혜수



박진봉



김정민



최남철



장준수



박민지



윤하진



이승희



고정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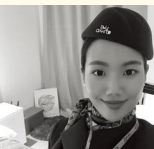
이병세



김소연



조지혜



오승희



안선하



염동렬



서윤석

정은화

대상 / 일본

두려움을  
떨치고  
도전하자

### 해외 취업 도전 계기/동기, 경로

대학 시절, 1년 동안 도쿄에서 유학한 경험이 자연스럽게 일본 취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유학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일하고 있던 지인 덕분에 일본 취업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고, 저 역시도 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하였기 때문에 일본어를 사용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졸업 후 일본 건설회사에서 일본어 통역 및 번역 담당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통역업무 외에도 무료 홈페이지 제작 사이트를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해 볼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이트의 기능을 사용해서 레이아웃 설정 및 기능 지정을 하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하게 되었고, 이런 호기심은 꿈으로 이어졌습니다. '직접 홈페이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꿈이 생겼고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한국에 귀국하여서 한 교육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후쿠오카은행의 첫 해외 채용에 대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방 은행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이 흥미로웠고, 개발 담당 직원을 한국에서 채용한다는 점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코딩 테스트와 2번의 면접을 통해 인턴에 합격하게 되었고, 후쿠오카에서 2주간 인턴으로 일하며 회사를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2주간의 인턴 생활을 통해 이곳이라면 내가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후쿠오카은행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해외취업 준비과정

저는 해외취업을 두 차례 준비할 당시 수도권지역이 아닌 지방에서 해외취업을 준비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없었고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취득해 왔습니다. 그중 가장 도움이 된 곳은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와 네이버 KOTRA 카페였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 지방에 있으면서도 불편함 없이 취업 박람회나 취업 관련 이벤트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문의를 드리면 친절하게 답변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 해외취업캠프를 지방에서도 개최해주어서 대전에서 하는 캠프에 참가해 이력서 작성법을 배우고 모의 면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정보를 얻어 가며 일본어 이력서를 작성해 나갔습니다. 특히 이력서를 일본어로 작성할 때 뜻밖에 도움이 됐던 것은 번역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저는 번역기를 반대로 사용했는데, 가능한 한 많이 일본어로 작성한 후 그 문장을 반대로 일본어에서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번역 결과 한국어가 어색하거나 내가 원했던 문장이 아닌 경우를 찾아 수정해나갔습니다.

특히 면접을 가장 많이 준비했습니다. 면접은 거의 일본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습 일지라도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을 보며 몇 번이고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철저한 준비 덕분에 면접에서는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 자신만의 취업 성공 노하우

첫 번째, '일본어 공부'입니다. 우리가 제2외국어나 TV 등에서 접하는 일본어와 회사에서 사용하는 일본어는 많이 다릅니다. 존경어 외에 겸양어, 정중어 등이 있고 상황에 따라 높여야 하는 대상이 바뀌는 등 어려운 문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어 책과 더불어 회사 생활이 많이 나오는 일본 드라마를 보면서 경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면접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만들자' 입니다. 저는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면서 학원에서 배우고 끝낸 것이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팀을 만들어 배운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했습니다. 이 경험은 공부한 것을 복습하면서 만들어 갔기 때문에 면접 때의 기술 질문에도 막힘없이 답할 수 있었고, 공동 작업을 통해 협동심과 능동성을 배워 (주)후쿠오카은행 인턴 당시 다른 인턴들을 이끌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 알자' 입니다. 이력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지원할 회사와 지원할 포지션에 관련된 사업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이력서에 반영하여 작성하거나 면접 때 역질문을 통해 어필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회사에서는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대해 알고 있고 관심이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입사 후 적응방법 및 회사생활

저는 2019년 1월 4일부터 (주)후쿠오카은행에서 근무하였고 사업전략부의 오픈이노베이션추진그룹에 속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저희 팀의 주된 업무는 사내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 아이디어를 프로그램화하는 것입니다.

팀에는 전통적인 은행 업무와는 달리 새로운 업무가 많이 있어 기존의 은행원과는 다른 직종의 사람들이 많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신입이기 때문에 일하면서 배우고 있지만, 앞으로 새로운 팀에 합류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은행이지만 새로운 일을 하는 부서답게 딱딱하지 않은 분위기와 더불어 첫 해외 채용이기 때문에 다른 팀원이나 부장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어려움 없이 회사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현지 정착 애로사항 및 극복과정

회사에서 비자를 늦게 신청해 1월 4일 입사인데 12월 24일에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연말연시에 관공서 및 은행이 쉬고, 처리가 오래 걸리는 일본 시스템으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회사에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바빠 움직여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날까지 주소 등록, 휴대전화 개통, 통장 개설 등을 무사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 입국할 때는 여유를 가지고 입국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일본 생활을 시작하려니 가장 필요한 것은 생활비였습니다. 입사하기 전에 어느 정도 모아둔 돈을 환전해 가지고 왔지만, 생각 외로 돈을 사용할 곳은 많았고 월급도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생활해야 하나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해외취업자에게 지급하는 해외취업지원금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고 지원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생활비 걱정을 덜고 나니 그 후 찾아오는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후쿠오카는 처음이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구를 사귀고 싶었지만, 입사를 1월에 했기 때문에 동기가 없었고 후쿠오카에서는 한국인 커뮤니티를 찾을 수 없어서 따로 이야기하거나 놀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특히 회사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때마침 KOTRA 후쿠오카 무역관에서 규슈 지역 내정자 멘토링을 개최해주었고 규슈 지역에 일하는 다른 한국인들을 만날 수 있어서 외로움을 덜 수 있었습니다.



##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국내 청년들에게 전하는 한마디

국내에서 취업이 잘 안 되니 해외에서 취업해야 한다는 안일한 마음가짐으로 해외취업을 희망한다면 해외취업 후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자신이 왜, 무엇 때문에, 해외에 취업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보고 파악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하고 싶은지 파악하고 그에 관한 공부를 한다면 자신의 전공이 아니더라도 취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은

최 우수 상  
말 레 이 시 아나의  
Malaysian Dream  
성공기해외취업  
맞춤형 대학생활

2008년 우연히 가게 된 인도네시아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밖 세상에 처음 눈을 뜨게 되었다. 내가 사는 이 세상은 경험할 것이 무궁무진한 넓은 세상이라고 느꼈다. 그때부터 해외취업, 해외생활을 어렵듯이 상상하며 꿈꿨던 것 같다. 대학생활 중에서도 최대한 많이, 최대한 저렴하게 해외경험을 쌓고자 했으며 해외 취업에 필수인 영어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대학생활 중에는 핀란드에 있는 자매대학으로 교환학생을 떠났다. 아일랜드에서는 1년 동안 NGO 단체에서 일하며 자급자족했다.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음식을 체험하면서 해외에서의 적응력 레벨을 최고치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대학생활 동안 영어연극반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영어스터디 리더를 맡아 스터디그룹을 주도했다.

이렇게 대학생활을 보내고 졸업반이 되서는 해외취업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교내 또는 교외에서 주관하는 해외취업 상담회를 찾아 다녀보기도 했다. 매일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구직 공고 등을 보고 이력서를 제출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실무경험인 제로인 내가 뽐힐 리가 없었다. 여러 번 고배를 마시고 있던 와중에 나의 구미를 당기는 공고를 보게 되었다. 세계한인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해외한 인기업 인턴 사업이었다.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가 있었지만 그중에서 나는 말레이시아 기업에 지원했다. 이 회사는 말레이시아와 한국 기업 간에 매칭을 도와주는 업무를 하는 회사였다. 우리나라를 알리고 대표하면서 보람차게 일할 수 있는 직무인 것 같아 꼭 합격하고 싶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할 때 조금 더 신경써서 준비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준비할 때 사업의 취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단지 인턴 경험만 쌓는 게 아니라 정직원 연계형 사업이었다.

나는 이에 적합한 지원자라는 점을 어필하고 싶었다. 그동안의 해외생활을 통해 단련된 적응력을 어필하고 내가 지원한 나라와 회사에 대한 포부를 영어와 한국어 답변으로 준비했다. 이런 나의 태도를 면접관은 좋게 봐주셨고 인턴으로 합격한 회사의 사장님도 다른 그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자세와 그동안의 해외생활을 통해 쌓아온 적응력을 보고 나를 뽑으셨다고 하셨다. 그동안 해외취업을 위해 준비했던 과정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나의 말레이시아 드림의 첫 페이지가 만들어졌다.





## 90일 사랑할 시간, 말레이시아 인턴

말레이시아는 여행으로도 가보지 않은 나에게 미지의 나라였다. 그런데 웬걸, 와보니 다양한 문화, 언어 그리고 인종이 공존하는, 마치 아시아판 미국 같다는 인상이 들 정도로 매력적인 나라였다.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에 스며들었다.

여기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은 3개월이었다. 3개월이 정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매 순간이 행복했다. 말레이시아에서 사는 게 행복했고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 보람찼다. 그때부터 어느 일을 하든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일을 하자고 생각하게 되었다. 정말 아쉽게도 그때 당시 회사의 사정상 정직원 채용은 진행되지 않았고 인턴 종료일까지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있었던 와중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메일 한 통을 받았다. 공단에서 말레이시아에 나와 있는 인턴을 대상으로 오찬 간담회를 진행한다는 메일이었다.

그렇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참석한 오찬 자리에서 운명의 명함 한 장을 건네받게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자님께서 오찬 자리 전에 만난 K-Move 멘토의 명함을 주면서 꼭 한번 연락을 해보라고 하셨다. 그때 받은 명함 한 장이 말레이시아 꿈을 이루게 된 발판이 될 줄을 그때는 몰랐다.

## 해외취업은 끈을 잇기 위해 도전한 홍콩

말레이시아 구직을 위해 열심히 도전했지만, 딱히 기술도 없었고 실무경험이 없었던 나에게 말레이시아에 오픈된 자리는 많지 않았다. 결단을 내려야 했다. 약간의 해외경험과 인턴 경험을 갖고 있던 내게 필요한 건 실무경력이라 생각했다.

그전에는 말레이시아만 봤다면 다양한 옵션을 놓고 고민해보자고 결심했다. 마침 월드잡플러스에 올라온 청년 글로벌 보부상 모집공고를 보았다.

청년희망재단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외에 주재원을 파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해외에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을 위해 계획된 프로그램이었다. 중소기업이라 인터넷상에 정보가 많지 않았지만, 명문대 출신에 스펙도 좋은 친구들을 제치고 최종 3인에 들 수 있었던 비결은 면접 때 보였던 나의 적극적인 태도였다.



## 간절하게 절실하게 끈질기게 마음이 사무치면 꽃이 핀다

홍콩을 떠난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하게, 더 절실하게 준비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가 한 일은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공고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외취업', '해외 구직' 등 키워드를 정해놓고 검색하는 것이었다. 내가 놓친 공고는 없는지, 새로 뜬 공고는 없는지 눈이 빠지도록 찾아보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다.

국내 사이트(월드잡플러스, 사람인, 인크루트 등)뿐만 아니라 해외 사이트(링크드인, 인디드, 잡스트리트 말레이시아 등)에서 말레이시아를 최우선 순위로 찾아보으며 월드

내가 지원한 회사는 식품회사였고 주로 해외시장을 타기팅하고 있어서 국내 인지도는 전혀 없었다. 그러다 인터넷 쇼핑사이트에 올라온 이 회사의 제품을 발견했다. 직접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먹어보고 이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개선점까지 발표한 나를 면접관이 좋게 봐주셨고 이는 최종합격으로 가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다.

홍콩에서는 현지 매장의 총괄매니저로서 회사 상품을 알리기 위해 판촉회, 이벤트 등을 직접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준비했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행사 등을 적어놓고 결과도 같이 적어놓았다. 이는 나중에 말레이시아 구직활동을 할 때 홍콩에서의 성과를 통해 나를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홍콩 생활도 만족스러웠지만, 말레이시아에 대한 꿈을 접을 수 없었다.

다시 말레이시아 구직을 시도하기로 결심했다. 조금 편하게 홍콩에서 더 머물 수 있었지만, 조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도전하고 싶었다. 홍콩에 있으면서 내가 얼마나 말레이시아를 원하는지 다시금 느꼈다.



잡플러스에서 주관하는 ASEAN 취업박람회에도 찾아가 말레이시아 기업에 이력서를 전달하고 면접을 보기도 했다.

면접용으로 지원한 말레이시아 현지 회사도 더러 있었다. 말레이시아 회사의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하고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비즈니스 영어 역량을 익히기 위해 서였다.

### 말레이시아에서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이런 준비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현지담당자들과 면접을 볼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새로운 공고를 찾는 것과 동시에 2015년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자님께 명함을 받은 후부터 내가 매년 했던 일이 있다. 바로 그 멘토님께 매년 이력서를 업데이트해서 보내드리는 것이다. 멘토님의 K-Move 인터뷰 동영상을 보면서 말레이시아를 더욱더 꿈꾸게 됐으며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에 살고 일하는 것에 대한 나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연락을 드렸었다.

그렇게 2017년에도 나는 변함없이 메일을 보냈고 공고가 곧 날 것이라고 지원해보라는 답장을 받기도 했었다. 열심히 준비해서 이력서를 냈지만 결국 더 뛰어난 지원자가 있어서 최종선발이 되지는 않았었다.

최강 한파가 연달아 몰아치던 2018년 1월. 날씨만큼 내 마음도 춥고 지쳐갈 때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에 뜬 발신 번호는 +60으로 시작되는 번호. 말레이시아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지금 사람을 총원해요, 아직도 관심 있으신가요?" 이 말을 듣는 두 손을 번쩍 들어 환호성을 지르고 싶었다. 내가 그동안 멘토님께 보냈던 메일을 통해 보였던 진정성과 적극성을 보고 채용을 바로 진행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됐다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지 담당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른 현지 회사들과 실제로 면접을 진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떨지 않고 자신감 있게 면접에 임했고 그로부터 2주 후에 정말 꿈에 그리던 그 회사로부터 오퍼레터를 받게 되었다.

2015년부터 꿈꿔왔던 나의 말레이시아 드림. 그렇게 지나긴 여정에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이었다. 정말 간절하게 꿈꾸고 절실하게 원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김희인

최우수상  
일 본비전공자에서  
일본 IT  
개발자로해외진출을  
선택한 계기

해외진출을 결심한 시기는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전공인 한문을 살리고자 일본어와 중국어를 조금씩 공부하면서 해외 영업으로 진로를 잡고 있었습니다. 국제통상을 복수 전공하면서 영어 강의를 수강할 기회가 많아졌고, 영어회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캐나다로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습니다.

현지에서 해외 정착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경험하고, 2개의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면서 회화실력을 길렀습니다. 1년간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회화 능력도 중요했지만 해외에서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귀국하고 나서는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IT 개발자로서 커리어를 쌓기로 결심하고, 졸업 전까지 IT 직무에 대한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졸업 1달 전부터는 프로그래밍을 독학하고자 마음먹고, 무작정 노트북과 책을 사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독학하기에는 IT업계의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 기반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 학습속도가 느리다는 점에서 전문기관에서 학습할 필요성을 느껴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해외 취업 연계로 일본어 능력과 IT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기관을 알아보면서 K-Move 스쿨 연수사업에 대해 조사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조건에 맞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 일본 기업에 내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외진출  
국가, 직종, 회사  
선택 동기 및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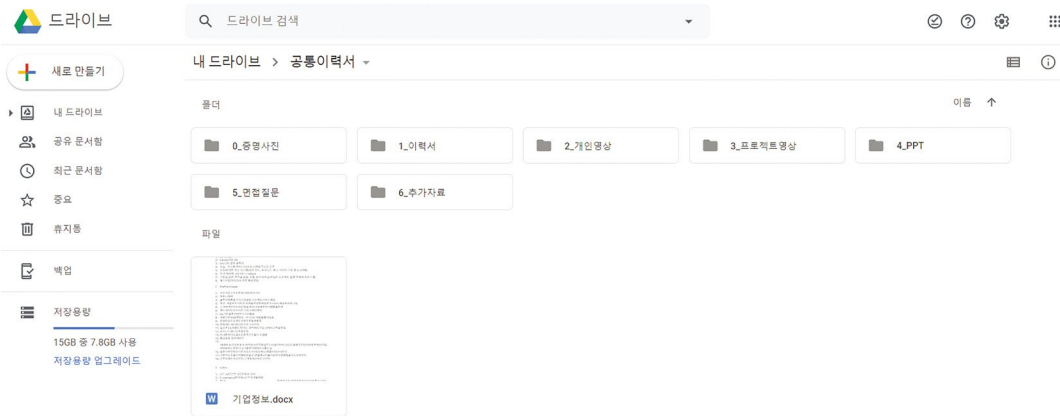
저는 내년 4월에 도쿄에 소재한 일본계 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외국어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그 중 가장 자신 있는 언어는 일본어고, 도쿄에서 1달간 문자 및 기본 문법을 배웠던 경험과 캐나다 생활을 하면서 일본인과 일어, 영어로 대화하는 동아리 활동에 참가하는 등 일본과의 접점이 많았던 점을 바탕으로 일본 취업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여러 번의 면접에 임한 결과, 총 4개의 회사에 내정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Work and Life Balance' 때문입니다. 신입으로서 대기업 타이틀을 가지고 커리어를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지금까지 배운 기술을 응용하는



개발 직군이기에 때문에 업무에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외에도 근무, 급여 조건 등 모두 만족스러운 현재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저의 포지션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업무는 회사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 보수, 그리고 프로젝트 등 주로 회사의 소프트웨어 개발 작업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 해외취업 준비과정

준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졸업과 동시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기에,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연수기관은 11개월간 교육을 해주는데, 일부 본인부담금만 내고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인부담금의 경우 모아둔 돈으로 학원을 등록했고, 첫 한달 생활비만 남겨두고 작년 9월부터 학원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6개월 정도 소정의 수입이 있었고, 부족한 금액은 K-Move스쿨 사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때문에 저의 11개월간의 스케줄은 평일은 학원, 주말에는 아르바이트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취업준비에 들어간 것은 2019년 4월부터입니다. 3주간 이력서 작성, 개인 및 기술 포트폴리오 등 서류전형에 통과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력서에는 자기 소개, 일본 취업의 이유, 그리고 개발직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심플하면서도 면접관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도록 작성했습니다. 또한 이력서의 가독성을 고려해서 문단 별로 공백을 두는 등, 기존의 이력서 형식이 허락하는 선에서 작성했습니다.

취업과 관련된 정보는 국내에서는 IT 일본취업 커뮤니티에서 얻었습니다. 또한 국외로는 일본 취업준비생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みんな就(www.nikki.ne.jp)’, 그리고 회사의 재직자들이 연봉 정보, 사내 분위기, 커리어 등의 내용을 공개하는 ‘会社の評判(en-hyouban.com)’ 등의 사이트를 적극 활용하여, 잡페어 참가 기업들 중 본인이 가고 싶은 회사를 결정했습니다.

면접은 일본 기업의 질문 50선을 바탕으로, 면접에 임하기 3개월 전부터 답변을 미리 작성하고, 수정을 거듭하면서 답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작성한 내용을 학원 선생님, 동기들과 공유하면서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는 내용에 대해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 취업에 대한 이유, IT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뼈대를 잡았습니다

## 해외진출의 장단점

일본 취업의 장점은 취업 준비생이 이미 가진 능력도 중요하지만, 잠재력을 보고 신입을 채용하는 분위기라는 점입니다. ‘포텐셜 채용’이라는 전형이 존재할 정도로, 전공과 관계없는 직무도 도전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입 채용의 경우, 지원자의 지식이 우수하더라도, 기업 관계자의 입장에서는 초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학습하려는 태도를 많이 평가받는 분위기였습니다.

실제로 한 면접관은 ‘실력은 사내 연수를 통해 키울 수 있다. 오히려 ‘도전정신’, ‘인성’ 같은 경우 가르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면접에서는 이런 부분의 가능성을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므로 본격적으로 일본 취업을 결심한 후 처음부터 준비해도 취업전선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한 과정은 분명 쉽지 않았습니다. 단기간 노력의 흔적을 얼마나 잘 어필하느냐에 따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취업의 단점은 커리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 나만의 해외진출 성공요인

현지에서 커리어를 쌓은 선배들의 수기를 참고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본인의 가치를 높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외취업'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지만, 해외에 나가는 순간 '외국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현지생활에 임하기 때문에 '차별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생활하면서 차별을 느껴 본 경험도 있고, 주변에서도 종종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회화능력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지인 수준의 발음을 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비즈니스 일본어를 공부할 계획입니다.

일본취업준비에 임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은 본인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어필 포인트를 '근성'으로 설정하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개발 공부에 매진한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노력했던 활동 3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본이 되는 것은 '자격증'입니다. 학원의 수업을 따라가면서도 IT 자격증을 단기간에 취득하여 성장가능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자격증 중에서 JLPT와 정보처리기사가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자격증의 유무에 따라 지원 가능한 기업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취득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IT 스터디, 독서클럽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IT 스터디는 개발서적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독서클럽을 통해 일본과 관련된 서적을 무료로 제공받아 서평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해 면접관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 해외진출의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는 'Github' 사이트의 활용입니다. 날마다 공부한 코드를 Github에 업로드 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공부한 흔적을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에서 Github의 사용경험, 주소를 묻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취업준비생을 위한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금전적인 부분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기 때문에, 다양한 K-Move사업을 적극 활용해서 취업에 매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진출 국가를 선택함에 있어, 인재 수요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가고 싶은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국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그 나라의 언어 습득 속도가 빠르고 문화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장 기회가 많은 국가보다 장기 커리어를 쌓고 싶은 국가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정리하신다면 취업의 큰 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 현 주

우수상 / 미국

동경의 나라였던  
미국을  
사랑하게 된 이유



### 동경의 나라였던 미국

어릴 때부터 미국은 동경의 나라였다. 내가 초등학교일 때 미국으로 유학 간 친척 오빠는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미제 학용품들을 사다 줬다.

어딘지 모르게 한국 것과는 달리 깔끔하고 멋지다고 느껴졌던 미제 학용품. 중학생 때 주변에서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떠나는 친구들을 보며, 나 역시도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고 PPT까지 만들어 부모님을 설득했지만, 어린 자식이 타지에서 홀로 지낼 것이 불안했던 부모님의 반대로 미국에 가지 못했다. 그때부터 미국은 막연하게 언젠가 살아 보겠다고 마음먹은 곳이 되었다.

### 졸업하고 뭐 하지?

학교를 졸업하고 막막했다. 예술학교를 졸업한 터라 취업전망이 밝지 않았다. 젊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도전하자는 생각에 미국 인턴을 알아봤지만, 미국 인턴을 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했다. 무려 500만 원. 대학을 갓 졸업해 모은 돈 없는 내게 500만 원은 매우 큰돈이었다. 비용을 아낄 방법을 찾아 이곳저곳 설명회를 다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해외취업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인턴에 필요한 무료교육과 인턴비용 반액을 지원해주는 획기적인 프로그램.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인턴비용 반액을 어떻게 부담할지는 훗날 생각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게 웬걸? 행운의 여신이 내 옆에서 날갯짓이라도 한 것일까? 아무 생각 없이 응모한 편의점 이벤트에서 1등이 당첨됐고, 당첨금은 무려 300만 원이었다. 아무 걱정 없이 미국 인턴을 준비하라는 신호라 생각했다.

### 첫 단추부터 빠걱

한국에서의 미국 인턴 준비는 무서울 정도로 수월했다. 서울시 해외취업 프로그램에 뽑히고, 스폰서 면접을 보고, 회사 면접을 보고, 비자 면접을 봤다. 모든 것은 논스톱이었다. 하지만 문제없다고 생각했던 이 질주는 미국에 도착한 첫날 급제동이 걸렸다. 밤에 도착하는 비행기를 탔던 터라 미리 회사가 있는 뉴욕 플러싱 근처로 일주일 치를 예약해 놓은 숙소는, 위치가 뉴저지로 바뀌어있었다.

그들은 뉴저지도 여기서 별로 멀지 않다며 나를 설득했다. 어떠한 오류가 있는 듯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낯선 땅을 막 밟은 나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얼어붙은 채 직원에게 아무 말 하지 못했고, 직원이 뉴저지까지의 택시비를 대주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그때부터 무려 왕복 4시간의 지옥 같은 출퇴근이 시작됐다. 하지만 모든 기억은 미화가 된다고 했던가. 일주일간 뉴저지의 숙소에 지내며, 플러싱에서만 지냈다면 절대 못 봤을 수많은 뉴욕커의 출퇴근 모습을 봤고, 환상적인 뉴욕의 야경을 보았으며, 뉴욕과는 다른 뉴저지의 교통 시스템을 알게 되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 모든 걸 다 떠나 하루빨리 방을 구하기 위해 매일 밤 헤이코리안 사이트에 들어가 방을 검색했다.

### “집에 가고 싶으면 가세요, 한국 집으로.”

땡스기빙 데이(Thanksgiving Day) 전날이자 회사 출근 삼 일째, 모든 직원이 땡스기빙 데이를 맞아 조기 퇴근을 했다. 나 역시 나의 상사가 나에게 인사를 하고 조기 퇴근을 하길래, 촬영하고 돌아온 카메라를 정리하고 퇴근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는 나의 오만한 착각이었다.

회사 대표는 인사하고 가려는 나를 회의실로 불렀고, 집에 가고 싶으냐고 물었다. 나는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별말 못한 채 다들 조기퇴근 하길래 나도 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대표는 촬영하고 왔으면 당일에 편집해야지 인턴이 어디서 멋대로 가려고 하나며, 집에 가고 싶으면 한국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그 말은 절대 가면 안 된다는 말이었다.

대표와 나 둘뿐이 남은 회사에서 그 날 촬영해 온 모든 영상을 편집하고 평소처럼 정시 퇴근을 했다. 훗날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가까워져 이야기를 해보니, 대표가 인턴들이 처음 온 시기에 특히 예민하게 군다고 했다. 더불어 이곳은 눈치로 먹고 살아야 하는 곳이라는 말을 들었다. 처음 해보는 회사생활이기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눈치껏 회사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워갔다.

### 뉴스편집부터 아나운싱까지

10명이 넘는 인턴들이 기간을 다 못 채우고 도중에 그만둔 회사에서 1년을 온전히 채웠다. 처음에는 달력에 엑스 표를 치며 버텼고, 중반에는 지낼만했으며, 나중에는 며칠 남지 않은 인턴 생활이 아쉽게 느껴졌다.

회사에 출근한 첫날부터 촬영과 편집을 시작했다. 적응할 시간 따위는 없었다. 아뿔싸! 4개월 정도 일하던 인턴이 내가 회사에 도착하고 일주일 내로 그만둔다고 말한 터라 그녀의 일까지 도맡아야 했다. 상상초월로 힘들었고, 오버타임 근무는 당연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다행히 일이 손에 익었다. 매일 아침 회사에 출근해 뉴스 기사를 쓰고, 자료 화면을 찾은 후 뉴스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는 일. 이것이 나의 루틴(하루일과)이었다. 이 일에 익숙해져 갈 때쯤 사흘간 임시 아나운서가 필요한 상황이 생겼다.

초등학교 때 잠시나마 소망했던 꿈, 아나운서. 그 자리를 쟁취하기 위해 나름 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3일간의 임시 아나운서를 했다. 내가 아나운싱을 한 모습이 뉴욕과 뉴저지에 퍼져나갔다. 친구들이 북한 방송 같다고 놀릴 정도로 상당히 어색하고 아마추어 같았지만, 내가 아나운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놀라웠다. 정말 멋진 경험이지 않은가! 미국 인턴을 오지 않았다면 절대 해보지 못할 경험이었다.







## 나를 머물게 한 건, 사람

뉴욕 인턴생활 끝 무렵이던 10월 말, 교통사고가 났다.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걸어 가고 있는데 순간 붕~ (밝은 빛과 함께 3초간의 기절) 팡.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다리와 팔에 멍이 많이 들고 근육이 놀라 며칠간 다리를 절었다. 그 때문에 3일간 회사를 쉬었다. 타국에서 겪은 끔찍한 교통사고였지만 잘 견딜 수 있었던 건, 뉴욕에서 사귀 친구가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 하며 밤낮으로 챙겨줬기 때문이다.

내가 뉴욕에 정을 붙이게 된 건 8월이 뉴욕에서 사귀 친구들 덕분이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만 연락하며 미국에서는 어떠한 교류도 하지 않으려 했던 인턴 초반에는 자발적으로 고립되어 지냈다. 이곳은 잠시 거쳐 가는 곳이니 정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외로움에 허덕이다 친구를 사귀었고, 왜 이제서야 친구를 사귀었나 싶을 정도로 행복했다. 그들과 지내며 화려한 불빛으로만 생각했던 뉴욕이, 사람들의 온기가 느껴지는 삶의 터전으로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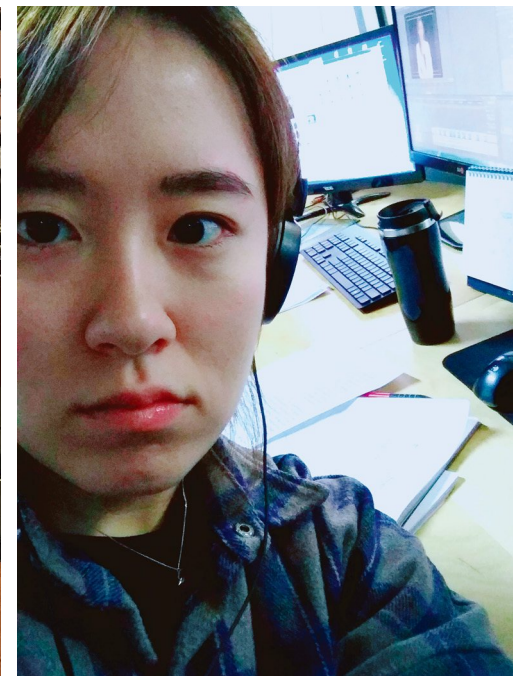
한 도시를 사랑하게 되는 건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경험 때문이다. 나는 뉴욕에서 만난 사람들 덕분에 뉴욕을 사랑하게 됐다.

## 할지 말지 고민하는 당신에게

"어차피 네가 미국 인턴을 가든 가지 않든 후회는 할 거야, 그럼 가고 후회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미국 인턴을 가겠다고 다짐한 이후에도 계속 고민을 하던 내게, 친한 언니가 해 준 말이다.

고민의 이유는 불안함 때문이었다. '더는 어린 나이가 아닌데 정말 내 욕심대로 이렇게 갔다 와도 되려나? 갔다 와서도 여전히 별 일 없으면 어떡하지?' 뉴욕에서 지낸 1년은 정말 순식간이었다. 뉴욕을 가기 전 계획했던 것 중 안 지킨 것이 태반이다. 그중 영어가 하나도 늘지 않은 점은 참 아쉽다.

한인 동네에 살며, 한인 회사에서 일하고, 한인 친구들과 놀았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뉴욕에서의 삶은 내 인생의 보석과도 같은 시간이다. 뉴욕에서 살며 처음으로 회사생활이란 것을 해 보았고, 매우 빠른 편집 실력과 눈치를 키웠으며, 전혀 관심 없던 세계 정치 뉴스와 미국 뉴스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 또한 미국에서 사는 한인의 상황과 고민을 알게 되었으며, 많은 불합리함과 외로움을 보았다. 미국 인턴을 하지 않았다면 절대 알려고 하지도, 알 수도 없었던 것들을 알게 된 것과 인생에 남을 소중한 친구들을 만난 것. 그것으로 미국 인턴은 충분하고도 소중한 경험이다.



권혜수

우수상  
이탈리아이탈리아가 정말 좋아  
해외취업까지  
하게 된 나의 이야기

### 해외진출(취업 등)을 선택한 계기

한국에서 약 5년간의 외국계 물류회사 경력을 뒤로 하고 이탈리아에서의 해외취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생각보다 단순한 이유였다.

첫 번째는 물류회사라는 특성상 전 세계를 아우르며 일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꼭 국내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또한 내 경력과 전공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 해외취업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두 번째는 대학시절부터 오랫동안 해외생활을 꿈으로만 그려왔던 나에게 당시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일을 겪으면서, 한번 사는 인생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꿈으로만 여겼던 해외생활에 대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보자는 결심이 생겼다.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더 단순하다. 전 직장을 그만두고 생애 처음으로 혼자서 유럽여행을 했을 때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가장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현지 날씨도 음식도 좋았고 거기에 세계사에서 배웠던 유적지들이 내 눈 앞에 보이는 것을 봤을 때 감동이 이탈리아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고 이탈리아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여행에서 돌아온 이후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이탈리아어 어학원을 다니면서 언어공부를 했고, 어학원 과정이 끝날 무렵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직접 몸으로 우선 체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아 이곳 밀라노에 발을 디게 되었다.

### 현재 해외진출(취업 등) 국가, 근무지역, 직종, 회사 선택 동기 및 업무 등 소개

내가 선택한 나라는 이탈리아고 도시는 밀라노를 택했다. 위에서 언급한 이탈리아의 매력에 빠지게 한 도시는 사실 밀라노가 아닌 로마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업을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도인 로마보다 경제적으로 더 많이 발전한 북부도시 중 한 곳으로 골라야 한다는 생각에 가장 많이 알려진 밀라노를 선택했다. 게다가 처음 나의 직업 타킷이었던 물류업을 생각했을 때 밀라노가 더 적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민 없이 도시를 선택했다.



처음에는 밀라노에 있는 한인 여행사에서 OP(오퍼레이터)로 일을 했었는데, 이탈리아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공고를 통해 지원하고 인터뷰 합격하여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일했다. 짧게 일한 이유는 당시 비자가 취업비자가 아닌 워킹홀리데이 비자였고 또 비자 만료기간이 다가오고 있었기에 더는 일을 할 수가 없었다. 또한 그 회사의 근무 환경은 상당히 불편했으며 워홀 비자 이후 사측에서 새로운 비자를 지원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더 나은 조건의 회사에 일하고 싶단 생각이 들어 이탈리아에 있는 다른 회사를 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국내 기업의 현지 법인의 경영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금의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업무경험 덕분이다. 한국에서 일할 당시 내 업무 중 하나는 영업사원들의 실적&KPI 관리였는데 이 부분이 지금의 경영기획팀과 관련 있는 업무여서, 사측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인터뷰 기회를 줬다. 경영기획팀에서 하는 일은 크게 4가지로, 사업계획수립, KPI, 투자, 손익분석인데 전사에서 하는 모든 일을 종합/수집하여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사실 당시 독일에 있는 한국 법인 지사로부터도 제안을 받았지만, 지금의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로 내가 독일보다 이탈리아를 훨씬 더 좋아하는 마음이었고, 두 번째로는 사측에서 제공할 수 있는 비자 조건과 연봉 조건 때문이었다. 독일의 경우 한국에서 일한 경력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리임에도 낮은 연봉에 비자 또한 노동 비자가 아닌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알아서 발급해 오라는 조건이어서 경력을 살려서 일할 기회임에도 재고의 여지 없이 지금의 회사를 택했다.

### 해외진출(취업 등) 준비과정, 경로와 유용한 정보, 팁

우선 이력서를 업데이트하면서 내가 어떤 상황인지 가장 먼저 정리했다. 내가 쓴 이력서를 컨설팅 받기도 했고, 전반적인 커리어 플랜에 대한 코칭도 받으면서 가닥을 잡았다. 참고로 '월드잡플러스'에 무료로 이력서를 첨삭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서 조만간 이 용해 볼 생각이다. 그리고 내 이력서를 여러 채널에 등록해서 최대한 노출시키려고 노력했다. 주로 '월드잡플러스'와 '링크드인'에 나의 이력서를 등록했고 동시에 이탈리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구인 공고를 계속해서 확인하며 관심 있는 공고에는 지원도 하였다.



개인적으로 '월드잡플러스'와 '링크드인'을 적극 애용할 것을 추천한다. '월드잡플러스'의 경우 다른 플랫폼들보다 회사 담당자 피드백이 제법 빨리 오는 편이어서 답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링크드인'의 경우, 링크드인이 일종의 구직판 SNS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 관심 있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 인사담당자를 찾아서 직접 일촌 신청하여 자신을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어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내 경우 링크드인 통해서 많은 잡오퍼를 받았고, 내 지인의 경우에는 실제 면접까지 이어져 많은 기회를 얻기도 했다.

그리고 해외생활에 있어서 휴먼 네트워크 또한 의외로 취업 성공이라는 길에 핵심 열쇠가 될 수가 있다. 물론 너무 인맥만을 생각하고 사람을 사귀는 것은 너무 목적 지향적이지만, 타지 생활에서는 좋은 사람과의 인연이 취업 시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좋은 자리나 기회가 있다면 주저 없이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권장하고 싶다.

만약 한인의 경우, 같은 나이 또래보다 중년의 어른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남는다면 한인 회사 내부 채용 시 추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제법 커진다.

### 나만의 해외진출(취업 등) 성공요인(태도, 업무 등)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성공요인 첫 번째는 어떤 분야에 내가 더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지 전략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이다.

현재 이탈리아 정치는 너무나 불안정하고 경제상황 역시 청년실업률이 2019년 9월 기준 28.7%(실업률은 9.9%) 자국의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타 EU국가로 취업을 하러 떠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탈리아에서 대학교를 나온 경우도 아니고 이탈리아어도 능숙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선불리 이탈리아계 회사만을 고집해서 지원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조금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한국계 회사의 법인이나 한인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취직 기회를 노렸다. 일단 이탈리아에 체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한국계 회사에서 경력과 동시에 언어능력을 더 쌓아 나중에 이직을 노릴 때 이탈리아 회사로 가는 것을 꿈꿨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정말 이탈리아를 좋아서 살고 싶어 왔다는 태도를 계속해서 어필했다. 어필한 방법으로는 워킹홀리데이 당시 1년 동안 내가 어떤 활동과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면접 때 많이 설명하였다. 실제로 나는 워홀 기간 동안 이탈리아 반도만을 메인으로 삼고 이탈리아 북부부터 남부 시칠리아 섬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최대한 이탈리아 구석구석 많이 여행을 다니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서울에서 6개월 그리고 밀라노에서 다시 5개월가량 이탈리아어 공부에 전념해서 워킹홀리데이 기간 동안 밀라노에서 외국인 대상 이탈리아어 능력시험(CILS)에도 응시했다. 이 부분이 지금 나의 팀장님께 내가 이탈리아를 결코 쉽게 떠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을 갖게 만들었다. (그리고 취업 후 추가 재시험으로 본 이탈리아어 능력시험에서 최종 합격해서 팀장님이 나 못지않게 많이 뿌듯해하셨다.)

### 해외진출(취업 등)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살고 싶어 하는 나라의 현지 상황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지만, 전반적으로 해외 취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한국이란 내 나라를 무척 사랑하고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무척이나 그림지만, 취업이라는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 개인적으로 한국이란 무대는 무언가 좁고 답답하다.

그래서 높은 교육수준에 똑똑하고 능력이 넘쳐나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한국이란 한정된 공간에 취업을 위한 스펙을 만드느라 돈과 시간을 쏟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꼭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를 향해 넓히는 것이 어쩌면 더 빠른 취업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한다..

다만 도피성으로 해외취업을 준비 없이 도전하는 것은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가족과 떨어져 산다는 것부터 도전의 시작이기 때문에, 일상 속 문제해결 능력이 많이 부족하거나 남이 해주는 대로 타성에 익숙해져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해외 진출을 다시 한번 더 재고하기를 권유한다.

또한 가고자 하는 나라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언어 공부와 같은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금전적인 부분까지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 본사에서 파견되어 해외 법인이나 지점으로 해외취업을 하게 된 경우라면 자력으로 진출한 사람보다는 훨씬 쉬울 것이다.)



박진봉

우수상 / 일본

K-Move School  
청해진 프로그램 3기타이밍 + 결단력 =  
프로그램 참가의 기회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두 나라 모두 사랑하고 자주 왕래하였기 때문에, 각국의 문화의 차이를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외국인과 외국어로 능숙하게 대화하는 사람을 동경하였고, 나 또한 그렇게 되고 싶다고 꿈꿔왔다. 한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어는 문제없었지만 일본어는 간단한 인사, 일상생활 용어정도만 아는 수준으로, 일본어로 능숙한 대화를 하고 싶어 일본어 학과를 졸업하였다.

그러나 한국 취업의 벽은 생각 이상으로 높았고, 취업을 도와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찾던 도중 K-Move의 청년 해외 진출 프로그램과 만나게 되었다. 연수 일정은 정말 빡빡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과 목표에 직결된 과정이라 그런지, 즐겁게 임할 수 있었으며 버리는 시간 없이 하나하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들이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계획과 컨설팅까지 함께 해주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같은 꿈을 위해서 서로에게 불을 지퍼주는 동기들이 있었기에 여러 가지로 해외취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

경험 + 가치관 =  
이상적인 취업

대학 시절 나는 일본어를 능숙하게 하고 싶어 여름·겨울 방학을 활용해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덕분에 일본어실력을 대화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고, 이곳저곳에서 일을 해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직장과 그렇지 않은 직장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게다가 연수과정에 일본 기업에 대한 분석과 동기들과의 정보 공유, 비즈니스 매너 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이 더해져, 작년 11월 일본 현지 면접에서 내가 지원한 회사 네 곳에서 합격 메일이 왔다.

네 곳 회사의 장·단점을 분석해주신 선생님의 컨설팅 덕분에 후회하지 않을 확고한 선택을 할 수 있었고, 아직 입사한지 두 달 밖에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지만 굉장히 만족스러운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







### 면접 경험담 및 소감

면접본지 반년도 안 된 입장이지만, 지극히 주관적으로 느낀 점을 이야기 해보려한다. 11월에 2주간 일본 현지로 면접을 보러 다녔다. 결국 나를 포함한 동기들 모두 각자가 원하는 회사 취업에 100% 합격하였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극도로 긴장한 상태였다.

그 동안 해왔던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기 때문에, 면접 준비에 몰두했다. 자신이 쓴 이력서 내용부터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에 대한 대답 등을 모두 암기한 동기도 있는가 하면, 포트폴리오에 넣은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위주로 준비한 동기도 있었다.

나 같은 경우는 반 년 동안 컴퓨터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4년간 공부해 온 전공자들에게 비할 수 있는 실력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면접 때만큼은 일본어에 몰두하였다. 하루하루 지날 때 마다 합격자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고 축하해주는 동기들과 면접 준비를 하니 힘든 줄도 몰랐다(모든 면접이 다 끝나고 나서 몸에 힘이 짝 풀렸다).

### 회사 선택 동기

여러 곳의 면접 후 합격한 나와 동기들을 보고 면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언어였다. 적어도 내가 면접을 봤던 회사에서는 합격 후에 짧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교육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회사에서 채워주고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마인드를 갖췄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불편함은 없는지를 우선적으로 보았다고 느꼈다. 내가 면접을 볼 때도 물론, 긴장도 많이 했지만 그렇다고 위축된 모습을 보인다면가 말을 못하는 단가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나왔는데, 이것도 좋은 결과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나는 도쿄에서 가까운 사이타마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집은 회사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회사 분위기는 굉장히 자유로우며, 매년 사내에서 바비큐 파티, 사내 여행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 해준다.

한국인 사원은 나를 포함하여 4명이며, 한국에서 유학생활동을 한 일본인 선배가 4명 정도 된다. 회사에서는 면접 전에 회사 소개를 하는데, 그 중 신입 직원들의 회사 소개가 나의 회사 선택에 큰 영향을 주었다. 다른 회사 소개 때의 신입 직원들의 표정은 어둡고 자신이 없는 반면, 우리 회사의 신입사원(1년 선배)의 표정은 너무 밝고 좋았으며, 진심으로 추천해 주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 고민하지 않고 이 회사를 선택했으며, 즐거운 회사생활의 연속이다. 나는 올해 11월에 주저 없이 다음 기수에게 우리 회사를 적극적으로 추천할 생각이다.



## 'k-move school'의 장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 취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해외 취업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한국과 반대로 일본은 구인난이라고 한다.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의 취업률이 100%에 가까우며, 확률을 낮춘 미취업자도 본인이 원하는 회사가 아니라서 취업을 하지 않았을 뿐, 일본에서의 취업의 길은 크게 열려있다.



'K-Move school'은 우리가 원하는 해외 취업에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향성과 미래까지 지원해준다. 해외 취업을 위해서 어느 것 부터 시작해야할지 모르던 나에게 여러 가지 방향성과 계획을 제시해 주었고, 내가 한 것이라고는 원하는 방향으로 'K-Move school'가 짜준 계획을 믿고 따른 것 밖에 없다.

해외로 나간다는 것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챙겨야 할 것도 많으며 신경 써야 할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 잡생각을 덜어주고 취업에 필요한 것에 몰두할 수 있게 도와준다. 가까운 곳에 선생님과 컨설턴트가 항상 대기하고 있으며 사소한 질문 하나하나도 친절하게 답변 해주신다.

취업 후에도 잘하고 있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직접 보러 와주시고 혹시라도 회사생활이 힘들거나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마저 도와주신다. 함께 일본에서 취업 활동을 한 동기들과도 꾸준히 연락하고 만나며 소통하기 때문에 외롭지 않았다.

'K-Move school'의 장점은 혼자서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보다 월등히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꼭 이 기회를 잡았으면 한다.

## 앞으로의 계획

우리 회사는 현재 엑셀과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한 자사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각종 버그나 속도 향상 관련하여 버전 업을 진행 중이다.

나는 향후 5년 안으로 속도 문제를 완벽하게 고치고 싶으며, 10년 안으로 이 상품을 모바일화하여 꼭 컴퓨터 앞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든 이 상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한 시스템 구축에 앞장 설 수 있는 리더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김 정 민

우수상 / 일본

나만의  
취업 성공 가이드일본으로  
취업을 하게 된  
계기는

저는 2018년 11월에 면접을 붙어 2019년 6월인 지금까지 일본 도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취업을 하게 된 계기는 취업을 앞둔 상황에서 우연히 학교에서 하는 청년 해외 진출 사업(청해진)이라는 포스터를 보고 흥미를 가지게 되어 상담을 받고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공학과여서 IT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IT분야로 취업할 나라를 선택하다 보니 일본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연수 기간은 3학년 때 예비자 1년, 4학년 때 본 과정 1년을 하면서 총 2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예비자 때는 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저녁시간에 일주일에 3일 정도 일본어 수업을 진행 했고, 4학년 때는 청해진 연수 과정에서 9학점을 주어 1~2개의 수업을 들으면서 남은 시간에는 매일 IT, 일본어 수업을 병행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일본어에 대해서는 히라가나도 모르는 수준이었으나 예비자 과정을 하면서 간단한 문장을 읽는 정도의 실력을 키웠고, 본 과정에서 이력서 준비와 모의 면접을 하면서 일본어 실력을 크게 늘릴 수 있었습니다.

청해진 본 과정에서  
배우는 것

지금부터 청해진 과정에서 배우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해진에는 20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일본어 학과, 컴퓨터 공학과 등 일본어와, 컴퓨터 둘 중 하나라도 관계가 있는 학생들도 지원하지만 그 외에도 사회 복지 학과, 행정학과 등 비 전공 학과들도 많이 지원했습니다.

비 전공분야의 학생 분들도 열심히 참여할 자신만 있으시다면 타 학과 분들도 모두 취업이 되었기 때문에 고민 없이 신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우선 일본어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초급·중급·고급반으로 나뉘게 되는데 각 반마다 진도를 다르게 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막 히라가나를 배운 단계여서 초급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초급반에 들어가게 되면 기초가 되는 단어 문법에 대해서 천천히 배우게 되고 매주 배운 것에 대해서 테스트를 봤습니다.



테스트를 매주 보면 스트레스도 받지만 매주 공부를 하게 되어 지식이 더 빨리 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식이 쌓이다 보면 어려운 한자들도 사전 없이 읽는 것이 가능해 지고 외우지 않은 한자도 읽는 방법이 비슷해 어느 정도 읽는 것이 가능해져 보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중급반, 고급반에서는 겸양어, 존칭 등 일본에서 실제 쓰이는 문장에 대해 배우고, 회화도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공부를 합니다.

물론 이 수업을 들으면서 초보자는 JLPT 3급, 2급 등 자격증을 준비하고 고급자들은 1급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4학년 1학기 동안은 기초 일본어와 회화를 공부하고 여름 방학 때부터 본격적인 이력서 작성, 컴퓨터 수업 등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을 진행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때 실력이 확 늘었던 것 같습니다.

## 처음 이력서를 작성 할 때

처음 이력서를 작성 할 때에는 한글로 먼저 자기소개, 장점, 취업 동기 등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 이력서 전문 강사님께 첨삭을 받고 통과가 될 때까지 계속 수정합니다. 한글 이력서가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일본어로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일본 강사님이 오셔서 내가 작성한 일본어 이력서 문장이 자연스러운지를 확인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처음 보는 일본어 단어와 문장을 접하게 됩니다.

이력서 작성이 끝나면 지금까지 해온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IT포트폴리오를 작성합니다. 컴퓨터 관련 학과들은 자신이 학과에서 했던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비전공자 분들은 청해진 과정에서 진행한 미니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서류를 작성합니다.

여름 방학 2달 동안은 이렇게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다시 2학기 복학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써왔던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실제 면접을 위한 모의 면접을 하게 됩니다. 우선 자신이 작성한 것을 자연스럽게 말하는 연습을 하는데 처음에는 모르는 단어와 문장이다 보니 잘 외워지지 않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하지만 어느 정도 보지 않고 말하는 것이 가능했고, 더 노력한 결과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가능해 졌습니다.

이렇게 전부 외우게 되면 강사님들과 모의 면접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외운 대로 이야기를 잘 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서 실전에서 나올 법한 질문들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 왜 한국이 IT 강국인데 일본을 지원했는지, 장점은 무엇인지,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였는지 등 실전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습하면서 9월부터 서서히 취업을 신청합니다. 처음에는 취업을 도와주는 회사에서 기업을 초청해 기업 설명회를 들으면서 희망자는 면접을 신청하게 되는데 먼저 이력서를 제출하고 통과한 분에 한해서 면접이 진행되거나, 해당 나라에서 주최하는 해외 취업박람회 등을 참여하면서 원하는 기업에 면접을 보게 됩니다. 또한 11월 중순 쯤에는 다 같이 일본에 가서 일본 기업의 취업 설명회를 들으면서 취업 활동을 하게 됩니다.저의 경우에는 총 8개의 회사에 면접을 봤고 3개의 회사에 붙었습니다.





최종 합격이 되면 일하게 됩니다.

저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면접을 봤고 저런 순으로 면접을 본 회사도 있지만 바로 1차 면접 후 결과가 나오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큰 기업일수록 면접 횟수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 개의 회사에 합격했다면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 연봉, 근무 조건 등을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면접에 합격을 하면 비자가 나오기 전까지 화상통화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일본어 교육을 받고 비자가 나오면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비자 같은 경우는 졸업 후 신청이 들어가게 되는데 평균 2개월~3개월 정도 걸립니다.

지금은 합격하여 근무를 하고 있지만 준비 당시에는 일본어 실력이 많이 부족해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취업 성공의 노하우라고 하기는 부끄럽지만 만약 학교에 일본인 분들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친구를 많이 만들어서 일본어로 회화 연습을 하면 좋고, 최

대한 일본어 선생님과 많은 대화를 하면 일본어 실력을 금방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듣는 것이 제일 문제였으나 일본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면서 들리는 대로 직접 써보고 그게 무슨 뜻인지 분석하면서 계속 듣다 보니 일본어 듣기 실력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면접에서의 팀은 긴장되지만 틀려도 밝게 웃는 얼굴을 유지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취업을 하고 회사에 들어와서 당시 면접관님께 물어 봤는데 웃는 얼굴을 보니 같이 일하고 싶다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지금 회사에서는 IT 관련 파견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를 하고 한 달 동안 일본어, 비즈니스 교육 등을 진행하고, 그 다음 달부터 일하게 되었는데 현재는 은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한자도 많고 회의에서는 말하는 것이 들리지 않아 고민이었지만, 윗분들과 상담을 한 후 회사 분들도 외국인인 것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셔서 지금은 천천히 쉬운 단어들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언어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신 분들이라면 괜찮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일본에는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일자리가 많이 있어 한번 떨어지더라도 도전할 곳은 많이 있으니 계속 도전하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실력은 부족하더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으시면 도전해주세요.

### 일본 회사의 장점

마지막으로 일본 회사의 장점을 꼽자면, 야근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비교적 많지 않은 편이며 처음 연봉은 한국과 비슷하지만 이후 연봉협상에서 더 빠르게 오르는 것 같습니다.

생활면에서는 한국과 비슷한 것이 많아 적응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월급이 다음 달에 들어오기 때문에 오실 때 생활비를 생각하여 돈을 충분히 환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 남 철

우수상 / 일본

제 학점은  
2.08입니다전형적인  
놀고먹는 대학생

2010년 3월 경성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한 나는 전형적인 놀고먹는 대학생이었다. 1학년 입학 후 대학생이 된 나는 고교시절 꿈꾸던 캠퍼스 로망을 실천하기 위해 밴드 동아리에 가입 후 모든 대학생활을 동아리에 바쳤다.

하루도 빠짐없이 등교하는 성실하다면 성실한 학생이었지만, 수업엔 참여하지 않고 동아리방으로 찾아가 시간을 보내곤 하였다. 그 결과, 1학년 1학기 성적 취득학점 14점 평균학점 2.1 그리고 1학년 2학기에는 전설의 올F 취득학점 0, 평균학점 0을 달성 후 군대에 입대하게 된다.

전역 후에도 대학생활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라이브 공연 등 동아리 활동에 전념하고 열정을 불태우면서 학업과는 거리가 먼 대학생활을 보냈다. 이런 생활을 보내던 중 4학년 2학기가 되었고 주위 분위기를 따라 술을 뭇 해먹고 살아야 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와중 우연히 K-Move스쿨 일본 IT 과정 설명회 공지를 보게 되었고 설명회 일시가 우연히 공강 시간과 겹쳐 자연스럽게 참석하게 되었다.

## 우연히 찾아온 기회

설명회에 참석 후, '이런 제도가 있었나?' 정도의 막연한 생각이었지만 강의 시간이 지날수록 미래에 대한 걱정과 'K-Move스쿨 연수 과정'에 대한 긍정적 생각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났다.

취미로 일본음악을 주로 듣고 연주하던 나에게 있어 일본 해외취업은 꽤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일본 기업은 신입사원에게 학점, 자격증 등 스펙을 요구 하지 않고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채용을 한다는 내용은 진부하지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생각이 이렇게 까지 변화한 후에는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일본어를 미리 공부하기 시작했고, 각 단과대학 설명회 마다 참여하여 선발 담당자 분에게 얼굴을 알려 K-Move스쿨 연수 과정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그리고 연수생 선발 면접 당시 일본어 실력은 부족하지만 과정 참여를 위해 미리 공부했다는 점과, '설명회에 전부 찾아가는' 열정을 어필하여 연수생으로 선발되게 되었다.



## 연수과정

연수가 시작 된 후 학업에 그다지 성실하지 않은 자신을 알고 있었기에 이러한 자신을 바꾸기 위해 자원하여 연수팀의 팀장에 지원하였고, 불성실한 자신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작은 것이지만, 다른 동기팀원들과 다른 입장에서 시작해 마음가짐을 다잡고 연수를 시작했다.

연수 과정은 만족스러웠다. 훌륭한 강사진, 연수생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지원해주는 교내 담당사무실 직원들, 그리고 좋은 기업과 연계해주는 직원들 등 좋은 조력자들이 있었고, 연수프로그램도 다양하여 팀원 간의 친목을 위한 워크숍 등 자신이 열심히 한다면 취업 까지는 순조롭게 가능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있었다. 직무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일본어 교육을 연수생의 실력 별로 반을 나누어 수업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 입사를 위한 면접

면접은 최대한 많이 경험 할수록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나의 첫 면접은 2018년 10월 이었다. 연수 시작 3개월 만의 면접이었다. 내 자신도 부족함을 알고 있었고 결과도 물론 불합격이었다. 특히 일본어의 부족함이 가장 크게 다가왔지만 좋은 경험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이후에도 나만의 기준을 정해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이 연계된다면 거리낌 없이 서류전형에 지원하여 면접에 참여 하였다.



##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고 내정

하지만, 깨지고, 깨지고, 또 깨졌다. 언어, 기술적인 면 등 내 실력에도 문제가 물론 있었겠지만 내가 생각한 건 면접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고 느꼈다. 일본어 실력이 부족한 입장으로 면접을 준비했기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여 달달 외우는 식으로 면접에 임했고, 이렇게 면접 경험이 쌓이다 보니 내가 생각 하여 준비한 답변이지만 면접관의 질문에 당시 분위기나 떠오른 생각이 아닌 준비된 답변 그대로 대답을 하는 기계적인 면접이 되고 있었다.

면접관도 나와 똑같이 느끼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 면접 방법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면접에 등장하는 핵심단어, 헛갈리는 단어만 집중적으로 외우고, 다른 준비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면접에 참여하기로 했다.

면접 방법을 바꾼 뒤로는 그 긴장되고, 힘들고, 하기 싫지만 필요에 의해서 참여하던 면접이 재미있어졌다. 면접 직전까지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가 차례가 되어 들어가면 면접관들과 담담히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나오는 식이었다.

오히려 이런 방법으로 하니 일본어가 더 잘 들리고 말도 잘나오게 되어 이 시기에 일본어 회화 실력이 엄청나게 상승했음을 느꼈다. 면접 경험이 쌓일수록 면접관들과 농담도 주고받을 정도로 일본어 실력이 향상 되었다.

그러던 중 한 기업의 면접을 보게되었다. 이 기업의 면접도 여느 일본기업과 다르지 않게 대학 생활의 성적, 보유 중인 자격증에 대한 질문은 전혀 없었다. 1시간가량 이력서에 적힌 동아리 활동에 관해 묻고 그에 대해 대답하는 등 가벼운 분위기의 면접 같지 않은 느낌의 편안한 면접이었다. 그리고는 마지막 질문을 받았다.

“일본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되고 싶나? 혹은 뭔가 원하는 것이 있나? 회사, 일에 대한 답변이 아니어도 좋으니 알려달라.” 라는 질문을 듣게 되고 당시 바로 떠오른 답변을 했다. “연애한 지 오래되어 두근두근함을 느껴 본 지 오래되었다. 그래서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다”고 대답했다.



답변을 하고 내 생각에도 이걸 아차 싶었지만 면접관들과 나 모두가 웃고 넘어갔다. 그리고는 며칠 후 내정통지 메일이 왔다. 그렇게 취업에 성공하여 입사 후 당시의 면접관들과 얘기 할 기회가 있어 물어봤다. ‘뭘 보고 나를 채용했나?’라는 질문에 “당신은 이력서에 적힌걸 보니 학업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취미 활동에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모든 걸 쏟을 수 있는 사람이란 걸 느꼈다. 그걸 업무에도 기대한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에 이게 뭔가? 싶으면서도 솔직함을 느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입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왕 채용할 거라면 사람 좋은 녀석을 채용하자! 라고 생각해 당신을 선택했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

막연히 가지고 있던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채용한다’ 라는 일본의 채용문화에 대한 이미지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임한다면 저와 같은 사람도 해외에 진출하여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못 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후배님들 이라면 더욱 도움이 되는 얘기가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부터 시작이지만 이 또한 자신감과 열정으로 극복 된다 생각합니다.

[자신감, 열정] 진부한 단어 이지만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누구나 기회가 오고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입사 후의 생활에 대한 내 생각

입국 직후 느낀 일본은 알고 있던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친절하고, 예의 바르며 준법정신이 높았다. 하지만 직접 생활하고 살기 시작하니 다른 점이 있었다. 이러저러한 에피소드가 있지만 정리하자면 ‘외국인으로서 일본에서 살아가려면 먼저 다가가야 한다.’이다.

일본에서 난 외국인이기애 일본인은 친절하지만 결코 먼저 다가오진 않는다. 하지만 내가 먼저 다가간다면 그쪽에서도 다가와 준다. 이를 깨달은 후에는 생활에도 활력이 생기고 일을 계속 해나갈 자신감이 생겼다.

## 마무리

이후 공단의 사업으로 해외 취업 연수에 참여 할 후배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다. 제목부터 아시겠지만 전 글러먹은 학생이었습니다.



## 장 준 수

우수상 / 일본

일본취업은  
도피처가 아닌  
성장하기 위해 가는 곳



### 해외진출을 선택한 계기

2019년 5월 8일부터 일본에서 일하게 된 장준수입니다. 작년 K-Move스쿨을 통해 일본에서 취업하게 되었고, 월드잡플러스에 공모전이란 좋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취업하고 생활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겪은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 공모전에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정보통신공학과를 전공하였고 전공을 살려서 한국의 IT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았지만 대학교에서 청년 해외진출 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면서 해외취업을 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한국에서 평범하게 취업을 하여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지금과 같은 국제적인 시대에 세계적으로 나아가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 일을 하게 될 경우에 인간관계나 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처음은 가까운 일본에서 취업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미래에는 IT엔지니어로 여러 나라의 작업공정을 거치며 시야를 넓히고 성장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일하면서 언어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나날이 발전해가는 저의 모습을 보면 해외 취업이란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 현재 해외진출 국가, 근무지역, 직종, 회사 선택 동기 및 업무 등 소개

현재 저는 앞서 말씀드린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고, 근무지역은 지금의 현장 프로젝트가 끝나면 도쿄 주변에서 다른 현장으로 투입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를 선택하게 된 동기는 시스템 엔지니어로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가지 기술이 아닌 여러 가지 기술을 접하면서 배우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 해외진출 준비과정, 경로와 유용한 정보, 팁

그리고 유행하고 있는 기술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고 제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과 맞아 지금의 회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일본 대기업들의 공정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큰 장점입니다. 일본의 기업들은 대부분 1~2년차 신입에게 코딩관련 업무를 맡기지 않는 반면, 저는 처음 현장에 들어가서부터 설계서 작성이나 코딩을 빨리 접할 수 있었고, 다른 일본 기업보다 IT관련 지식이나 능력을 빨리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해외진출을 준비하며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온라인 웹사이트는 월드잡플러스, 글로벌 터치 코리아, 마이ナビ 등입니다.

이런 사이트를 사용하면서 여러 기업들을 조사하였고 회사이념을 보면서 자신과 가치관이 맞는지, 구글에서 그 회사의 평가가 어떤지 확인하고 타지에서 생활하게 되는 외국인에게 제공해주는 혜택이나 복리후생 등을 보면서 관심 있는 회사들을 리스트로 작성해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는 해외 취업 박람회나 일본 취업 박람회에 참가해서 지원하고 면접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킬 시트나 이력서들을 미리 준비하고 작성한 내용의 문법, 어휘가 맞는지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일본 취업 박람회의 경우는 5~6월 정도에 코엑스에서 설명회나 면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관심은 기업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전까지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본 취업 박람회에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일본어능력시험 N2 이상을 요구하고 일본어 회화능력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막힘없이 말할 수 있으면 지원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해외진출의 장단점, 난관 극복 노하우 등

해외 취업할 때의 장점은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시야가 넓어져 사고방식이 유연해진다는 점과 일하고 있는 나라의 해당 언어능력이 나날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해외를 오면서 친해던 친구들과 가족 등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와 타지에서 생활한다는 외로움, 한국 음식의 그리움, 현지인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비싼 집세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학생 때부터 주위 사람들과는 다른 생활을 하고 싶었고 한국의 관점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관점도 익히고 싶어 해외로 취업하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지내온 친구들과의 관계, 가족을 포기할 수 없어서 가까운 일본을 택하였고 제가 추구하고 있는 구체적인 작업방식, 규약 등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거리도 가까워서 가끔 한국어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지인과의 의사소통은 개인적으로 NHK의 이지뉴스나 일본 매체들의 방송들을 보면서 일본어 실력을 늘렸습니다. 또 매일 현지인과 대화하면서 모르는 단어나 문법들이 있더라도 자신감 가지고 끝까지 말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본에서 생활하다 보니 지금은 일상회화는 문제없을 정도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집세 같은 경우는 해당 기업에서 50%정도 제공해주는 기업도 있고 사택을 지원해주는 기업도 있습니다.

저는 회사 동기 3명과 같이 살고 있고 집세와 공과금을 나눠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집세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 나만의 해외진출 성공요인

저는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K-Move나 월드잡플러스에서 일본기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도 하였고, 일본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였을 때 설명회를 듣기도 하고 면접 경험도 쌓아 제가 희망하였던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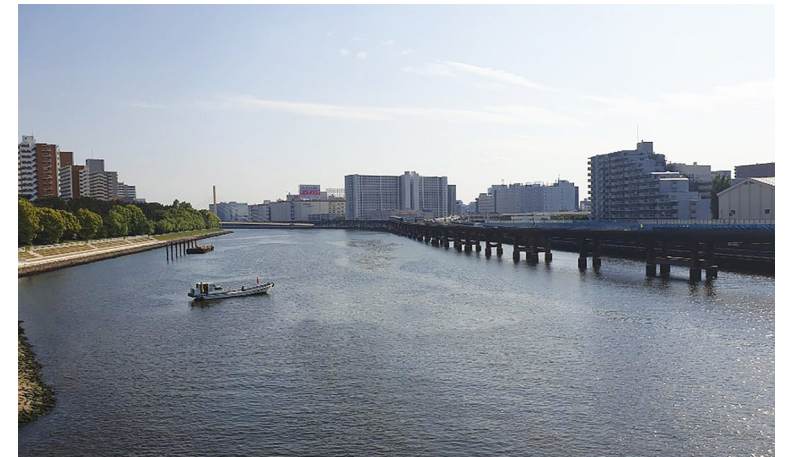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앞에서 말씀드린 스킬 시트나 이력서들을 미리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해당 국가의 언어 구사력도 공부하셔서 의사소통 가능한 정도가 되어야 원하는 기업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능력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외취업을 결심하시면 가능한 빨리 언어 공부를 시작하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글로벌한 인재를 찾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고 도전정신이 있는 분들이라면 해외취업에 도전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문화적으로 잘 맞는 국가에서 취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취업은 자신의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외에서 생활하게 될 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타지에서 생활하는 만큼 힘든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처음 해외취업을 하려고 했던 마음가짐으로 초심을 갖고 생활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민지

우수상 / 미국

롤리코스터 같았던  
1년

## 왜 미국으로 떠났을까?

2018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딱 365일을 미국에서 지내고 온 박민지입니다. 저는 한미 대학생 취업연수(WEST 프로그램)를 통해 텍사스 오스틴에서 3개월의 여학연수, 8개월 동안 두 번의 인턴십, 1개월의 여행을 했습니다. 이후 주변 지인들에게 해외 인턴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아 해외 취업을 추천하는 마음으로 월드잡플러스 서포터즈로서 활동했습니다. 이것의 연장선으로 해외 진출을 고민하는 많은 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수기를 작성합니다.

제가 해외 인턴을 결심하게 된 계기로 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한 번도 가 본 적 없었고, 해외 여학연수 경험도 없었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졸업 전에 한 번쯤은 외국 경험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보통 주변에서 많이 추천하는 교환 학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우연히 보았던 WEST 프로그램 릴레이 후기를 보며,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었던 저는 제가 과연 교환학생 경험으로 이런 비즈니스를 배워올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교환학생 경험도 영어 실력 향상과 해외 체류 경험을 줄 수는 있겠지만 같은 시간 동안 해외 인턴을 하며 직무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WEST 프로그램이 저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휴학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저는 1년의 휴학을 헛되지 보내지 않을 자신이 있어 해외 인턴을 결정하였습니다.

잊을 수 없는  
미국에서의 첫날-면봉  
라면 사건

저는 미국에 도착하고 혼자 지냈던 첫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너무 배가 고프지만 혼자 나가서 사 먹을 용기는 나지 않아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 하나를 사고, 포크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지 못해 집에 돌아와서 면봉을 부셔서 라면을 먹었던 슬픈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혼란의 하루를 보내고 앞으로 1년을 어떻게 버티나 걱정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는 어차피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밖에 없었고, 밖으로 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몸짓 발짓으로 체크카드도 발급하고 마트에 가서 식재료를 사서 밥도 해먹었습니다.



## 긍정적으로 움직여라!

해외 진출을 꿈꾸시는 분들 대부분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언어’ 부분입니다. 저 또한 미국에 오기 전 무엇보다 부족한 영어 실력이 걱정됐습니다. WEST 프로그램에는 인턴십 전에 어학원 기간이 따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첫날 면봉 라면의 충격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학원 수업 외에도 따로 영어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어학원 수업을 마친 오후에는 한국에서 영어교재를 택배로 받아 읽기, 듣기를 공부했고 어학원 선생님의 추천으로 TED 영상을 시청하며 Dictation과 Shadowing을 함으로써 자연스러운 발음과 flow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저는 전공과 관련된 ‘근대 라틴아메리카의 혁명’을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청강하며 WEST 프로그램으로 놓쳤던 교환학생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영어로 논문을 읽고 학생들과 팀 토론을 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한국에서와는 다른 의견들이 많아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 직무가 맞다면 OK!

그렇게 어학원을 다니다보니 어느새 저도 Job offer를 받았습니다. WEST 프로그램 특성상 첫 번째 인턴십은 스폰서에서 매칭을 도와주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인턴십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job description에 서술된 내용이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인지에 초점을 두자는 마음으로 인턴 구직에 임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저는 Ñapegados라는 인큐베이터 회사에서 제가 원했던 마케팅 인턴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1인 기업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고 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WordPress와 Photoshop을 사용하여 웹사이트, 로고, 명함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사를 작성할 정도까지 영작문 실력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많지 않은 업무량 덕분에 문제 발생 시 그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 안 된다는 편견은 바꾸라고 있는 것

한편, 1인 기업이기 때문에 생기는 단점은 일상생활에서 보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대화 기회 부족은 도서관 투어 봉사활동, meet-up 참여를 통해서, 인맥 구축 기회 부족은 업무시간 외에 구글이나 타 회사 이벤트 참여를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2차 인턴십 구직 때는 스폰서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구해야했습니다. 가능한 기간은 단 두 달이었고, 졸업자가 아니고 서류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류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50장정도 지원을 하다보면, 이것도 안 될 거라는 마음으로 지원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류에 합격해서 면접을 보러갔는데 알고 보니 다단계 회사여서 놀랐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다단계 회사의 경우, 계속해서 이사하거나 이름을 바꾸기 때문에 검색해도 추적하기 힘듭니다. 자신의 능력에 비해 너무 높은 페이를 부른다면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수많은 다단계 회사의 러브콜을 거부하고 결과적으로 저는 Tech Ranch라는 국제스 타트업들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큐베이터 회사에 취직하였습니다. Open 포지션이 아니었고 현지에서 알게 된 지인이 이 회사가 저에게 맞을 것 같이라며 사장에게 말해주었고 그 뒤, 공식 절차를 거쳐 구직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저와 같이 인턴십을 했던 Lona와 Taha도 대학교 방학을 맞아 인턴십을 구하는데 지인을 통해 이 회사를 추천받았다는 점입니다.

대기업이 아니라면 추천으로 구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미국 노동시장의 특징입니다. 언제 어디서 좋은 인연이 찾아올지 모르니, 평소에 크고 작은 행사에 가서 자신을 어필하고 다니며 네트워크를 쌓아놓는 것이 구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차 인턴십을 진행했던 회사는 1인 회사였던 것에 비해 Tech Ranch는 비슷한 일을 하지만 고객이 전 세계에서 온다는 점에서 좀 더 규모가 큰 회사였고, 무엇보다 함께 일하는 인턴들이 있어서 영어 실력, 문화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벤트도 주최해 보면서 1차 인턴십 기관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한국에 돌아가면  
할 수 없는 것을  
다 하고 가라!**

여행가보다는 이곳에 평생 살 사람처럼 지내보자는 마음 때문에 바쁜 스케줄로 몸은 힘들었지만, 저의 빠른 한 달을 돌이켜 보면 잘하고 있다고 자신을 스스로 다독여줄 수 있었습니다. 정기적인 스케줄을 잡는 것이 적응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월요일에는 합창단, 화요일에는 meet-up, 목요일에는 자원봉사, 나른해질 수 있는 주말 오전에는 필라테스를 했습니다. 갑자기 많은 것을 시작하면 쉽게 지칠 수 있으므로 하나씩 계획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 되는 일은  
되게 하라!**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뿐 아니라 다양한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되새겼던 말은 바로 '하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웹사이트 제작과 마케팅 관련 새로운 툴을 다루면서 수도 없이 많은 문제점을 만났지만, 그때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구글, 유튜브, 각종 포럼 등을 참고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는 선순환으로 이어져,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마인드, 안 되면 되게 하자라는 도전 정신, 그리고 문제해결능력을 모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기를 마치며...**

미국 생활을 돌이켜 보면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가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 미국인들 사이에서 벽을 느꼈던 적도 많았지만, 목표했던 영어회화와 일과 관련된 면에서 발전한 저 스스로가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생각했던 '아름다운' 미국 삶이 아닐 수 있지만, 어떤 방법이든 해외진출에 도전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면 뜻 깊은 경험을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도전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 경험을 발판 삼아 해외구직에 성공하겠습니다.





윤 하 진

장려상 / 미국

새로운 경험만이  
또 다른 나를 만든다

### 고등학교 때부터 해외 교환학생을 꿈꿨던 나는 실은 겁쟁이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해외 교환학생을 꿈꿨던 나는 실은 겁쟁이었다. 해외 교환학생 신청이 마지막으로 가능한 3학년 1학기 때까지 해외 교환학생을 갈지 말지를 고민하고만 있었다. 정말 가고 싶었지만 혹시 내 선택에 후회는 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렇게 교환학생 모집 공고만 매일 바라보다가 시간은 흘러가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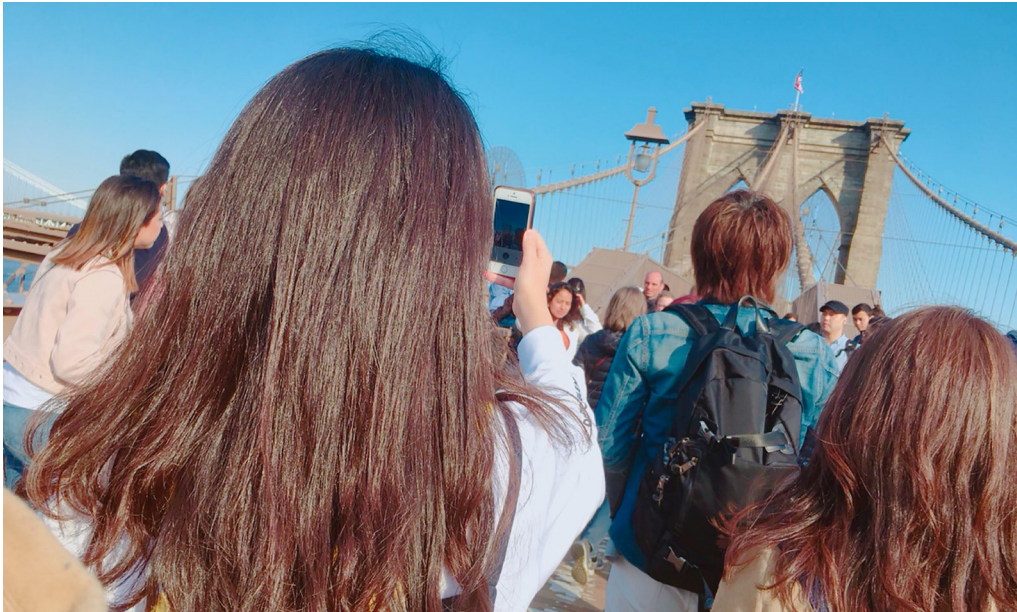
교환학생 신청이 불가능해진 순간부터 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후회와 미련이 밀려 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도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는 내가 너무나도 싫어졌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하고 싶었던 것들을 리스트로 작성한 후 하나 하나 해나가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해외 인턴십이었다.

해외 인턴십에 합격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는 물론이고 인턴십에 도움이 될 만한 교내 활동을 하고 K-Move스쿨 연수를 신청하여 국내에서 영어 교육, 직무 교육을 받았다. 영문 이력서 작성 방법, 면접에 대한 정보, 더 분명하고 제대로 된 영어 말하기 방법, 미국 문화 등에 대해서 배웠다. 또한 전공인 IT 외에 Green belt, MS office 등의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취업 전에 배울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국내 교육도 정말 알차고 좋았지만 가장 좋았던 것은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했던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고 잘 때까지 영어를 생활화했던 학생들. 처음에 수업할 때 내 머릿속은 어순을 바꾸느라 난리가 났었다. 했던 말을 또 하고, 한국에서 시험용으로 배웠던 영어를 직접 외국인들과 소통할 때 쓰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다.

하지만 다 같이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한 주제에 대해 토론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은 늘어 갔다. 한 달이 지날 때쯤 더 이상 어순 생각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바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으로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영어는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더 넓은 세계로 갈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열쇠 같은 것이었다. 공부도 하고 여행도 다니며 선생님과 친구들과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며 잊지 못할 추억들을 쌓았다.

미국에 나가기 전 영어를 자유롭게 두려움 없이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이렇게 가기 전에 해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음에 항상 감사함을 느꼈고, 필리핀 어학연수는 미국 인턴십을 향해 더 힘차게 걸어 나갈 수 있게 도와준 정말 소중한 발판이었다.



## 남은 국내 교육을 마무리 하면서 가고 싶은 회사에 지원하고, 면접을 보게 되었다.

남은 국내 교육을 마무리하면서 가고 싶은 회사에 지원하고, 면접을 보게 되었다. 1차 서류, 2차 면접, 3차 면접을 통해 뉴저지에 위치한 Grand BK에 IT Assistance로 합격하게 되었다. 합격의 기쁨도 잠시, 바로 급하게 회사를 들어가야 해서 나와 가족들은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Grand BK IT부서는 새로 오는 인턴들에게 집을 구해주고, 오기 전에 적응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문화가 있었다. 먼저 일을 하고 있던 IT 인턴들은 궁금한 점들을 다 해결해주었고, 심지어 1년동안 묵었던 집까지 구해주었다.

근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공원에서 IT 팀원분들과 미리 만나 바비큐 파티를 하고, 집주인 이모, 이모부께서 환영회를 열어주셔서 얼어붙어 있었던 나는 한결 마음이 편하고 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출퇴근 역시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걱정 없이 출근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미국에서의 첫걸음을 뗐다.

Grand BK는 출퇴근 이외에도 직원들의 복지를 많이 생각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게 많은 지원을 해주었다. 타지에서 외로울 수 있을 텐데 다양한 스포츠 활동 지원, 무료 VIP 콘서트 티켓 배부, 스키 트립, 바비큐 파티, 할로윈 코스프레 대회, 요리 대회, 연말 파티 등을 개최해서 200명이 넘는 분들과 함께 어울려 일하고 지낼 수 있어서 외로움 틈이 없었던 것 같다. 영어 수업도 지원해주어서 현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과 미국 문화를 배울 수 있었다. 그 외에도 미국인들, 유학생들, J1 비자로 온 다른 회사 친구들과 어울리며 뉴욕 곳곳을 돌아다니고 일 뿐만 아니라 정말 해외 문화 교류까지 가능했다.

## Grand BK에서의 주요 업무는 Help desk였다.

Grand BK에서의 주요 업무는 Help desk였다. Grand BK는 Hmart의 구매 본부로, Grand BK, 본사, Grand SK(자산), Captain Blue(수산) 그리고 매장에 IT Support를 해야 했다. 다른 직원분들이 일을 할 때 발생하는 IT 문제들을 해결해드리러서 원활하게 일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다.

여러 매체를 통해 연락을 받고, 문제 해결 및 안내를 해드리는 일을 했다. 많은 분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고맙다고 말씀해주셔서 힘을 얻어 웃으며 일을 할 수 있었다.



나 역시 더 많은 기회들을 얻을 수 있었고, 대학에서 배우던 것들을 실무에 적용시켜서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었다. Help desk는 전반적인 것들을 다루는 일로써, 정말 어떻게 보면 가깝게 간단한 것들만 해결해드릴 수 있는 포지션일 수도 있고, 전반적인 것을 보고 배우고 해결해드리며, 관심 있는 분야는 더 깊게 배울 수 있는 좋은 포지션이었다고 생각한다.

일을 하면서 MySQL, 서버 구축, data center 방문, IT 내에 다른 팀원들은 매장에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요청 사항을 받는 Fresh Desk 웹사이트 UI 제작 그리고, Invoice를 시로 공부시켜서 데이터를 불러들이게끔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다.





### 일을 하면서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일을 하면서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성실함은 두말하면 잔소리. 특히나 협동과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어떤 점이 도움이 필요하고 서로 알려주고 배워야 하는 부분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체계화를 시켜서 정리한 후에 효율적으로 일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정리되어 있지 않은 모든 정보들을 매뉴얼로 만들었다.

미국에서 일 년의 생활을 마친 후 정말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성숙해진 것은 물론이고, 한국과 다른 문화를 가진 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가치관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달라진 것 같다.

###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각기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다름이 틀리고 이상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며 그것 또한 배울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어떤 사안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 그리고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는 만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점이 너무 좋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기부와 봉사를 하는 것이 몸에 밴 점이 놀라웠다.

다른 목적 때문이 아닌 정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아낌없이 베푸는 모습을 보고 배워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마지막으로, 솔직히 말하면 불안함에 그냥 한국에 취업할까 하고 흔들렸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 그냥 취업했다면 과연 이러한 경험들을 하고 커갈 수 있었을까.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한다. 주저하면 그 기회는 떠나버린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안다.

나에게 해외 인턴십은 또 하나의 기회였고, 그 기회를 잡아 여러 방면으로 성장했고, 단단해졌다고 생각한다. 이 소중한 경험들이 모여서 나를 새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좋은 경험을 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항상 생각하며 지내고자 한다.





이승희

장려상 / 일본

스물여덟,  
일본취업이라는  
새로운 여행을 나서다이렇게 무난하게만  
살아도 될 것인가.

20살, 회계학과에 진학하고 자연스럽게 졸업 후 회계 관련 직종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졸업 전부터 시작한 일이 4년차가 되었고, 직급도 생길 무렵 무언가 회의감이 생겼다. 이렇게 무난하게만 살아도 될 것인가.

전공으로 하는 일이 아닌, 내가 선택해서 하는 일을 하는 기분은 어떨지, 진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회사를 다니며 받은 휴가들로 국내, 국외 가리지 않고 갔던 여행이 생각났었고, 해외는 일본만 갔었던 내가 떠올랐다. '일본에 여행이 아닌, 생활을 한다면, 일을 한다면 어떨까?' 가슴 속 설렘이 가득 찼다. 27살이라는 어리지 않은 나이임에도 퇴사를 결정하고, 무작정 인터넷에 '일본 취업하는 방법', '일본에서 생활하는 방법'을 찾아보았다. 일본 취업과 관련된 박람회도 지역 구분 없이 다니곤 했는데, 유학 취업 박람회에 가서 나이가 많아서 힘들다는 말만 들었다. 역시 너무 늦은 걸까 싶었지만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라는 생각에 포기하지 않고 취업하거나, 배울 수 있는 과정을 더 열심히 찾아보았다.

당시 나는 월드잡플러스에서 본 수많은 공고에 지원할 수도 없는 자격이었지만, 여행 관련 업종의 공고들을 인쇄해서 방에 하나씩 붙여보기 시작했다. 공통적인 지원요건으로는 '언어와 비자 취득에 결함이 없는 자'가 명시되어있었다. 당장 일본어 학원부터 다니며, 하루에 한 번씩은 공고를 확인했다.

그때 마침 해외연수 'K-Move스쿨 일본 국제공항지상직 해외취업 연수과정'을 보았고, 단숨에 지원했다. 4개월이라는 연수 기간 동안 연수를 받고, 해외 취업까지 도와준다는 정말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다. 면접 때 부족한 일본어는 반드시 4개월 안에 제대로 준비할 것이며, 누구보다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절실함을 강조했다. 그렇게 연수에 합격하고 4개월간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연수받는 동안 일본인 선생님이 알려주는 비즈니스 일본어와 경어를 배우고, 선생님께 말씀해주시는 일본 생활 이야기에 일본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 그렇게 연수에 합격하고 4개월간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 K-MOVE 연수과정을 통하여 일본 취업 준비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간 기분이었다.

연수 과정 중 보충 수업도 진행하며 본인이 일본어를 조금 더 공부하고 싶거나 본인의 서류를 검토받고 싶을 때 선생님들께서 따로 시간을 내 더 봐주시곤 하셨다. 연수 생활 중에도 일본어 회화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일본어 전화를 신청하여 대화를 나누고는 하였는데, 생각해보면 지금 일본에 와서 길을 묻거나, 정기간을 만들거나, 마트에 가거나, 무언가를 구입할 때 사용하고 있는 일상생활에 쓰이는 말들은 이때 많이 늘었던 것 같다.

공항 영어 시간에는 상황극을 하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영어가 쓰이는지를 배웠고, 연수생들끼리 직원과 고객을 번갈아 역할하며 상황이해도 빠르게 되었다. 또한 항공업종에서 근무하신 영어 선생님과 CRS(항공권 예약, 발권 자격증) 선생님께서는 실제 업무 하며 겪었던 경험담이나, 업무환경에 대하여 많이 알려주셨다.

근무 해 보셨던 분들이라 어떤 약어가 많이 사용되는지, 실제 업무 시 사용하는 프로그램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공항 지상직은 하나부터 준비하던 나에게서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다.

K-Move스쿨 연수 과정을 통하여 일본 취업 준비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간 기분이었다. 특히나, 자기소개나 면접을 준비하며 ‘나’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기회였다. 나에게 대하여 많이 알수록 면접에 자신감이 생겼었다.

연수 기간 중에도 일본어 조건을 충족한 연수생이나 면접 희망자에 한하여 실제 일본 기업 면접을 볼 수 있었다. 연수기관인 핵사곤GMI에서 매달 알려주시는 면접 정보로 준비하며 여러 번 지원도 했었다. 나는 면접을 한 번에 볼지 못했었다. 늦은 일본어 준비와 스카이프 면접에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 2018년 10월부터 시작한 4개월의 연수가 끝나고도 연수기관에서는 면접 정보를 계속해서 주셨다.

2019년 2월 또 한 번의 면접 기회가 왔다. 일본에 취업하려는 이유와 가족들은 해외 취업을 동의하는지, 공항 지상직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일본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일하고 싶은 공항이 있는지 다양한 질문들이 오가며 면접을 마쳤고, 조업사 株式會社

## 지금 내가 하는 업무는

NAOS에 합격할 수 있었다. NAOS는 도쿄에 본사를 둔 신생 회사였지만, 직원 복리후생도 좋았고 일본에서 큰 조업사인 FMG의 자회사로 큰 성장이 보였던 회사였다. 그래서 NAOS와 같이 성장하고 싶었다.

공항 지상직은 항공사에서 직접 채용하는 경우보다, 지상직 관련 조업사에서 해당 항공사를 핸들링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NAOS에 합격한 나는 홋카이도 신 치토세 공항 제주항공에서 근무를 배정받게 되었다.

지금 내가 하는 업무는, 신 치토세 공항에서 제주항공을 이용하여 인천과 부산으로 가시는 고객님들의 체크인 수속과 탑승권 발권, 수하물 위탁과 관리, 탑승 전 게이트에서 탑승권 확인을 주로 맡고 있다.

여행이 좋았던 내가 이제는 여행을 가시는, 여행을 끝내고 오신 고객님들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안내자가 되었다. 공항에 온 순간부터 공항을 떠나는 순간까지 고객님들의 여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기에, 이 업무가 무척이나 즐겁고, 조금 더 친절하게 안내하려 노력하고 있다. 고객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일본에서 한국인 봐서 좋네’ 라던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에 큰 응원을 받은 것처럼 기쁘게 근무하고 있다.

아직도 부족한 일본어 탓에, 지금은 알려주시는 말을 그대로 외워서 하고 있지만, 노력하는 모습에 선배님들도 많이 알려주시려 하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셔서 내일은 어떤 새로운 업무를 할지, 어떤 고객님을 맞이하게 될지 출근하는 길이 설렌다.

요즘도 내가 그 순간 그대로 한국에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해 본다. 이러한 설렘, 타국에서의 생활과 취업을 마냥 꿈으로만 꾸고 있을 나에게 오늘날 이러한 선택을 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는 한다. 지금 직장에서도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일을 할 수 없는 나이는 아니었다.

‘무언가를 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다.’ 지금 이렇게 내가 증명하고 있으니까



## 고정주

장려상 / 인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세계인시작하며 -  
TO BEGIN

저는 현재 주 뭄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실무관으로 재직 중입니다. 외무 행정 분야가 다소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경험이 해외 취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수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막연하게 꿈꾸던 해외 취업의 꿈을 이루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시점의 감회가 새롭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미지 메이커 -  
IMAGE MAKER OF KOREA

인도인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사업들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공공외교와 경제 업무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공공외교, 국가 간 법령을 통한 경직된 외교 활동이 아닌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유연한 외교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영화 상영행사, 케이팝 콘서트, 한류문화축제와 같이 재미있고 액티브한 외교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관련 문화행사를 주관할 때마다, 현장에서 ‘한국’에 대해 보다 큰 애정과 관심을 표현해 주는 인도인들을 보며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하여 현지인들과의 유연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인도 현지 진출 아국 기업체 지원 및 양국 간 경제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진출하신 한국 기업들의 불편을 최대한 해결해드리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한국에 진출하고 싶어 하는 인도 기업인들의 문의 사항에도 성실히 답해드리죠.

해외 진출을  
꿈꾸게 된 계기 -  
WHY ABROAD

학부 시절, 경제학을 전공하며 독일에서 반년간 교환학생 생활을 하였습니다. 졸업 후에는 은행 및 관광공사 인턴, 주 그리스 대한민국 대사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교환학생으로서 해외 생활을 했던 경험이 저의 해외 진출이 시작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니다. 그 이후로 자신감이 붙어, 해외 교류 혹은 진출과 연관된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학부시절, 대학교 국제교류본부에서 진행하는 활동 등에 꾸준히 참여하였습니다.

온라인 소셜미디어 채널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알렸던 관광 공사에서의 인턴 경험을 통해, 세계인과 보다 유연하게 소통하며 대한민국을 알리는 '공공외교' 분야에 큰 애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 그리스 대한민국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근무는 해외 취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어주었습니다.

언뜻 보시면 경력이 다양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모두 연관성이 있습니다. 처음의 경력을 발판삼아, 그 다음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폭넓은 직무를 경험해보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준비과정 - HOW TO PREPARE

저는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얼핏 보기에 막연할 수 있는 해외 취업만 목표로 두고 준비하기에는 마음이 편치 않아, 국내 기업 취업 준비와 해외 취업 준비를 병행하였습니다. 특히, 재외공관(대사관 및 영사관/ 문화원 등)에 큰 관심을 두고 준비하였기 때문에 여타 해외 취업자분들과는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포맷을 통하여 지원자를 선발합니다.

1차 서류

2차 필기 (영어 논술 시험)

3차 면접 (영어/ 국문 면접) - 화상 면접

2차와 3차의 경우에는 국가별 재외공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어 외에도 해당 주재국의 언어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교환학생 및 경력을 영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토플/토익 및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영문 문서 작성 또는 번역 (영 → 한/ 한→영) 연습 또한 하였습니다. 때로는 월드잡플러스에서 진행하는 아카데미 혹은 JOB 페어 등에 방문하여, 스스로 해외 취업과 연관된 정보를 업데이트 해나갔습니다.

또한 재외공관이 일반 회사와 달리 소규모 정원으로 운영되는 점, 해외 생활이 힘들다는 점 등에 대해 미리 단단히 각오하고 면접에 임했던 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자면, 영어 실력보다도 직무에 관한 이해와 연관 경험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때로는 탈락의 쓴 고배를 마셔야 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기업/ 해외 취업 준비 포함하여 약 4달간 70~80개의 이력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취업에 대해 다가서는 자세와 노력이 귀중한 결과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 다른 문화, 다른 마인드

## 해외 취업의 장단점 - GOOD & BAD THINGS

교환학생, 해외 인턴 경험을 통해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포용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장에서 인도인 동료들과 일하다 보면 때로는 예기치 못한 문화적 차이에 직면하고는 합니다.

"It's Okay" 혹은 "Don't Worry" 라는 말로 실수와 문제 상황을 넘기는 인도인 동료들을 보고 있다면, 웃음이 쏙 들어갑니다. 정서적으로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편하게

나를 가족과 친구들이 없다는 점이 해외 취업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환학생, 해외인턴과는 너무나 다른 느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_ ^



### 나는야 만능인!

재외공관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만능인’이라는 마음가짐이 특히 필수입니다. 한정된 예산과 인력,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처해진 인도에서 공공외교 문화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기획자’인 동시에 ‘웹 디자이너’이며, ‘PR’ 담당자, ‘MC’가 되기도 합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설명드릴게요.

온전한 하나의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행사 전반을 기획하고 항목에 따라 예산을 담당합니다. 포스터 및 홍보 브로슈어를 직접 제작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 외주를 주거나 담당하는 부서나 직원이 따로 있겠지만, 재외공관은 규모가 너무

작아 업무를 세분화하여 분장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제작한 포스터를 토대로 현지 아국기업체나 SNS 채널, 언론 매체들을 통하여 직접 배포도 하죠. 행사를 진행할 때에는, 무대에서 MC로 일인다역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 종료 후에도, 세부적으로 보고를 위하여 정리하고는 한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교통수단 및 간식(영수증)...까지 직접 챙겨야 하고 모든 부분에서 다 챙겨야 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이렇게 일인다역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행사를 하나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과정뿐 아니라 종료 정리 과정에서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별로 저와 같은 실무직원들이 각 1명씩 배치되어 있는 저희 공관의 경우, 모두 이렇게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 셀러브리티, 프로페셔널한 한국인 모델

대부분의 인도인들은 외국인들에게 상당히 관심이 많고, 특히 사진 찍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공공외교 행사 종료 후, 수줍게 카메라를 가져오는 인도인 학생들을 한 명을 시작으로 평균 20~30명 정도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때로는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되느냐며, 비디오 촬영을 요청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피트니스센터에 운동하러 가면, 제 피부가 신기하다며 얼굴을 만지며 K-BEAUTY 제품에 대해 문의하는 직원들도 만났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웃기기도 하고, 연예인병이 이래서 생기겠다 싶습니다 ㅎㅎ. 외국인 자체에 호감을 가지는 인도인들이 순진해서 웃음이 난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느껴보지 못할 인도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병 세

장려상/베트남

처음,  
두 번째 인생,  
세 가지 언어**무엇이든  
처음이 어려운 법이다.**

무엇이든 처음이 어려운 법이다.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경계심 때문이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은 아니다. 내 기억으로 처음은 '신선함'과 '기대'였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처음이 망설여졌다. 오히려 '두려움'에 가까웠다. 겪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취업을 못 할 것 같은 두려움. 성공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 무엇보다 행복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 나에게 있어서 '처음'은 두려움이었다.

2019년 8월. 나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베트남 회사와 합작한 자동차회사에 입사한다. 같은 사무실에는 과장님 한 분과 차장님 두 분이 계신다. 함께 협력하는 베트남 매니저들과는 영어로 의사소통한다. 우리 밑에는 800여 명의 식구가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베트남어를 쓰고 일할 때는 영어를 쓴다. 하지만 보고할 때는 한국말을 써야 한다. 처음으로 회사에 입사했고 처음으로 외국 생활을 시작했다. 두 회사에 교두보가 되어야 한다. 세 개의 언어로 업무를 본다. 숫자는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처음'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이라는 것이다. 세상에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

**2018년 6월,  
나는 군에서 전역한다.**

2018년 6월, 나는 군에서 전역한다. 당시 유행하던 말이 있다. "문송합니다." 문과라서 죄송하다는 말이다. 나는 전형적인 문과형 사람이었다. 기계나 복잡한 식에 약하다. 게다가 군대를 늦게 가 28살에 전역했으니 나이도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 없었다. 졸업하고 간 군대는 생각보다 길게 느껴졌고 몸과 마음이 지쳤었다. 최악은 할 줄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내 전공은 영어영문학이다. 문제는 군대에서 말을 잘 안 한다는 것이다. 한국말로 제대로 쓰지 않으니 영어는 오죽했을까? 영어를 좀 한다 생각했는데 많이 무뎠었다. 이런 나에게 세상은 너무 가혹했다. 다시 사회로 나가 사회인이 돼야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었다.

그래서 간절했다. 나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평평거리며 살고 싶은 것도 아니다. 엄청난 행복을 원하지도 않았다.





### 마음만 분주했던 나에게 한 프로그램을 소개해준 형이 있다.



### 내가 지원할 프로그램은 K-move중 하나인 “GYBM”이었다.

그냥 내 인생에 나름의 의미가 있는 삶을 살고 싶었다.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원했다. 그런데 그런 삶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요구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다.

마음만 분주했던 나에게 한 프로그램을 소개해준 형이 있다. 그 프로그램은 바로 “K-Move” 처음에는 비웃었다. K-Move를 비웃은 게 아니다. 나 자신을 비웃은 것이다. 뭐 하나 제대로 해보지 못했으면서, 그리고 자기 인생도 두려워하는 놈이 무슨 외국에 나가 뭘 하겠다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기를 며칠. 나는 결정했다. 두려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두려움은 감정이다.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했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두렵다.

처음에는 해외취업을 알아봤다. 그런데 홀로 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맨땅에 헤딩하는 것은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나는 바로 취업하는 것보다는 ‘연수’를 하고 취업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다. 막연히 준비하지 않았다. 두려웠던 만큼 체계적으로 그리고 집요하게 준비했다. 아침 기상 시간, 알바 가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친구들과 만나는 계획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대비하려고 철저히 준비하고 싶었다. 사실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냥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다.

내가 지원할 프로그램은 K-Move스쿨 중 하나인 “GYBM”이었다. 기상 시간 5시 20분, 아침 운동 후 오전 자습, 오전 수업, 오후 수업, 이후 특강과 자습. 저녁 12시까지 이어지는 강행군. 나 역시 비슷하게 준비했다. 기상 4시 45분. 아침 운동, 아침 독서. 오전 영어 공부, 오후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는 주 3일 영어학원 강사였다. 목요일에는 스터디 모임을 진행했다. 같이 K-Move스쿨을 지원할 사람들을 모아서 정보를 공유했다.

2일은 엑셀과 컴퓨터를 배우러 학원에 갔다. 취침 시간은 11시를 넘지 않았다. 그렇게 생활패턴을 20주간 유지했다. 매주 하고자 하는 것을 주말 저녁에 정리했다. 그 다음 주에는 꼭 실행했다. 읽을 책도 미리 정했다. 해외에서 취업하기 때문에 진취적인 기업



가들의 책을 읽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김우중과의 대화>, <대우는 왜?> 등이 그것이다. 결국 내가 원하는 K-Move스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지옥에 등급이 있다면 가장 악랄한 지옥은 무간도라는 말이 있다. 이곳이 가장 악랄한 이유는 끝없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내가 참여한 프로그램은 끝이 있다. 그런데 연수중에는 그 끝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루틴에 조금의 변화도 없다. 때문에 착각한다. 끝이 없다고 말이다. 국내에서 7주, 해외에서 39주. 총 324일 7,776시간. 하루 6시간의 수업,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 4시간의 베트남어 mp3 청취, 38번의 주간시험. 279번의 단어시험, 279번의 듣기평가. 주말은 수업이 없기 때문에 14시간의 베트남어 청취. 아파서 병원에 누워 링거를 맞는 날에도 루틴을 지켰다.

첫 달은 괜찮았지만 두 번째 달은 지겨워졌다. 세 번째 달부터는 지옥이었다. 그래도 견딜만했다. 문제는 그 다음 달이었다. 네 번째 달부터는 가장 악랄한 시간이 펼쳐졌다. 나는 이 시간을 '무간도의 시간'이라 부른다. 그렇게 11개월, 나는 버텼다. 아니, 버텨야 했다.

2019년 6월 30일 연수 마지막 날, 수료식. 내가 찍힌 사진들이 중간중간 등장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이 기간 나는 많이 변했다. 대본 없이 베트남어로 12분 동안 100명의 사람 앞에서 발표했다. 길을 걷다가 모르는 베트남인과 말을 할 수 있게 됐다. 원어민이 일상 속도로 말하면 70~80%를 알아듣고 외국인인 것을 감안해서 말해주면 95% 정도 이해가 가능했다. 내가 본 면접에서 베트남 사람이 직접 들어와서 면접을 보았는데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막힘없이 대화를 이어 나갔다. 베트남어만이 아니다. 영어도 수준급으로 만들었다.

무간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신선함'으로 바뀌었다. 둘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서로 똑같은 상황이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준비가 된 사람에게 새로움은 '신선함'이다. 반대로 안 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다. 그리고 그 준비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지겨움이었다. K-Move스쿨 연수를 통해 보낸 7,776시간. 처음이었다. 처음으로 인생 두 번째 막을 열었다. 세 개의 언어를 구사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의 시작? 그것은 K-Move였다. 이 프로그램을 소개시켜준 정기우 형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감사합니다.

김 소 연

장려상 / 미국

Los Angeles  
중심의 문을  
두드리다!

###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

Sorry? 첫 해외여행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은 Sorry였다. 대화 중 이해를 하지 못했던 상황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대학교 1학년 유럽 여행을 계기로 세계 곳곳에 관심이 생겼다. 하지만 How are you?만 들어도 당황하던 나의 영어 실력에 부족함을 느끼고 회화 실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가만히 앉아서 하는 이론 공부보다 실전에 부딪히며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새로운 문화에 어울리는 것이 내 취향이자 즐거움이었다.

유창하지 못해도 친구들과 어울리고 대화를 하며 모르는 건 바로바로 물어보려 했다. 캄보디아에서 봉사자, 중국에서 유네스코 문화 보존 활동가, 인도네시아에선 6개월간 교환 학생으로서 차근차근 해외 경험을 쌓았다. 이렇게 해외 취업을 위해 언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하며 차근차근 준비했고 최종적으로 WEST 프로그램이란 기회를 잡아 미국으로 떠났다.

### 월드잡플러스와 함께 Los Angeles 중심의 문을 두드리다!

월드잡플러스에서 보던 외국에서의 인턴십은 남의 이야기일 것만 같았다. 그런데 이젠 내가 그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게 되었다. 면접 날, 마치 미국 드라마,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된 것처럼 우거진 빌딩 숲 사이로 구두를 신고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한 손에는 이력서를 들고 회사로 향했다. 면접을 본 회사이자 내가 인턴을 하게 될 곳인 Jonathan Club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프라이빗 사교 클럽이다.

Los Angeles의 중심인 Downtown LA 중에서도 회사들이 밀집된 7th Street 역에 있었기에 항상 직장인들로 붐비는 곳이었다. 그 직장인들 사이를 가로질러 회사로 향했고 면접은 편안하지만, 긴장감이 흐른 채 진행되었다.

프런트 데스크 직무와 관련된 경험담을 이야기하되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 목소리, 아이 콘택트 하나하나 신경 썼다.

그리고 일주일 뒤 Offer Letter를 받았다. WEST 프로그램과 함께하지 않고 혼자 미국에 왔더라면 인턴의 문을 두드리는 것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며 재정적인 문제를 직면했을지도 모른다.



## 프런트 데스크의 자질

프런트 데스크로서 하루는 인수인계를 시작으로 체크인, 체크아웃, 예약 진행/취소/변경을 위한 전화, 이메일 업무, 메일 관리, CCTV 확인 등 직책은 인턴이지만 업무량은 정직원과 다름이 없었다. 그만큼 내 직무에 대해 책임감이 컸으며 애착도 있었다.

나에게 Small Talk는 업무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였다. 시계가 참 멋있네요! 셔츠가 너무 예뻐요! 오시는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등 아는 사이든지 처음 본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해당했다. 한국에선 Small Talk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아 처음엔 대단히 어색했다. 하지만 현지에 녹아들기 위해, 한마디라도 더 내뱉기 위해 어색함을 금방 떨쳐버렸다.



Good morning  
Mrs. Lane,  
Good afternoon  
Mr. Partamian!

앞서 언급했듯이 나의 직장인 Jonathan Club은 멤버들에게 다양한 편의 공간을 제공하는 사교 클럽이다. 회사의 슬로건은 'Welcome Home'이다. 비록 집은 아니지만, 집에 온 듯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나도 이 슬로건에 따라 멤버들에게 집과 같은 느낌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클럽을 자주 찾아오시는 멤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그 분들의 특징을 바탕으로 기억하고 먼저 이름을 불러드렸다.

회사 사이트에 직원으로 접속하면 멤버들의 멤버 번호, 이름, 사진, 전화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메모장에 아침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 특정 객실을 선호하시는 분, 장기 투숙객이신 분들 등과 같은 설명과 함께 멤버 이름, 멤버 번호를 적어두었다.

## 질문, 질문, 그리고 또 질문

직원 동료들에게 적극적으로 물으며 한 분, 한 분 기억해나갔다. 결과적으로 이름과 멤버 번호를 일일이 알려주지 않아도 되게끔 번거로움을 덜어드렸고, 그들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하여 편안함을 제공해주었다.

객실부서 매니저 Nadia는 매사에 꼼꼼한 편이었다. 나도 그에 따라 작은 일 하나하나 허투루 할 수 없었고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다. 데스크에서 찾아오시는 고객, 이메일 및 전화 응대를 동시에 처리한 적 있었다. 하지만 3가지의 예약을 동시에 처리하다 보니 한 고객에게 숙박 가격이 잘못 표기된 상태로 예약확인 이메일을 보냈다.

그리고 한 달 뒤, 체크인 당일날 금액 표기 오류를 알아챘고 고객은 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의 숙박료를 지불했다. Nadia는 “누구나 실수는 하지만 다음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 줬으면 좋겠어요”라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 실수를 계기로 모든 예약과 업무는 두 번 확인, 세 번 확인하고, 고객 응대 시 어려움이 없도록 모르는 것이 있으면 동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며 묻고 또 물었다. 마지막엔 간간하던 Nadia가 “Soyeon! You're amazing!”이라며 포옹을 해주었다.







## 80%의 행복과 20%의 위기

한국이 가진 매력과 또 다른 매력을 가진 곳에서 살아보는 건 설레고도 가슴이 떨리는 일이다. 해외 생활의 가장 큰 장점은 현재 나의 삶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 걱정, 남들의 시선 등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또한, 고개를 돌리면 어디서든 보이던 할리우드 사인, 영화에 나왔던 Hermosa 해변에서 태닝을 하며 책을 읽고, 유명한 맛집은 몇 블록만 걸어가면 맛볼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겐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고 내가 용기를 냈으로써 얻은 값진 경험이자 추억이다.

시작도 해보지 않고 걱정만 늘어놓거나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일단 도전해봐!”, “일단 해보는 거야!”라며 용기를 주고 싶다. 80%의 행복과 20%의 위기가 있다면 20%의 위기가 두려워 80%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니 말이다. ‘이번엔 어디로 가보지?’, ‘또 나가고 싶다’ 해외 취업, 연수, 봉사 등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대부분 다들 앞과 같은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 내려가지 않는 나의 뜻

나 또한 그 생각을 한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때,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미국으로 갈 수 있었고 8개월 간 인턴으로서의 삶을 보내고 왔다. 개인적으로 해외 취업을 꿈꾸었다면 미국 땅을 밟는 데 긴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른다.

내가 참여한 WEST Program이 외에도 다양한 기회들이 많이 있으니 월드잡플러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외 취업을 꿈꾸는 누구나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

나 또한 미국에 만족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뜻을 활짝 펴고 더 넓은 세계를 향해 항해를 떠날 것이다!



조 지 혜

장려상  
싱가포르생각의 지평을  
넓혀준  
싱가포르 해외취업

### 처음 싱가포르 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기억에 난다.

처음 싱가포르 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기억난다. 비행기 수하물 허용 기준을 간신히 넘지 않을 정도로, 이민 가방에 그동안 쓰던 짐을 가득 채워서 싱가포르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의 신분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관광객이었다.

인터넷으로 한 달 치 예약해둔 임시숙소, 최대 3개월까지 버틸 정도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무작정 입국해서는, 앞으로 싱가포르에서 직업을 찾겠다는 나의 심정이란 우리 부모님 세대가 황금빛 미래를 꿈꾸며 미국에 이민을 가던 때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싱가포르에 입국하기 전 한국에서의 나의 삶은 우울하기 짝이 없었다.

일본에서 4년제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한 후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일본어만 능통하면 되겠지 하는 안일함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좀처럼 취업이 되지 않아서 긴긴 취준생의 나날을 보냈다.

일본계 제조기업인 미쓰비시전기의 한국지사에게 채용되었지만, 이 역시나 육아휴직에 들어간 사원을 대체하는 9개월짜리 영업 관리 계약직이었다. 계약직으로 비록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가면서 앞으로 어떤 인생을 걸어갈지 좋을지 고민하는 나날이었다. 일본어라는 무기 하나만을 가지고 국내 시장을 도전하기에는, 이미 국내에 일본어 구사자가 많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어 보였다.

오랜 조사 끝에 동남아시아에는 일본계 자본이 긴 역사를 가지고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일본어 구사자가 구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그중에서도 태국 혹은 싱가포르로 마음이 좁혀졌다. 10대 시절에 다녔던 학교의 현장 체험학습의 프로그램으로 2007년에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미얀마 난민을 위한 난민캠프를 다녀왔던 것도 하나의 큰 계기여서, 줄곧 동남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기여하고 싶다는 꿈도 간직하고 있던 차였다.

태국 그리고 싱가포르, 어느 쪽이라도 무척 매력 있는 나라라서 결정하는데 고민을 많이 했다. 태국은 물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의 월급을 가지고도 풍족한 생활이 가능할 것 같았고,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물가가 높기로 손에 꼽히는 나라인 만큼 사회 초년생의 월급으로는 생활하기가 무척 힘들 것 같지만, 영어가 공용어인 점, 동남아시아의 헤드쿼터가 많이 몰려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고생한 만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았다.







결과적으로는 싱가포르를 선택했는데 시간이 흘러 지금 되돌아서 생각해보면 잘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에 도착한 후에는 싱가포르와 국경을 맞닿고 있는 말레이시아 조호바루로 버스 이동을 했다.

싱가포르에서 룸 셰어를 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못 해도 80만 원을 줘야 하는 것에 비해서, 말레이시아는 반값인 30만 원만 있으면 충분했기 때문에 무직인 기간에 생활비 절약을 위해서 말레이시아에 체류하면서 면접이 잡힐 때만 싱가포르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에서 생활하면서 구직활동을 할 때는 싱가포르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구인 업체인 Indeed, Monster, JobsDB와 같은 포털 사이트를 활용하는 한편, 싱가포르에 진출해있는 주요 일본계 헤드헌팅 업체를 방문했다.

또한 해외 구인구직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LinkedIn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단순히 직업을 찾기 위한 수단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에 있는 같은 학교 선배들을 찾아볼 수도 있었다. 비단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도 활용을 권유하고 싶다.

콜드콜을 하는 게 속스럽게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의외로 여러 선배들이 반가워하기도 걱정하기도 하면서 현지의 취업 사정은 어떠한지에 대한 조언과 함께 대신 면접관이 되어서 면접을 코칭해 주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현지에 와서 면접에 도전한 지 딱 2개월 만에 잡 오퍼를 받게 되었는데, 한국에서도 일했던 미쓰비시전기의 싱가포르 지사였다. 계약직이었지만 같은 미쓰비시전기 그룹에서 일했던 경험이 면접관에게 흥미를 느끼게 한 요인이었으며, 말레이시아인, 싱가포르인만 접해오던 면접관에게 한국인 지원자라는 것도 하나의 플러스가 된 부분이었다. 해외에 살다 보면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가 많다.

특히 동남아시아에 일하면서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겪는 긍정적인 경험들이 많았다. 경험상 싱가포르에 나와 있는 일본인 주재원의 경우 아시아 지역 세일즈를 주로 담당해서, 과거 한국을 담당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나의 면접관이었던 일본인 상사도 그러했는데, 한국 시장을 담당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일화를 소개해 주었다. 한국인 고객이 방문해서 미팅을 가졌는데, 불리한 쪽으로 미팅이 진행되자 한국인 고객이 갑자기 종이를 꺼내더니 무언가를 열심히 적었다고 한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고 묻자, 이대로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상사를 볼 면목이 없으니 지금 사직서를 작성하는 중이라는 답변을 해왔고, 한국인의 기개와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나 혼자 잘나서 일이 구해진 것이 아니라 다른 한국분들이 잘 해주신 덕분에 잘 풀렸던 것으로, 같은 한국 출신으로서 내가 앞으로 사회에 갇아야 할 빛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왜 제조업이라는 분야를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본다면,

일본계 기업의 아세안 헤드쿼터에서는 총1년 6개월을 근무했는데 동남아지역의 헤드쿼터로써 일본 본사와 태국의 공장을 잇는 해외 영업 담당자로서 브릿지 역할을 하게 나의 주된 업무였다. 처음 꿈꾸었던 것처럼 태국과도 연관 있는 업무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왜 제조업이라는 분야를 선택했는지 누군가 물어본다면, 한국은 제조업이 중심이 된 선진국으로서 자연스럽게 제조업에 대한 흥미가 생긴 것과 세계의 제조업체들이 더 싸게 물건들을 생산하는 나라를 찾아서 중국을 벗어나 베트남, 인도로 생산 거점을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동남아시아의 성장 가능성을 봤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십 년 내에 세계의 생산거점의 40%는 아시아 지역으로 옮겨온다고 한다. 같은 팀의 동료는 주로 중국계 싱가포르인, 말레이시아인으로 다민족의 나라답게 업무 때 쓰는 일본어 외에도 사내 공식 언어인 영어, 말레이어, 중국어, 여러 가지 언어를 일상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

혹자는 싱가포르인이 쓰는 영어는 중국어 악센트가 묻어나기 때문에 브로큰 잉글리쉬라고 격하하지만 다민족인 싱가포르라는 나라의 특성이 드러나는 부분이자 매력이 아닐까 생각한다. 업무를 하면서 영어 실력도 많이 늘었다.

혹자는 영어 공부를 하러 영어권 국가인 호주나 캐나다 등지로 워킹홀리데이를 많이 떠나곤 하는데 다녀온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장일, 캐서 잡을 전전하느라고 생각보다 영어가 늘지 않았다는 코멘트를 접하게 된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지점은 다를 수 있겠지만 영어가 공식 언어인 아시아 국가 취업도 선택의 범주에 넣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이들 나라는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지 않더라도 오피스 잡을 구할 수 있는데, 한국 시장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영어 실력을 늘려갈 수 있다. 또한 오피스에서 배운 비즈니스 영어는 추후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이러한 싱가포르 지역거점에서의 경험을 거쳐 현재는 일본

### 이번에도 말레이시아를 필두로 한 동남아시아 담당이다.

본사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목표가 생겨서, 또 다른 제조업체 타카하타프레스전의 본사에서 해외 영업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번에도 말레이시아를 필두로 한 동남아시아 담당이다. 글을 읽는 분에게 오해가 있지 않도록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게 있다면 관광비자로 무턱대고 다른 나라로 가서 도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한국에서 잡 오퍼를 받아서 가기를 권유하고 싶으며, 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최하는 해외취업 성공자 강연회에서 희망을 얻을 수 있었고,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같은 청년 구직자와 교류할 수 있는 이벤트 등도 유용했다.

끝으로 당장 목표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노력하면 결국 꿈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해외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가진 분 모두를 응원하고 싶다.



오 승 희

장려상  
아랍에미리트조금 늦어도 괜찮아,  
칠전팔기  
승무원 합격 수기

## 저는 어려서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에티하드항공에서 항공 객실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오승희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부터 가지게 된 승무원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 온 시간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저와 같이 승무원이 되고자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글을 작성하려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인들을 도와 사소한 뿌듯함을 느끼는 것에서 행복감을 찾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시던 저의 고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NO라고 말하지 않는 서비스'라는 책을 선물해 주시면서, 호텔리어나 승무원이 참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조언을 저에게 해 주셨던 것이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과 주변인들에게 들은 저의 강점이 승무원이라는 직무에 적합할 것 같다고 판단했고, 관광 관련 학과를 입학할 꿈꾸며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이후 청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에 입학하여 감사하게도 필리핀, 미국과 영국으로 교환 학생 및 인턴십을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발붙여 살고 있는 지구의 반대쪽에서 저와는 다른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것이 참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총 1년 5개월의 해외 경험을 쌓아 한국에 돌아왔고, 대학교 졸업 후 1년이라는 시간은 전화 화상영어 강사로 활동하며 다수 항공사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주중 3일은 낮에 서울에 올라가 면접 준비를 하고, 서비스 경력을 쌓기 위해 외식업에서 파트 타이머로도 일을 병행하며 주말 없이 6개월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하반기에 중동 항공사 최종면접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치열을 중시하는 중동 항공사였던지라, 최종면접 후 치열을 고정할 의향을 묻는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 치열이 고르다는 말을 자주 들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꿈에 그리던 직업이기에 교정을 받고 또 긴 기다림의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치는 상황에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잠깐, 꼭 이루고 싶은 꿈이었기에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왔습니다.



## 2018년, 저는 중국계 항공사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저는 중국계 항공사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가량 비자를 기다리다가 회사 재정 사정에 의해 채용이 취소되어 또 다른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털고 일어나 다시 노력하기를 한 달, 가뭄의 단비 내리듯 에티하드항공의 서울 채용이 시작되었습니다. 2년 동안의 끊임없는 노력과 꿈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이 에티하드항공의 객실 승무원 면접에서 빛을 발하길 바라며 지원하였고, 서류전형에 합격해 에티하드 1차 면접에 가게 되었습니다.

### 2019년 3월 21일

1차 면접(Pre-selection)은 10,000명의 서류심사에서 발탁된 1,000명의 지원자가 참가했습니다. 첫 전형은 까치발을 들고 정해진 높이까지 손이 닿아야 하는 전형(암리치), 두 번째는 이력서를 건네며 간단한 질문에 답하는 씨비드랍(CV drop)을 하며 문장을 뽑아 정해진 시간 동안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센텐스 슈팅(Sentence-shooting)이었고, 마지막 전형은 영어 기내방송문 읽기였습니다.

1차가 끝나고 며칠 뒤에 다음 본사 면접으로 오라는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 3월 25일

1차 면접(Pre-selection)에서 선택받은 125명의 지원자들이 르메디앙 호텔에 모였습니다. 첫 전형은 영어 필기시험과 랜덤으로 뽑힌 주제 3개 중 하나를 골라 1분 동안 영어 스피치를 하는 버벌 테스트(Verbal Test)였습니다. 사람마다 전형의 순서가 달라, 저는 버벌 테스트를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장에 들어서자마자 면접관 성함을 부르며 밝게 인사했고, 이력서를 받은 면접관은 What did you study in university? 등 기본적인 이력서 질문들을 물어보았습니다.

이후, 사진 3개(Music/Oasis/Holiday)를 테이블 위에 주시면서 하나를 고르고, 모래시계를 돌려 1분 스피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Holiday를 골라서 영국에서 살았던 경험을 토대로 느낀 점과 배운 점 등을 덧붙여 꾸밈없이 면접관에게 제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영어 필기시험은 간혹 헷갈릴 수 있는 문제들도 있었지만, 첫 전형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전형은 그룹면접이었습니다. 첫 번째 테스크는 6명이 한 팀을 이루어 10분 동안 병원, 학교, 주유소 등등의 사진 중 15개의 시설을 골라 지도에 올려서 새로운 마을 만드는 토론 면접이었습니다. 두 번째 테스크는 세워놓은 시설 15개 중 3가지를 빼고 공항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37명 중 25명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저를 포함한 9명의 지원자들은 그날 바로 파이널을 요청해서 봤고, 다른 16명은 다음 날 오전에 최종면접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 최종면접

최종면접은 30분 동안 진행되었고, 질문들로 학교, 직장, 해외 경험 등으로 카테고리를 나눈 이력서 기반 대략 20개를 받았습니다. 저의 있는 그대로의 성격을 이끌어내 주는 면접관과 대화식으로 진행되는 면접이라 편하고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길고 긴 면접을 모두 마쳤습니다.

저는 지금 아부다비 공항 근처에서 살면서 6주간의 트레이닝 후 열심히 비행하고 있습니다. 승무원 준비 2년 하는 동안, 일상천리로 저의 꿈을 이룬 것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서 소중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밤을 꼬박 세고 밤 비행을 해도 승객분들을 만나 뵙고 다양한 나라에서 온 동료 승무원들과 일하는 것이 즐거워 현재 생활에 정말 만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좌절되는 일을 겪다 보니, 누구보다 강해진 정신력으로 여기까지 버텨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취업 준비생 분들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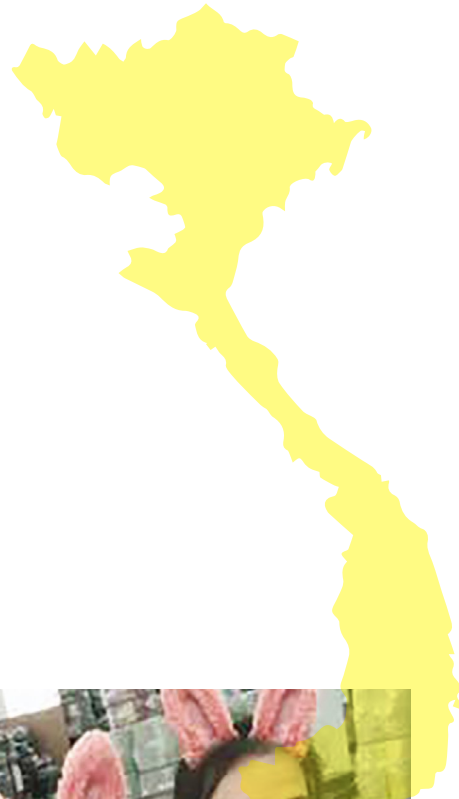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취업 준비생분들께, 그리고 승무원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께 조금만 더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끊임없는 노력이 수반된다면 꿈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끝으로 무엇보다도, 저 자신에게 정말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 선 하

장려상/베트남

Vietnam  
cái gì?

제목처럼 처음 베트남에 와서 *xinh chào* (안녕하세요), *cảm ơn*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배운 말이 바로 *cái gì* (무엇) 이다. 평소 호기심이 많은 나에게 베트남이란 온통 궁금한 것 신기한 것들로 가득했다. 지금도 여전히 업무를 하면서 직원들에게 “*cái gì?*” 라고 물어보며 하나씩 배워가는 하루를 보내고 있다.

## 왜 베트남 인가?

전공인 국제통상과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와 주변 국가들의 교역 관계 그리고 정치, 문화에 대해 아는 것이었다. 대학교 4학년 수업 중 아세안 국가 중 한 국가의 경제 및 무역에 대해 발표를 하는 조별 과제가 있었다.

1년 휴학을 하고 태국으로 봉사를 가면서 주변 국가들을 여행하던 중 베트남에서 본 우리 기업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다. 우리나라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지의 기업처럼 하나의 기업이 다양한 사업 분야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게 남아 베트남을 선택하여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자료 조사 등 베트남의 경제 성장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업에서 발표를 하고 난 후 교수님께서 많은 피드백을 해주셨고 조사를 하고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베트남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중 문화 공부를 하면서 우리나라와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같은 동남아시아권 나라로 유교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친절하고 정이 많은 민족이라는 사실은 내가 베트남에서 취업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

## 내 인생의 웨빙

현재 경제도시인 베트남 호치민에서 일을 하고 있다. K-Move스쿨 프로그램을 통해 호치민으로 오게 되었고, 평소 활발한 성격과 협상 과목을 좋아했던 나는 영업 관리 직종을 선택하였다. 그 중 가방끈(웨빙)을 만드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가방회사만 있는 줄 알았던 나는 동그랗게 룰에 감겨있는 웨빙을 보면서 왠지 모를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처음 입사하여 웨빙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알기만 하는 그런 단순한 가방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제직 공정과 염색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웨



빙은 무수히 많은 종류였고 사용되는 원사(실)와 제직 방법에 따라 또 많은 종류로 나뉘었다. 제직기에서 만들어지는 생지(염색하기 전 웨빙)를 보면서 궁금한 점을 여쭙고 메모하기 바빴고, 뜨거운 스팀이 나오는 염색 기계를 보며 다양한 염료(염색 원료)를 통해 다양한 색이 염색되는 것을 보았다. 염색 실험실에서 물, 햇빛 결례도 측정을 하면서 거래처에 납품이 가능한 웨빙 샘플을 검사하기도 하였다.

그렇게 웨빙에 대해 기본 공부를 하고 현재는 각 거래처와 바이어들을 파악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주된 품목들을 공부하고 있다. 하루 일과는 출하로 시작한다. 각 거래처로 보내야 할 물건들의 바이어, 사이즈, 색상 등을 검사하여 정확한 웨빙을 출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반품이 들어오는 품목들을 정리하여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언제 다시 재출하를 할 수 있는지를 직원들과 상의하여 확인한다. 오후 업무는 주로 오더 관리와 미출하 상품들을 언제 생산하여 출하가 가능한지 계획을 세운다. 바이어들과 이메일로 교신을 하며 샘플을 보내기도 하고 요구하는 웨빙을 생산할 수 있는지 미팅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업무를 끝내기 전 하루 판매현황을 정리하고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면 나의 길고 긴 하루가 지나간다.

## 신입인 나는 관리인이다.

제목처럼 현재 나는 신입인 동시에 베트남 직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인이다. 국내에서 직장생활을 해보지 않은 나는 처음 베트남에서 일을 하면서 생각지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한국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신입으로 업무를 배우고 보조하는 것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의 한국 회사들은 주요 업무를 베트남 직원들이 수행하고 그 업무를 재확인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나는 입사 초 많은 것들을 책임져야 했고 수없이 확인하고 한 업무가 끝날 때까지 신경을 쓰고 있어야 했다.

아직 제품에 대해 정확히 알지도 못했고 나보다 나이가 많고 경력이 많은 베트남 직원들을 관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실제로 면접을 볼 때도 이러한 상황이 닥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을 받았었다. 나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의 위치가 높다고 하여 함부로 직원들을 대하지 않겠다며 대답을 하였고 경력이 많은 직

## 해외 취업이 꼭 정답은 아니다.

원들에게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모르는 것은 배우며 일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의 장점인 꼼꼼함을 발휘하여 직원들이 놓치는 부분들을 챙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대답을 하였다. 막상 대답은 그렇게 하였지만 만일 내가 물어보았을 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나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어찌지 하는 걱정도 있었다.

하지만 직원들은 내가 물어보는 것들을 친절하게 알려주었고 배우고자 하는 나를 기특하게 생각하여 더 많은 것들을 알려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결국 신입도 관리인도 일도 사람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에 내가 대우받고자 하는 대로 그들을 대우하면 해외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는 것도 힘들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현재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해외 취업이 꼭 정답은 아니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막연히 해외에서 일을 한다는 동경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해외 취업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그곳에 정착하여 문화와 환경, 사람들을 이해하고 적응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떨어져 타지에서 생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타지에서 있으면 제일 외로운 순간은 아플 때이다. 한국처럼 내가 어디가 아프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그리고 설명하기가 힘들다는 점이 힘든 순간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다. 70~80년대 한국처럼 주 6일 업무를 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처음 베트남에 온 것을 후회하는 날들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기에 남은 인생을 해외에서 일을 하며 다양한 경험들을 쌓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다.

만약 해외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단순히 1, 2년 경험을 쌓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정착하여 한 분야에 그리고 그 지역에 전문가가 되어 이름을 떨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에서 일을 하는 것은 굉장한 행운이자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 그 기회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성장하여 다음 단계를 바라보는 큰 그림을 그리고 베트남 그리고 다른 국가로 해외 취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염동렬

장려상 / 인도

아버지의  
뉴델리

저는  
군에서 30여년을  
근무한 뒤  
제대를 하였습니다.

성실히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하신 아버지께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겨준 인도 취업을 소개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불안해하고 막연한 미래에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자신 있게 해외로 도전을 고려해 보시라고 감히 권하면서 아버지의 사선에서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군에서 30여 년을 근무한 뒤 제대를 하였습니다. 초임 장교 시절부터 영어에 관심과 흥미가 많아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였고 기상학에도 관심이 많아 관련 석사 학위도 취득하였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쌓을 수 있었던 이런 역량들이 튼튼한 바탕이 되어 지금은 인도라는 미지의 대륙에서 새로운 꿈을 펼치며 살고 있습니다.

제대를 앞둔 시점에는 상당히 불안하고 막막하였습니다. 50대 중반이 되어 사회에 나가면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 사회가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까? 청년 취업난이 심하하는데 내가 설 자리는 있을까? 등등의 걱정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같이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시간은 흘러 제대를 하였고 제대 후 하릴없이 하루하루를 무미건조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배로부터 반가운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인도에서 기상 장비 설치와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한창인데 영어 회화에 능통하고 기상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가 봐. 너는 영어도 잘하고 기상 전문가니까 네게 분명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이번에 인도 쪽 바이어랑 한국 업체가 미팅이 있다는데 거기서 널 소개해 줄게.”

선배의 말을 듣고 나니 제대 후 잠잠했던 저의 삶에 훈풍이 살짝 불어온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저의 커리어를 이어갈 파스한 바람 말입니다.

저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저의 전문 분야를 살릴 수 있는 곳! 비록 국내는 아니지만, 해외에서 외화도 벌고 국위선양도 할 수 있는 기회! 이런 인도로부터 희망 바람이 불어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렘도 잠시 두려움도 몰려왔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저에게 인도는 정말 미지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렘과 두려움을 반반씩 지니고 장고의 시간 끝에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과감히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저의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 있는 아들은 이미 취업에 성공해 걱정이 없었고 아내만 승낙하면 일사천리로 인도로의 취업이 진행될 것 같았습니다.

아내에게 차분히 상황들을 설명한 뒤 다행히 허락을 받고 미팅 자리에 나갔습니다. 미팅 참석 전 저는 저의 경력과 프로필을 정성껏 포트폴리오 해서 준비해 나갔고 인도의 기상 인프라와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 현황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공부하여 준비해 갔습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한 영어 프레젠테이션과 내용들이 다행히 바이어 마음에 들었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인도의 뉴델리에서 일을 같이 해보자는 제안도 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기회를 허투루 날리기 싫어 인도 출국 전까지 매일 영어 회화를 공부하고 인도에 대해서 최대한 사전지식들을 섭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부푼 마음을 안고 인도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드디어 출국 날이 되었고 부푼 마음을 안고 인도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인도에 대해 어느 정도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입국심사부터 당황스러웠습니다. IT 강국이고 수학을 잘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입국심사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지문 인식기기에 문제가 있었는지 입국심사장에서만 무려 2시간을 서서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신고식을 마친 뒤 공항 문을 나서자 짙은 스모크가 저를 또 반겨 주었습니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는 공기의 질이 좋지 않기로 유명했는데 실제로 접하니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심각했습니다.

또한 인도의 물은 한국의 물과 달랐습니다. 제가 묵는 한국인 게스트 하우스에서는 일반적인 수도물로 씻을 수 없어서 늘 양수기에 물을 정화시켜 씻었고 식수도 아무 물이나 마실 수 없어 대형마트의 생수를 사다가 마셨습니다. 물에 석회질이 많고 수자원이 많이 오염되어 한국인들이 바로 사용하기에는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물과 공기만 어려움을 주었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살기 위해 필요한 식문화도 저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인도사람들의 생활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어 한국인이 좋아하는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먹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도인들에게 돼지는 불결하고 소는 숭배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이런 사유로 인도인들은 주로 닭과 양을 많이 먹었고 제가 한국에서 즐겨 먹던 삼겹살을 먹으려면 냉동으로 공수해와 겨우 먹는 실정이었습니다.

###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점은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이렇게 반백 살이 넘어 해외에서 적응하며 생활하는 일은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점은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취업 초기에는 현지인 동료들과 서먹하여 하루 종일 대화하는 상대가 게스트하우스 사장님과 제 운전기사 둘 뿐인 정도로 외로웠습니다. 운전기사를 고용한 이유는 인도의 도로 환경이 한국과 크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차선이 또렷하게 그어지고 운행되는데 인도에서는 차선이 없는 경우도 많았고 도로 위에 염소, 소, 경운기, 개, 오토바이, 자동차 등 정말 다양한 개체들이 지나가는 상황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사유로 한국인들은 인도에서 직접 운전하기가 어려워 워 대부분 인도인 운전기사를 고용해 출퇴근과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와 같이 다니게 된 운전기사의 이름은 Sunny였는데 딸 둘이 있는 가장이었고 성격은 매우 쾌활하고 명랑했습니다. Sunny는 처음에 영어를 거의 구사하지 못했지만 제가 꾸준히 소통하며 영어를 가르쳐주자 일을 시작한 지 2달 정도 지나고 나서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후 여러 가지 진솔한 대화들을 통해 마음을 터놓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Sunny와의 대화를 통해 타국 생활에서 외로움의 일부분을 그나마 덜어낼 수 있었고 인도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Sunny와의 대화를 통해 인도인들은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크다는 점과 가족 간의 관계, 가족 행사를 매우 중시한다는 것 등을 알게 되어 회사에서 인도인 동료들과 소통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화를 통해 인도인들이 동아시아인들 중 특히 한국인에 대해 굉장히 생소해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은 동아시아권인 일본은 경제 대국으로 인지하고 있고 중국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라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르는 인도인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제가 평소 뉴델리 거리를 지나가기만 해도 주변 인도인들이 힐끔힐끔 잘 쳐다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Sunny와의 대화를 통해 이유를 알게 되었고 직장 동료들 또한 저를 생소해했겠구나 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책과 인터넷 검색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고 몸으로 직접 부딪치고 겪어서 얻는 정보가 더욱 소중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현지인 동료들에게 보다 제가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가겠다고 다짐도 했습니다. 처음에 저를 어색해했던 동료들도 제가 먼저 다가가 반갑게 인사하고 한국에

대해서 소개도 하며 소통하려 하자 점점 저를 회사의 일원으로 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점심식사를 한인 식당이나 게스트하우스에서만 해결하려 했었는데 현지인 동료들과 인도 현지식 식사를 자주 같이 하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이런 저의 노력들이 통했는지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밀해졌고 이역만리 떨어진 외국인에도 생일과 생일 케이크를 동료들이 직접 챙겨주었습니다. 이렇게 직장에서 서서히 자리를 잡고 뉴델리에서의 생활에 차츰 적응하다 보니 자신감도 생겨 업무에도 보다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상 인프라 구축 수주와 설치, 보수 및 정비 업무에서도 회사 구성원들과 함께 뚝뚝 뭉쳐 헤쳐나갈 수 있었고 군에서의 경험과 준비한 역량들, 동료들의 전폭적인 믿음과 지원으로 회사의 성장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 망설이는 분이 계신다면 과감히 도전해보시라고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영어에 대한 역량을 키우고 본인만의 분야에 관심을 가지며 전문인이 된다면 분명 해외에서도 한국인은 큰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 믿습니다. 망설이는 분이 계신다면 과감히 도전해보시라고 감히 조언 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서 윤 석

장려상/베트남

베트남에서  
“서윤석”이란 꽃을 피우다

### 내가 대학 졸업을 앞 둔 것은 3년 전.

2016년 4월, 캐나다에서 6개월 어학연수를 마치고 4학년 2학기를 준비하면서 마치, 군대에서 막 전역하고 복학을 준비하는 복학생 마냥 모든 일에 대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뉴스나 주변에서 들려오던 청년 취업난도 나를 피해갈 것만 같았습니다.

또한 캐나다 어학연수 경험을 살려 해외취업에 대한 준비를 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국내 취업으로 전향해야만 했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취업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제학과를 졸업한 나는 총무, 인사 분야로 직무를 정하고 약 50여 개가 넘는 기업에 입사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모두 불합격 통보였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이 극도로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한 마지막 회사에서 서류 통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1, 2차 면접과 합숙, PT면 접을 거쳐 마침내,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총무 직무에 지원했지만, 프랜차이즈 기업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운영관리 직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에 별문제 없이 1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원래 지원했던 총무부 직무 이동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앞으로 인생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의 커리어에 대해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 남아 계속 일하게 된다면 남들처럼 살 수는 있지만, 남들과 다르게 살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2018년 5월 31일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했었던 해외 취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 나는 박항서의 열풍과 함께,

나는 박항서 열풍과 함께 제2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주목받기 시작한 베트남 취업을 목표로 준비했습니다. 그렇다고 베트남어를 할 줄 알거나, 베트남에 친척이나 지인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취업 준비 시절인 2016년부터 신흥국가로 부상하며 경제 뉴스에서 많은 기사를 접하게 되면서 친숙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막막하기만 했던 해외 취업 준비는 월드잡플러스를 통해서 정보를 알아보면서 베트남이라는 새로운 나라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취업을 하기 보다는 연수 프로그램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정보를 알아보던 중 K-Move 스쿨 베트남 사업 공고 몇 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베트남 관련 공고에 모두 지원하였고, 국방전직교육원에서 주관하는 베트남 생산 관리자 양성 프로그램에 합격하여 2018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국내에서 6개월 베트남 호치민에서 4개월 베트남어, 영어, 직무 등 다양한 교육 예정이었습니다.

교육 당시에는 빨리 베트남에서 취업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접해보는 베트남어는 6개의 성조가 있었으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국내 교육 생활에 익숙해질 때쯤 국내 교육을 마치고 베트남에서 4개월 간의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해서 내가 공부했던 발음과는 전혀 다른 발음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무척 당황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하노이 출신 선생님께서 북부 발음으로 수업을 들었는데, 호치민은 베트남 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부 발음을 사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가 그렇듯이 베트남 역시 사람 사는 곳. 시간이 지나고 주변 베트남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10%도 이해 못 했던 베트남어를 지금은 40 - 50%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혹시 베트남에 취업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제 수기를 읽으신다면,

혹시 베트남에 취업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제 수기를 읽으신다면, 그저 베트남에서 오랜 기간 생활을 한다고 베트남어가 느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0개월간 하루 평균 5시간씩 베트남 선생님과 베트남어 수업을 했고, 베트남어 책도 2권정도 끝냈습니다. 그런데, 처음 베트남에 왔을 땐 10%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혹시 베트남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려면 먼저 베트남을 경험한 사람으로 말씀드리자면 베트남어는 공부보다도 베트남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보고 듣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문법, 단어, 문장 정도는 공부하고 암기하셔야 합니다.

### 다시 저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다시 저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베트남 현지 교육 2개월이 끝나갈 즈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한국 기업의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베트남에서의 면접인 만큼 부담도 크고 긴장도 많이 되었습니다.

당시 해외 영업 담당을 뽑는 면접이었고, 같이 교육받는 동기 1명도 면접을 보았습니다. 서로 누가 합격해도 괜찮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내심 둘 다 같은 회사에 입사해서 서로 의지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내고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면접 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교육생을 관리해주는 실장님으로부터 면접 결과가 나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 두 가지가 있다며 말문을 여셨습니다. 동기와 저는 긴장한 상태로 좋은 뉴스부터 듣겠다고 했습니다. 좋은 뉴스는 바로 우리의 바람대로 두 명 모두 면접 본 기업에서 채용하겠다고 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부둥켜안았습니다. 안 좋은 뉴스는 해외 영업 1명, 법인 관리부 1명으로 나뉘는 것이었습니다. 속으로 저는 '직무가 무슨 상관이라, 취업을 목표로 먼 타국까지 와서 취업에 성공했으면 됐습니다.'라고 생각하며 괜찮다고 이야기했고, 5월 2일부터 동기와 함께 회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면접 당시 이야기했던 수습 3개월의 기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나름 업무에 적응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모르는 것이 많고 실수투성이지만, 베트남이라는 생소한 나라에서 베트남 사람들과 일하고 있는 지금의 제가 저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참 대견하기도 하고 신 기합니다.

그저 꿈이라고 생각했던, 상상으로만 꿈꿔왔던 해외 취업에 성공하여 하나둘씩 저만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험난한 일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베트남 직원들과 한국 관리자 선배님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깨우칠 수 있다는 사실에 조금은 안심이 되기도 하지만, 역시 약간의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의 인생의 주인은 저 자신이니 한번 부딪혀 보려고 합니다.

### 혹시, 해외 취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저의 글을 읽고 계신다면

혹시 해외 취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저의 글을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도전은 그 자체만으로 아름답고 자신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양분이 될 것이며 실패는 당시에는 아프고 힘들겠지만,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저는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 말을 제 스스로에게 해주면서 담금질을 했습니다. 분명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외 취업에 도전하고 싶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은 월드잡플러스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 드릴게요. 이곳에는 K-Move스쿨 사업뿐 아니라 본인이 바로 해외 취업에 있어 언어 직무 등의 능력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면 구인 공고에 직접 지원하여 해외 취업에 도전할 수 있으며, 저와 같이 아직 언어, 직무 등의 능력이 미비하여, 준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K-Move스쿨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국가의 언어, 문화를 이해하고, 직무에 대한 직업 교육까지 받을 수 있으니 1석 2조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저도 K-Move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새로운 곳에서 저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벌써 절반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요즘 2019년 목표했던 것들에 대해 중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 취업이 가장 큰 목표였고, 현재 그 목표를 이루었고,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점검할 예정입니다.

힘들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힘들어질 것 입니다. 모두들 긍정적인 마인드로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 될 것이라고 믿어보십시오. 분명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2019  
해외취업  
성공스토리  
공모전  
NOW 부문  
수상작품집



손승희



구자경



원다혜



윤희경



손재우



손 승 희

대상 / 일본

해외취업,  
누구나 꿈꿀 수 있지만  
아무나 이룰 수는 없다

글로벌 일자리 박람회,  
부산 K-Move 센터 일본어 아카데미를 통해  
'아무나'를 벗고 하나뿐인 '내'가 되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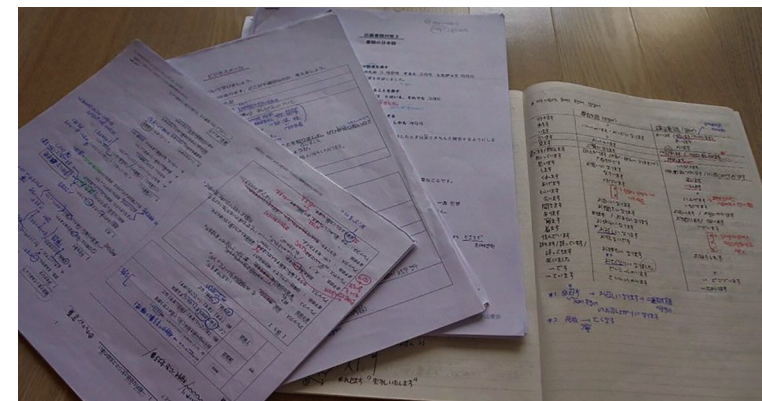
덕질이 쏘아 올린  
작은 불씨,  
일본어 공부의  
발화점이 되다.



### 일본어, 이렇게 시작해도 되는 건가요?

고백하건대 중·고등학교, 특히 중학생 때 약이 시절의 나는 동방신기의 극진한 팬이었다. 그들이 나온 노래, 춤, 예능 등 모든 방송을 다 섭렵했고, 시간만 나면 이전에 본 방송도 수차례 다시 돌려보곤 했었다. 그야말로 충실한 팬의 역할을 다하고 있을 무렵 갑자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국내에서 최정상가도를 달리던 동방신기가 돌연 일본 진출을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덩달아 나의 팬질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내 가수가 일본 진출을 한다는데, 더 열심히 서포트 해야지!' 라는 일념아래 나는, 이전처럼 그들이 나오는 일본 방송들을 하나 둘 찾아보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귀가 '일본어'를 인지하고 익숙하게 느끼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다.



초쿠바 국제교류프로그램, 복수전공 그리고 교환학생  
본격, 해외취업의 꿈을 꾸기 시작하다.

사소한 계기가 불러온  
커다란 파장.

나는 무언가 하나에 꽂히면 바닥이 보일 때까지 파보는 게 취미이자 특기인 사람이다. 일본어 공부 또한 그러했던 것 같다. 대학교 2학년, 우연히 게시판에서 학과에서 매년 주최하는 초쿠바 대학과의 국제 교류프로그램 공지를 보았고, 검증된 일본어 실력은 없었지만, 중학생 때 그래도 꽤나 일본어를 많이 들었다고 자부할 수 있었기에 호기롭게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 첫째 날, 그때의 내 선택이 잘한 것이었는지 몇 번이고 자신에게 되물었다. 이유인즉슨, 참가자 중 그나마 내가 일본어를 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통역'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들을 수는 있었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일본친구들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통역을 기다리는 친구들의 반짝이는 눈빛에 나는 뭐라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며, 휴대폰 일본어 사전에서 단어를 찾아 더듬더듬 통역을 이어갔다.

인생 처음으로 겪은 언어의 장벽은 무시무시했고 고통스러웠던 2주간의 프로그램을 마친 후 나는 좌절이 아닌 정면돌파를 택했다. 본격적으로 일본어 공부를 시작한 것이다.



일본어 공부를 마음먹고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교내 다양한 유학생 도우미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일본인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이었다.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친구들과 만났고 대화 중 모르는 단어는 휴대폰 메모장에 저장해둔 후, 그날그날 복습을 했다.

등하굣길 내 이어폰에서는 J-pop 혹은 일본 라디오 방송이 흘러나왔고, 잠 들기 전 꼭 일본 예능이나 드라마를 한 편씩 챙겨보았다. 그렇게 주변 환경을 바꾸고 습관으로 만들 때까지 1년 반, 나는 그 달에 바로 JLPT 1급을 취득했고, 그에 힘입어 일어일문학과 복수 전공을 하며 다양한 각도로 일본을 접했다.

일본에 대해 점점 알아갈수록 누군가 알려주는 지식이 아닌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듣고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래서 4학년 1학기를 마친 후 6개월 간 도쿄에서 교환학생으로 생활을 했고 글로벌한 도시, 도쿄에서 많은 외국인들과 어울리며 그야말로 일본에서 세계를 경험 해볼 수 있었다. 하지만 6개월이란 시간은 내게 너무 짧게만 느껴졌고, 더 넓은 세상에 대한 갈증은 곧 해외취업을 꿈꾸는 이유가 되었다.

#### '월드잡 플러스'로 구직활동의 판을 뒤흔들다

#### 일본취업분투기

일본취업을 목표로 약 두 달간은 혼자서 준비를 했다. 아는 일본인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인터넷을 찾아보며 일본인 취업 준비생들의 루트를 그대로 따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비로 한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며 기업설명회나 면접이 있을 때마다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일본으로 날아갔다. 그리고 주말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아르바이트를 했고 일정이 없는 날엔 학교 수업을 듣거나, 과제를 했다. 그렇게 약 두 달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이 다 보상받는 것은 아니듯, 내가 들인 시간과 노력과는 상관없이 번번이 최종 면접에서 탈락의 고비를 마셨고 일본인들 사이 나는 단지 '일본어'가 좀 되는 '외국인'일뿐이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안타깝지만 .. ' 으로 시작해 '승희님의 취업을 응원하겠다' 는 문장으로 끝나는 메일들을 볼 때마다 자존감은 점점 바닥을 치기 시작했고 현실적으로도 더 이상 지금의 방식은 계속할 수는 없었기에 나는 국내에 있는 해외취업 박람회로 눈을 돌렸다.

가장 먼저 5월에 개최된 KOTRA 상반기 글로벌 일자리 대전에 참여했고, 아쉽게도 나에게 맞는 기업을 찾지는 못했지만, 일본취업 멘토링 부스, 몇몇 기업들의 현장면접을 보면서 이전에는 늘 타지에서 혼자 싸우는 느낌이었는데 처음으로 홈그라운드가 주는 안정감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많이 회복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더 도전해보기로 결심했다.

목표를 국내 주최 해외취업박람회로 다시 설정한 후, 3개월 간 꾸준히 부산 해외취업센터의 해외취업아카데미 일본어 강좌를 수강했다. 오만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ES(Entry Sheet)\*작성부터 면접 매너까지 다시 초심자의 마음으로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다져갔고 이전 면접에서 나왔던 질문들과 그때마다 내가 했던 답변들을 정리하면서 강점은 살리고 단점은 고치려 노력했다.



### 우연일까 운명일까, 그토록 고대하던 '내정'이란 두 글자.

해외취업아카데미를 다니며 좋았던 점은, 혼자 고군분투하던 때보다 덜 외롭다는 것이었다. 아카데미에서 같은 목표를 꿈꾸는 동료들이 생겼기 때문이다. 단순히 정보공유 차원을 넘어 해외취업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은, 존재만으로도 나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다.

\*ES(Entry Sheet) : 일본 신입 채용 시 주로 사용하는 이력서 양식

### 부산 청년 일본 취업박람회를 통해 맺은 인연

좋은 기회는 늘 예고를 생략하는 것 같다. 아카데미 수업을 듣고 나오는 길에, 같은 수업을 듣는 언니에게서 우연히 부산외국어대학교가 주최하는 일본취업박람회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그 길로 집으로 달려가 참여 기업리스트를 보며 이력서를 작성했고 아카데미 사람들과 면접 하루 전날까지 면접 대비 스터디를 함께 했다.

면접 당일, 두 번의 버스 환승과 가파른 언덕길을 지나 도착한 회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나는 빠르게 현장면접을 접수했다. 다행히도 이력서를 준비한 기업 5곳 중 3군데에서 현장면접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접수한 3군데 모두 당일에 면접을 보고, 1차 면접을 통과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세 기업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곳이 알고 보니 상반기 KOTRA 글로벌일자리대전 멘토링 부스에서 추천을 받았던 기업이었다. 실제로, 해당 기업의 면접관분들이 그날 면접 본 기업들 중 가장 질게 내가 그리는 커리어와 꿈에 대해 공감을 표해 주셨고, 앞으로 본인들이 그리는 기업의 발전방향, 사내분위기, 성장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말씀해주셨다.

최종적으로 총 2곳의 기업으로부터 최종합격의 소식을 받았고 고민 끝에 상반기 KOTRA에서 소개받았던 기업의 내정에 답을 했다.



“이 시국에?” 라는  
말을 뒤로하고,  
나는 당당히  
일본으로 간다.



### 일본 취업 성공 전략 3가지 Tip 및 해외취업에 대한 나의 생각

일본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3가지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데드라인을 잡을 것.

그냥 막연하게 ‘해외취업을 할 것이다.’ 보다는 적어도 ‘언제까지 하겠다.’ 라는 구체적인 데드라인을 정하는 것이다. 될 때까지 하면야 정말 좋겠지만, 불합격도 쌓이면 꽤나 충격이 크기 때문에 데드라인을 잡아 그 기간 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상황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 방향을 바꿔보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 2. 나만의 취업의 축을 세울 것.

단순히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단선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직종, 직무, 앞으로의 커리어 플랜을 구성하고 이 기준들을 바탕으로 어떤 기업을 선정할 것인지 기업 선정의 축을 정해두는 것이다. 나의 축은, ①기업의 성장가능성 ②연공서열이 아닌 철저히 ‘성과’ 중심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③유연한 사내 분위기였다.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축을 세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면접을 통해 다양한 회사를 만나보자. 자연스레 기업에 대한 나의 호불호가 보일 것이다.

‘나’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가질 것.

결국은 ‘나’가 일하는 회사이다. ‘나’를 잘 모르면 나에게 맞는 기업을 고를 수도 없을뿐 더러 특히나 일본의 신입채용에 있어, 2-3차 면접으로 갈수록 ‘나’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가치관에 대한 심층적인 질문을 많이 던지기 때문에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다.

나의 경우, 매년 써왔던 다이어리와 일기를 연도별로 정리하여 해당 기록들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해 온 활동들을 분석하였고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하고 어떤 때 불편함을 느끼는 지 등 그때그때 마다 느꼈던 감정들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기록이 없다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단편적으로 떠오르는 기억들을 인생그래프로 정리해보는 방법을 추천한다.

이제는 개인이 자산이 되는 시대. 매체는 급속도로 발달하고 세상은 빠르게 변화한다. 변화의 속도가 가늠조차 안 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는 ‘다름’이라는 가치가 앞으로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다름’을 채울 가장 좋은 루트는 ‘해외취업’이다. 익숙한 것들에게서 벗어나 낯선 국가에서, 나와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일을 하면서 자연스레 남들과는 색다른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사고의 유연성을 기를 수 있으리라. 그리고 이러한 ‘다름’은 더욱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 해외취업 드리머(Dreamer) 분들께 바치는 짝막한 헌정 글.

해외취업은 두려움과 망설임 사이에서 조금 더 용기를 낸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노력으로 일구어낸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취업을 꿈꾸는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이 두려움을 깨고 새로운 세계로 한발 더 내딛기를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 구 자 경

최우수상 / 중국

BIG4 출신  
말레이시아 세무컨설턴트는  
왜 회계법인을 그만두고  
중국의 데이터 분석가가  
되었을까?

스물다섯 청년의  
우주여행

비행기를 우주선쯤으로 여기는 청년이었다. 그 청년에게 해외여행은 곧 우주선을 타고 우주여행을 하는 것과 같았다. 우주인들의 공용어인 영어를 구사할 줄 모르는 청년이기에 우주여행은 '잔치집에 가서 물만 마시고 돌아오는 격'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던 그였다. 그러던 청년이 스물다섯이 되었을 때 첫 우주여행의 기회가 찾아왔다.

싱가포르 왕복 항공권에 당첨된 것이다. 싱가포르엔 마침 사촌 누나가 살고 있었기에 큰돈 안 들이는 우주여행 한 번쯤 다녀와도 되겠다 싶었다. 그렇게 경험하게 된 첫 우주여행은 청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난 피자의 존재도 모른 채, 빈대떡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고 믿고 살았구나." 청년은 우물 밖 넓은 세상을 경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고, 곧장 배낭여행을 계획했다.

대책 없이 떠난 배낭여행은 녹록치 않았고, 주머니도 금세 바닥을 보였다. 임시로 필리핀에 거처를 구하게 되었는데, 어학원에서 사무업무를 보는 대가로 숙식과 영어수업을 받는 것이었다. 청년은 초급영어를 탑재하게 되었지만, 여정을 지속해 나갈 돈이 부족했기에 여정을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였다. 그리고 청년은 새로운 도전을 감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닥치는 대로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도전과 낙방을 거듭한 끝에 현대자동차 인도 법인에서 인턴쉽을 시작하게 되었다.

인도는 청년을 한 단계 성장시켜 주었다. 현지 직원들과 가깝게 지내며 청년의 영어 실력은 중급으로 향상되었고, 해외법인의 사업기획 업무는 청년이 글로벌 동향을 이해하고 세상을 비즈니스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식견을 갖게 했다.

휴가 때마다 동료들과 인도여행은 물론이고 주변국들을 경험할 수 있었기에 청년은 인도에서의 삶을 만족해했다. 그렇게 1년의 계약 기간은 끝이 다가왔고, 청년은 한국에서 지내던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았다. '대기업 입사를 목표로 스펙을 쌓고, 취업의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사회적 결혼 적령기가 와서 결혼을 하게 되고..' 정해진 길을 가기 위해 발버둥 치던 한국에서의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청년이 지금까지의 해외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었다. 정해진 길만이 길은 아니라는 것, 내 길은 내가 만들 수도 있다는 것. 그렇게 청년은 다시 한 번 큰 결단을 내리고, 글로벌 커리어를 이어나가게 되었다.



## 해외취업 필수전략 : 정보력, 적극성, 차별화

먼저, 국가와 산업분야 및 직무를 세분화 하였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취업정보를 수집했다.

- 1) 관심 기업의 웹사이트
- 2) 채용관련 사이트: Worldjob+, LinkedIn, Kelly Services, JobStreet.com 등
- 3) 국가별 한인 커뮤니티: 말레이시아(굿모닝말레이시아), 싱가포르(한국촌)
- 4)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의 멘토링 프로그램 통한 현지멘토와 온오프라인 교류
- 5)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KOTRA 주관의 국내·외 해외취업박람회 참석
- 6) 국내외 서치폼에 문의
- 7) LinkedIn 동문찾기 기능 활용해 관심기업 또는 국가에 근무 중인 대학동문 컨택



레쥔메(Resume)와 커버레터(Cover Letter)는 '영문이력서 자기소개서 한번에 끝내기'(김영진/예문출판)를 참고했는데, 행위동사(Action Verb) 및 샘플자료가 많아 큰 도움을 받았다. 첨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매월 실시하는 해외취업 아카데미를 통해 미국인 전문가에게 무료로 받았다.

인터뷰 준비는 의외로 간단했다. 한국 기업 면접을 준비하듯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고, 이를 영어로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다면 충분했다. 스피킹 실력이 부족했던 나는 답변을 전부 외우고, 원어민처럼 말할 수 있을 때 까지 연습을 반복했다. 인터뷰 역시 해외취업 아카데미의 도움을 받았는데, 모의 인터뷰에 두 차례 참석한 뒤 피드백을 받아 다듬어 나갔다.

급하게 준비한 탓에 걱정과 조급함이 밀려왔고, 현지서 발품을 팔아보려 대학졸업 직후 동남아로 향했다. 싱가포르에서는 14인실 게스트하우스에서 말레이시아에서는 지인의 원룸에 얹혀 지내며 구직에 전념했다.

현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뷰 기회를 얻었다.

- 1) 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 담당자에게 레쥔메 전달
- 2) 글로벌 채용 사이트에 구직자 정보 업로드 및 지원: Worldjob+, LinkedIn, JobStreet.com 등
- 3) 국내외 취업 박람회 참석: 국외- K-Move 해외 멘토링, 국내- KOTRA 해외취업 박람회
- 4) 국내외 서치폼을 통한 인터뷰 기회: Selecture, SELPEO, GHR 등
- 5) 내부직원 추천을 통한 인터뷰 기회

여러 차례 해외취업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점은 다음과 같다.

- 1) 채용사이트의 공고는 실제 구인중인 공석에 비해 극히 일부이다. 기업은 내부 채용이나 내부자 추천을 선호하며, 채용담당자가 보유한 레쥔메 리스트까지도 검토해 본 뒤에야 채용공고를 올린다.
- 2) 일치하는 경력이 없거나, 요구경력 2~3년이 모자라다고 지원을 포기하지 마라. (필자는 무경력으로 3년 경력을 요하는 자리를 꿰찼고, 공학사에 회계사 자격 없이도 회계법인에 입사했다.)
- 3) 기업에서는 영어실력을 따로 평가하지 않는다. 영어는 회사생활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원자의 어학성적이 아무리 높다한들, 인터뷰에서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할 수 없다면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겠는가.
- 4) 기업은 적극적인 인재를 선호한다. 남들 하는 것처럼 준비하면, 남들과 다를 바 없다.

## 취업 전에는 몰랐던 미래에 대한 현실적 고민

외국기업이 한국기업과 다른 점은 성과지향의 기업문화가 아닐까 싶다. 성과와 무관하게 해마다 호봉이 오르는 호봉제와 달리, 외국에선 매년 성과와 리뷰를 바탕으로 회사와 내년 연봉을 협상해야 했다. 승진도 이와 마찬가지로, 승진연한이나 연차에 따라 직책을 주는 제도는 없었다. 연봉을 크게 올리거나 승진을 위해 때로는 이직도 고려되어야 했다.





말레이시아의 글로벌 회계법인 근무 당시, 세무컨설턴트로서 한국 비즈니스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했다. 한국기업의 세무자문 및 한국 클라이언트 발굴 등이 주 업무였다. 초기엔 세법 개정시기와 맞물려 한국 기업들의 문의가 잦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수요가 크게 줄었다. 회사에서는 실적감소에 따른 압박을 지속해서 주었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을 통해 상황을 해결하기엔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다. 세일즈 매니저로 근무했던 다른 기업도 상황은 비슷했다. 글로벌 공유오피스 기업의 한국 세일즈를 위해 고용되었지만, 한국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던 터라 일거리가 없었다. 일이 없으니 실적은 좋을 리 없었고, 성과급과 인사평가는 개발도상국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승진은 상상조차하기 어려웠다.

국가나 직무/분야에 따라 언어의 장벽이 존재할 수도 있다. 회계 법인에서는 현지 업무도 함께 배정받았다. 때로는 고객사로부터 받은 서류가 중국어나 말레이시아어로 쓰여 있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고, 업무상 현지 관청에 방문할 때에도 언어의 장벽을 실감해야 했다.

변화하는 업계도 한 몫을 했다. 업무 전반에서 자동화의 움직임이 일었고, 빅데이터 기술이 도입되며 컨설턴트의 업무 범위도 축소되었다. 표본조사를 통한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컴플라이언스 업무는 빅데이터 툴을 통한 전수조사가 가능해졌고, 자동화로 인해 업무처리 속도 또한 빨라졌다. 일이 줄어든 만큼 회사는 기존업무 대신 해당 제품의 세일즈를 요구했다. 잔업이 줄고 퇴근 시간이 단축되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기계에 일 자리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들었다.

### 중국 상해 소속 데이터 분석가로 변신, 그리고 새로운 목표

알파고가 이세를 누르며 전 세계가 AI에 주목하던 때였다. 딥러닝, 빅데이터와 같은 용어들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회사에서 빅데이터 툴을 만져보던 나는 문득 호기심이 들었다. ‘나도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을까?’ 먼저, 데이터 분석이라는 분야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능력, 통계학적 통찰력 그리고 비즈니스 이해(도메인 지식)가 필요했다. 학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덕에 프로그래밍과 통계학에 대한 기본적 소양은 가지고 있었고, 사업기획, 사업개발, 세무컨설팅 업무를 하며 비즈니스 이해력도 키운 상태였다. 데이터 분석 직무는 해외에서 커리어를 밝기에도 유리했다. 비전이 밝았으며, 다양한 국가에서 인력수요가 많아졌다. 기

술력이 필요한 업무의 특성상 언어적 장벽이 덜했고, 기업들 또한 외국인 채용을 꺼리지 않았다. 퇴근 후엔 Coursera를 통해 강의를 듣거나 Dataquest를 통해 실습을 하며 독학했고, 주말에는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과 직장인을 모아 그룹스터디를 진행했다. 호기심은 곧 전직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었고, 퇴사 직후 1인 기업을 설립해 다양한 분석 프로젝트를 다루었다. 공모전에도 여러 참가해 수상경력과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 퇴사를 감행한 지 8개월이 지났을 무렵, LinkedIn을 통해 싱가포르의 데이터 분석 컨설팅 기업에서 오퍼가 들어왔다. 인도, 중동 등 세계 각국에서 굵직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다국적 기업이었으며, 한국시장을 담당할 컨설턴트를 뽑고 있었다. 코딩 면접을 포함해 네 차례의 인터뷰를 가졌고, 중국 상해에 있는 동북아본부 소속 유일의 한국인 데이터 분석가로 입사하였다.



지난여름, 한국 F&B기업의 컨설팅 경쟁 입찰에 유일한 외국기업으로 참가했고, 한국시장 대표로서 프레젠테이션을 맡았다. 밤잠 줄여가며 발표준비를 한 끝에 계약을 따냈고, 지금은 서울에 있는 해당 기업 본사에 파견되어 분석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자사의 성공적인 한국시장 안착과 한국 지사장이라는 타이틀을 목표로 한국 사업을 진두지휘 하고 있다. 입사 전엔 취업성공만 생각했기에, 취업 후 마주하게 될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했다. 정보가 부족한 탓도 있었지만,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멘토를 찾기가 어려웠다. 다른 청년들이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바라고, 나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작년부터 브런치에 글을 연재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 취업박람회, 유튜브를 통해 해외취업준비생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있다. 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넓은 세상을 가슴에 품고, 마음껏 세상을 누빌 수 있기를 바란다.

원 다 혜

우수상 / 호주

고단했던 한국 교직생활 마무리,  
그리고 호주에서의 행복한  
행복한 교직생활 시작!

### 호주 유치원 취업 진출을 하게 된 계기는

호주 유치원 취업 진출을 하게 된 계기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일하는 것이 좋지만, 한국의 교직생활은 과대한 업무 양, 유치원 텃새 그리고 밤샘근무와 야근을 매일 하고도 수당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과 안타까움 때문이었다. 한국 유아교육기관에서 일하는 것을 나의 인생에서 완전히 배제 시키고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 시간까지 모두 인정을 해주고 그만큼 대우도 받을 수 있는 호주의 유아교육기관에 취업하기로 목적을 지정하고 진출을 하게 되었다. 유아교육과를 졸업, 임용고시를 치르고 오랫동안 유아교육기관에서 일을 했던 나는 지금 K-Move school 연수생이 되어 호주에서 유아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시드니에 있는 유아교육기관에 취직하여 열심히 또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다.

오랫동안 한국의 유아교육기관에서 일을 하며 느낀 점은, 한국의 유아교육기관에서 일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점이다. 높은 교사 對 유아 비율, 잦은 야간 근무, 노동시간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월급, 학부모님과 직장 상사에 비위 맞추기까지... 솔직한 심정으로 말한다면 그렇다, 나는 모든 것에 지쳐서 더 이상 한국에 살고 싶지도 않았고 유아교육기관으로는 앞으로도 한국에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서 유아교육기관을 다니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밤늦게까지 야간근무를 하고 녹초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학창시절에 호주에서 온 나의 학급 벗이 했던 말이 문득 머릿속에 스쳐지나 갔다.

“00야, 호주의 유아교육기관은 프로그램이 아주 잘 구성 되어 있어. 교사 對 유아 비율도 낮고 salary도 한국보다 훨씬 높아! 그러니 호주에 가서 꿈을 계속 키워 봐. 너의 삶이 보다 더 행복해질 거야.”

그리고 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잠을 설치가며 호주 유아 교사 전망과 취업 경로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하였다. 감사하게도 당시에 K-Move school 프로그램인 Certificate III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라는 과정이 진행중이어서 프로그램에 참가신청서를 당일 날 바로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프로그램은 나의 삶에 한 줄기 빛과 같았고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는 것을 단번에 느낄 수 있었다. 나에게 희망과도 같은 이 프로그램을 놓칠 수 가 없었기에 국제경력개발원에 올라온 K-Move 연수생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날 관계자분과 통화를 하여 더욱 자세하게 상담을 안내 받을 수 있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무렵, 국제경력개발원에서 신청서를 잘 받았고 참가 연수생에 선정이 되었다는 안내전화를 받았을 때 기분이 정말 날아갈 것 같았다. 그리고 유치원에는 해당 학기까지로 마무리하고 일을 그만두기로 원장님과 상의를 마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나는 선정되었다고 안내 전화를 받은 날부터 바로 인터넷 영어 수강권을 구매하고 영어공부와 호주 문화를 익히기 위해 잠을 줄여가며 열심히 공부하였다.

모든 비자 신청 과정을 마친 후, 호주 이민청에서 거주허가증을 보내주고, 다음날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였다. 호주 시드니 킹스포드 공항에 도착하여 공항철도를 타고 Central Station에 도착하였는데 너무 아름다웠다. 말로 형용할 수 없게 눈이 부시고 정말 아름다웠다. 센트럴 역 옆에는 멋진 공원이 있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기분 좋은 가을밤이었다.

호주에서의 한 달은 'SBTI'라는 어학원에서 어학공부에 매진하였다. 유아교육기관은 상호작용을 많이 해야 하므로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열심히 하려고 했던 부분이 어학이다. 학원이 끝나고 집에 가면 시드니의 야경을 보며 영어공부를 하였고, Bar에 가서 상큼한 칵테일 한 잔에 영어공부를 하며 나의 어학 실력을 점차 키워갔다. Bar에 가면 다양한 친구들과 대화를 하며 영어(Speaking)실력을 많이 향상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기도 했다. 어느 날은 호주 변호사 친구를 만나서 호주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날은 스페인 친구들을 만나 스페인의 치안에 대해 영어로 토론을 하며 호주는 치안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는 결론을 내기도 하였다. 또 Bar에서 얻은 것은 영어 실력과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지금의 남자친구이다. 남자친구는 스웨덴 사람이며 아주 착하고 잘 생겼다. 남자친구는 내가 모르는 단어를 알려주고 부족한 나의 영어 문법들을 바르게 고쳐주는 나의 영어 선생님이기도하다.

## 어학 수업을 마치고,

어학 수업을 마치고, 드디어 Certificate III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과정을 듣는데 정말 좋았다. 호주에서 규정하는 유아 발달단계들부터 시작하여 영국에서 호주를 침략한 날, 호주 원주민 아동 실종에 관한 뉴스까지 다뤄가며 호주 문화와 역사를 자세히 배우고 유치원에서 꼭 갖추어야 할 안전교육 CPR(심폐소생술), 위생관련 법까지도 모든 교육을 자세하고 꼼꼼히 배우고 법전 같이 두꺼운 아주 많은 과제들을 받고 동기들과 머리를 싸매고 공부했던 것들이 전혀 힘들지 않았고 오히려 재미있

었다. 한 문제를 영어로 서술하는데 1200자 이상 적는 것도 많았다. 하지만 그 시간도 너무 재미있었고 어학 실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되었다. 매일 잠을 줄여서라도 과제를 풀고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니 성취감은 아주 높았다.

또한 과제를 보면 각 과제당 200페이지가 넘는 과제물을 수행했다는 자체가 나를 정말 기쁘게 하였다. 모든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고 드디어 실습을 나가는 날, 동기들은 너도 나도 힘을 북돋아 주며 힘내라는 말을 건네주고 하나 둘씩 교실을 떠나갔다.

나는 실습을 시드니의 C Preschool로 갔는데 이곳은 0세부터 5세까지의 아이들의 교육, 보육하며 옆에 Kindergarten도 함께 있는 센터였다. 또한 여러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있었고 인도, 중국, 홍콩, 스리랑카, 필리핀 그리고 한국의 아이들이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서로가 다른 언어를 쓰며 영어라는 언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서로가 마음을 열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니 서로의 문화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며 아껴줄 수 있는 교사와 아이들 그리고 직장 동료이자 친구들이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나의 동료교사들은 대부분 중국이나 홍콩인이었는데, 내가 대만에서 교환학생으로 다녀오며 중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기에 동료교사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더





민자가 많기 때문에 제 2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교사들이 다양한 유치원에 취업할 성공률이 훨씬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굳이 완벽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다양한 각도의 방향으로 바라보고 희망의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

또한 호주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아이들이 학업에 열중하기 보다는 자연에서 놀고 배우며 그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고 유아 주도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있기에 학습지를 끝내야만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거나 선행학습 같은 것은 없다.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놀기의 원리로부터 학습을 한다는 것은 유아에게도 교사에게도 이로움을 주는 모범되는 교육 프로그램인 것 같다.

한국에서는 교사가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을 짜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이외에 서류들과 학부모 연락, 아이들 사진 찍어서 정리하고 보내기, 유치원 카페 글 올리기, 학부모 상담하기, 등·하원지도, 기타 등 너무나 많은 것에 신경 써야 한다.

호주도 물론 한국과 비슷하다고 말 할 수 있으나 다른 점이 많다. 호주는 등·하원은 절대적으로 부모님이 하게 되어있다. 학부모님이 유아교육기관으로 오셔서 유치원 안에 출입하기 전에 Sign을 하고 태블릿 PC에 학부모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에 등원 확인 출석 체크를 한 번 더 등록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하원지도 시에도 부모님이 같은 절차로 아이들을 데려가야 한다.

그리고 아이의 사진은 유치원 밖으로 유출하지는 않으며 개인적으로도 사진 전송을 하지는 않는 것을 규칙으로 한다. 왜냐하면 아이의 사진이 유출 되었을 때 유괴나 실종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으며 아이의 인권 침해에도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호주 유치원도 매일 같이 아이들이 만든 작품들이나 기록물들을 포트폴리오로 정리하고 사진을 태블릿 PC로 찍는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하원지도를 할 시에 아이의 사진을 보며 아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확인하고 아이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나의 호주에서 직장생활은 인생에서 했던 모든 직장생활 중에 단연코대 최고이다. 나의 삶의 질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고, 행복지수도 비교불가 하게 상승하였다. 높은 Salary와 낮은 교사 대비 유아 비율, 정시 퇴근, 추가 근무 시 추가 근무 수당 지급, 휴일에는 공원에 누워 음악을 듣고 독서를 하거나 본다이 비치(Bondi Beach)에 가서 서핑을 하며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여가생활까지 너무나 행복한 호주 교직 생활에 감사하다.

그렇기에 이 글을 읽게 되실 모든 분들에게도 해외에 진출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며, 자신의 삶의 가치를 높여주고, 나를 보다 나은 나로 만들어주는, 나의 여가시간을 보다 활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비교적 많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니 꼭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

나는 현재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 TAFE의 유아교육과 Bachelor 과정을 지원하고 호주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나에게 한 줄기 빛을 내려준 K-Move School 프로그램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싶다.



윤 희 경

장려상 / 일본

코리아잡에서 월드잡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건축 외교관을 꿈꾸며

###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국내에서 해외로)”

중학교 3학년 때, 한비아 작가의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는 책을 읽게 되면서부터 제 마음속에서는 해외 진출에 대한 꿈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한비아 작가의 여러 가지 해외 활동을 보면서 저도 언젠가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대학교에서 열린 일본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막연히 생각했던 해외 진출에 대한 꿈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저에게 있어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의 장기 인도 봉사활동, 다양한 나라의 여행을 통해 저의 꿈을 국내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문제로 인해 국내 건축 사무소에 취업하게 되었고, 주말 밤샘 업무, 효율보다 야근이 많은 문화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인에 이력서를 올린 것을 잊고 있었는데, 그것을 발견해주신 해외 취업전문 회사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혹시 해외취업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전 그 한마디에 회사를 그만둘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취업을 모색하던 중, 일본 교환학생 때 공모전을 주최한 건축회사가 글로벌 일자리 대전을 참가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서류 통과 후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관분들을 통해 들었던 사내 문화와 제도가 너무나 좋아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꿈을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우연한 기회를 통해 다시금 꿈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준 것은 월드잡플러스(Worldjob+)였습니다.

### “꾸준한 노력과 월드잡을 통한 정보 수집”

저는 평범하지만 꾸준한 노력만이 대단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누구보다 꾸준히 영어, 일본어, 중국어 공부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일본어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친구가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아 대학교 때까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자를 익히기 시작하니, 같은 한자 문화권인 중국어로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드라마와 EBS라디오를 통해서 예습·복습을 하다 보니, 이제 일본어는 공부하지 않아도 JLPT N1급을 135점을 받을 수 있었으며, 중국어는 2016년부터 지금







까지 HSK 5급 200점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취업을 위해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배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의 작은 노력들이 일상생활처럼 스며들었을 때 그 나라의 문화를 포함한 언어를 배웠다고 생각하며 노력하였습니다.

해외 진출을 위한 정보는 굳이 먼 곳에서 조력자를 구하지 않고 학교 취업센터, 월드잡플러스 등을 통해서 해외취업 상담, 박람회 정보를 꾸준히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는 그 기회를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 후회 없는 노력을 했습니다. 저의 경우 일본 건축회사에서 사전 설계 과제가 있었기에, 과제에 신경 써서 준비하였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이 그냥 설계 도면만 그려왔을 때, 저는 조금 더 알기 쉽게 색을 칠하고, 왜 이렇게 설계를 하였는지에 대한 콘셉트와 과정을 상세하게 그려 면접관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런 점이 면접관에게 좋게 인식이 되어 당일 합격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회사에서 현재까지 저의 입지를 잘 다져서 동료들과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노력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일본에서 1급 건축사를 취득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한국 대사관에서 진행하는 일본 노동법 강의를 참석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편안함을 추구하고 싶지만 그럴 때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조언을 얻어 가며 꾸준한 노력의 추진체를 얻고 있습니다.

### “우물 안 개구리가 우물에서 나왔을 때”

지방대 국립대학교 학생으로서 항상 우물 안 개구리 같은 학교생활이 제 미래의 전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만 신경 쓰고, 학교생활의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느끼면서도 필사적으로 따라가려 노력했었습니다. 저의 시야는 우물 안 개구리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본 교환학생이나 해외봉사 활동을 통해서 제 우물에서 나왔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풍경은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환학생을 통해서 일본의 건축회사에서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였습니

다. 그리고 해외봉사활동을 통해서 건축이라는 것이 설계사무소를 근무하는 것만이 건축을 실현하는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취업으로 목표를 잡으니 지원할 수 있는 회사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물론, 저마다의 해외 진출에 대한 생각이나 목표가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의 한계를 한국의 설계사무소라고 정하면서부터 취업이나 모든 상황들이 더 힘겹게 느껴지고 자신의 장점을 잘 드러내지 못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외국어를 못한다는 생각이나 이미 늦었다는 생각으로 본인의 한계를 미리 단정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배운다면 외국어를 배우지 않은 자신의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잡플러스와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수한 상담 선생님들과 많은 일자리를 알아보고 자신의 커리어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해외 진출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치 제가 우물 안 개구리에서 우물 밖으로 나와 세계를 향한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것처럼 말이죠.



## “세계를 연결하는 건축 외교관”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첫째, 일본과 한국을 잇는 건축가가 되고 싶습니다.

현재, 목조 임대주택 회사에서 설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목조건축이 한국에서는 다소 낯선 건축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아주 흔한 건축구조 중 하나입니다. 지금 회사에서의 실무 경험을 가지고 한국에서도 흔히 사용될 수 있도록 보급에 힘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일본 건축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한국의 건축사 자격증도 취득하여 양국에서 건축사가 되고 싶습니다.

### 둘째, 아시아를 연결하는 건축 연결망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일본을 넘어 기회가 된다면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 중국, 대만, 홍콩 등 소통이 가능한 다양한 나라를 연결해주는 외교적인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꾸준한 중국어 공부와 중국 취업 시도를 통해서 언젠가는 꼭 중국에서 건축 실무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의 건축을 아우르는 건축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실무 능력을 키워감과 함께 다양한 매체에서 업데이트 되는 많은 일자리 정보를 통해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셋째, 세계를 연결하는 건축 외교관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큰 꿈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꿈이 커야 이룰 수 있는 현실도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건축은 의식주 중에 “주”를 담당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관심이 있고, 존재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건축이 전 세계를 잇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가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매일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다른 빛나는 제 자신이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 “공학도의 해외취업 길잡이”

몇 년 전의 취업 준비생이었던 저는 오롯이 혼자서 모든 걸 알아보고 실행해나가야 했습니다. 물론 학교의 취업상담 선생님들과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었지만 공학도인 저에게는 다소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취업을 준비하면서 얻은 많은 노하우들이 많은 건축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경험과 실무경력을 알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의 큰 꿈은 세계를 연결하는 건축 외교관이지만, 작은 꿈으로는 누군가가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걸어가면서 그 자리를 밝혀주는 길잡이가 되고 싶습니다. 모두가 국내(Korea-Job)에 머물지 말고 세계(World-Job)를 향해 나아가는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손재우

장려상 / 인도

World Job을 통한  
Job 여행기,  
이제 내 무대는 이 세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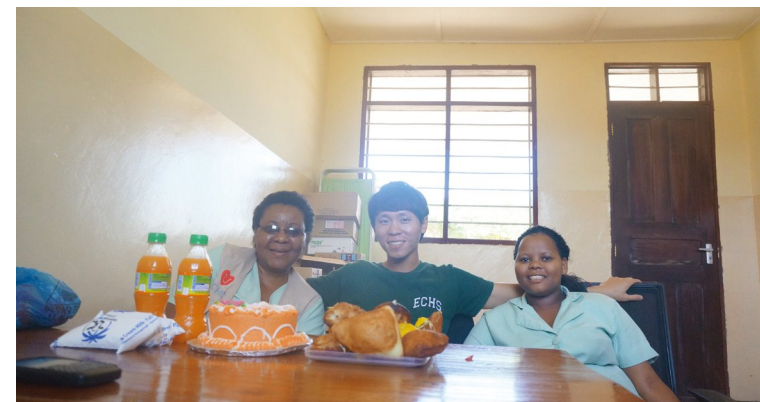
### 해외취업을 결심하게 되기까지

3학년 전까지 나의 대학생활은 평범하고 무난했다. 제대 후 복학하여 도서관을 다니며 학교공부와 이런저런 대외활동, 그리고 자격증 준비 등을 하며 취업이라는 목표점을 향해 바쁘지만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가슴 한 켠에 어릴 때부터 늘 보고 싶었던 바다 건너 세상에 대한 열망이 점점 커가고 있었다.

사실 난 어릴 적부터 해외 세상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다. 지구본을 돌리며 놀았고, 지도 속 아주 조만한 '점' 밖에 안 되는 우리 나라 우리 동네를 찾아보며 이 광대한 세계가 너무도 신비롭게 느껴졌다. 가끔 TV와 책을 통해 세상 구경을 했지만 내 상상력을 모두 채우기에 역부족이었다.

3학년이 되던 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한 번 가보자” 하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다. 결국 난 휴학을 했고, 배낭 하나 매고 인도에 가게 됐다. 인도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하지만 분명했다. 일단 여행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고, 무엇보다 방대한 문화와 역사를 가진 나라였기 때문에 인도 한 나라지만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는 인도에 갔고 두 달 동안 두 발로 인도 대륙을 횡단했다.

인도를 다녀온 후, 그 곳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정리하며 새롭게 내 가슴 속에 들어온 장면들이 있었는데, 바로 여행을 하며 마주친 무수히 많은 빈민과 가난, 그리고 직접 눈으로 본 종교적 갈등과 테러, 전쟁 등이었다. 이전까지는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인식되던 것들이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불과 몇 십 년 전, 큰 전쟁을 겪었고, 매우 가난했었고,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오늘에 이르렀다는 사실도 새롭게 인지했다. 나는 세상의 더 다양한 모습들을 보고 싶었다.





4학년이 되던 해, NGO해외봉사단 모집에 지원하였고,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1년 동안 파견을 가게 되었다. 탄자니아는 인도와 비슷한 부분이 있었지만 많이 달랐다. 중심지를 조금만 벗어나면, 전기와 물, 생필품 등 기본적인 생활도 어려운 사람들의 주거 환경을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나는 KOICA지원 사업의 하나로, 형편이 어려운 오지 마을의 보건소 운영과 아동들을 위한 약품 구매와 배분 등을 지원하는 일을 하였다. 매일 신나는 탄자니아 노래가 흘러나오는 낯은 마을버스를 타고 현지인들과 함께 출퇴근하였고, 현지 언어도 배우며 사람들과 부대끼고 바쁘지만 의미 있는 1년을 보냈다.

결국 대학생할 중 인도여행과 아프리카에서의 NGO활동 경험은 내 인생의 방향 설정에서 두 가지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첫 번째는 나의 활동 영역을 국내라는 테두리에 한정시키지 않고, 더 넓은 세계를 무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미래에 세상을 보다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내 분야의 전문가가 되자는 것이었다. 이것이 내가 해외로 나가 취업을 하게 된 계기이며 목적이다.



실적인 이야기와 조언들도 들을 수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WORLD JOB+와 KMOVE를 비롯하여 정부에서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해당 국가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기업들과 주요 산업, 그리고 현지 취업에 필요한 역량 등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 WORLD JOB+를 통해 나의 해외취업 준비는 더욱 구체화되고 있었고, 추상적인 목표에서 실제 현실로 다가가고 있었다.

내가 결심한 길이 주변의 선배나 동기 등 다수가 선택하는 길은 아니었기에 중간 중간 자신감도 떨어지고, 불안한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처음 내가 해외취업을 결심했던 당시의 초심을 생각하며 스스로 용기를 다졌다. 그렇게 대학교 4학년을 마치며 나는 졸업과 함께 다행히도,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의류 제조 및 수출 무역사업을 펼치고 있는 우리나라 의류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근무지인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으로 출국을 하게 되었다. 지금 돌이켜 보면, 나의 해외취업은 갑자기 결정되었다기보다는 인도와 아프리카를 거치며 긴 시간 동안 천천히 준비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나라 사람들과 부대끼며 세계 속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뚜렷한 목표 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다.

내년이면 해외취업 이후 해외생활을 시작한 지 5년이 되는데, 그동안 해외 진출에 대하여 든 생각과 고충도 많다. 먼저, 해외취업을 고민하기 전에 내가 완전히 다른 새 환경에 잘 적응하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일상적으로 가능하고 당연했던 일들이 해외에서는 불가능해지기도 한다. 한 예로, 나는 한국에 있을 때부터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든지 밖을 산책하고 공원에서 달리기를 하며 스트레스를 날리곤 했다. 하지만, 현재 인도의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산책이나 야외 운동하기 좋은 공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주변 도로와 길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아 다니기 위험하기도 하고, 날씨가 너무 뜨겁거나 비가 오는 날이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다. 그래서 결국 전에는 즐겨하지 않던 실내 체육관 런닝머신을 걷고 뛰다던가, 실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등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이나 취미를 만드는 등 스스로 변화를 해야만 했다.

이 외에도 해외취업을 통해 장기간 해외에서 지내며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도 매우 컸다. 가족이나 친척들이 모이는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참여가 어려웠고, 친한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가까운 지인의 결혼식 등 각종 모임과 행사 때마다 갈 수 없어서 느껴지는 소외감도 컸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해외에 있

## 해외취업 준비부터 과정,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외취업을 결심한 후 내가 취업을 목표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당시 내가 취업하고 싶어 했던 국가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였다. 이를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관련 모임을 알아봤고,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고 실제 일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현지인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취업에 필요한 현





기 때문에 가능한 해외취업의 장점도 분명히 존재했고,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좋았던 것 같다. 한 예로 나는 부모님과 해외여행을 가보는 것이 하나의 작은 소망 중 하나였는데,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부모님을 초청하여 함께 여행을 하게 되어 그 소망을 이루었다. 내가 일하며 살고 있는 나라이니 더 편하고 재미있게 여행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때로는, 해외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인연들은 해외라는 특수한 환경 덕분에 더욱 소중한 인연으로 발전하여 해외살이에 큰 힘이 해주었다.

이처럼 해외생활은 결코 쉽지 않고, 때로는 '이 먼 땅에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허무함과 위기가 오기도 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해외취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좋은 기억들을 역으로 떠올린다. 그리고 내가 목표하는 바를 계속해서 잊지 않도록 다듬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의지가 있었기에 그래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다.

### 나의 비전과 미래의 목표, 그리고 현재 가고 있는 길

나는 현재 인도 남부 타밀나두의 주도인 첸나이에서 일하고 있다. 첸나는 인도에서 손꼽히는 산업도시이자 항만도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도시다. 나는 이 곳 첸나이에 위치한 GLOVIS INDIA라는 회사에서 국내 및 해외 물류사업 운영과 신규사업 개발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제조업 분야의 SCM 및 무역 업무를 했던 경험을 살려, 보다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에서 나의 물류 및 무역과 SCM 직무 역량을 넓혀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 실제로 회사는 인도시장에서 매년 급속한 성장을 기록하며 더욱 입지를 넓히고 있다.



인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며, 몇 년 내 중국을 뛰어 넘어 세계 최대 인구를 보유한 국가가 될 전망이다. 경제규모는 현재 세계 일곱 번째이며, 영토는 우리나라의 33배, 현지 언어만 3,000개가 넘을 만큼 상상 이상으로 크고 다양성을 가진 나라다. 지역 별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일할 수 있는 인도는 내가 글로벌한 업무 환경을 익히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도 인도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자 동서양 교역의 중심지로서 세계를 연결하는 곳이었고, 오늘날 인도인들은 세계 주요 산업과 학계에서 매우 뛰어난 성과를 보이며 사회 각계계층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빈민이 많은 나라 중 하나이며,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화장실이 없는 집에서 생활을 하고, 길거리는 소와 동물, 그리고 자동차가 뒤섞여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인프라가 열악한 국가로 남아 있다. 그 만큼 인도가 발전해 가야할 길은 아직도 멀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발전 잠재력도 크다는 것이다. 이처럼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나라, 인도라는 곳에서 나의 비전과 목표를 발전, 구체화 시킬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었고 그렇게 GLOVIS INDIA로 취업을 결심하게 되었다.

나의 업무적인 비전은 세상과 세상을 연결하는 Supply Chain과 글로벌 비즈니스를 통해 현재 세상에 공유되고 있는 가치들을 보다 널리 퍼뜨리는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소외된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며, 최소한의 인간적인 가치를 누리며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기여하고 싶다.

구체적으로, 식량과 생필품, 운송수단 등 보다 인간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물자의 글로벌 공급망 관리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국제기구 등을 통해 세계 불균형 문제를 물류경제와 무역의 측면에서 해소하는 일을 하는 것이 내 미래의 목표이자 나의 비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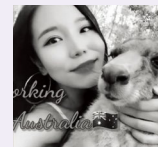
WORLD JOB+를 통해 해외취업을 하여 인도네시아를 지나 현재 인도에서 살고 있는 이 다양한 경험들은 내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이자 앞으로 더 많은 세계무대를無比는데 튼튼한 바퀴가 되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2 0 1 9  
해 외 취 업  
성 공 스토리  
공 모 전

영 상 부 문  
수 상 작 품 집



이 민 규



공 지 연

이민규

대상 / 태국

저는  
태국 태권도  
사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태국 방콕에서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는 이민규사범입니다.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 좋을까 생각하다 있는 그대로의 저의 삶을 보여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평범한 저의 하루를 영상으로 담게 되었습니다.

보통 해외 취업을 생각하면 동남아시아 보다는 아메리카 국가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남아시아도 아메리카권 국가 못지않게 장점이 많기 때문에 저의 영상을 통해 더 넓게, 더 멀리 보고 원하시는 나라에 가서서 해외취업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월드잡플러스에 가입해서 해외취업에 관련된 정보를 얻고 관심있게 보셔야합니다. 월드잡플러스에서 신청할 수 있는 해외취업정착지원금도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움받은 만큼 저처럼 해외취업을 꿈꾸는 청년들 모두 필요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 상 보 기





공 지 연

최우수상 / 호주

패션디자이너,  
호주 유치원  
교사가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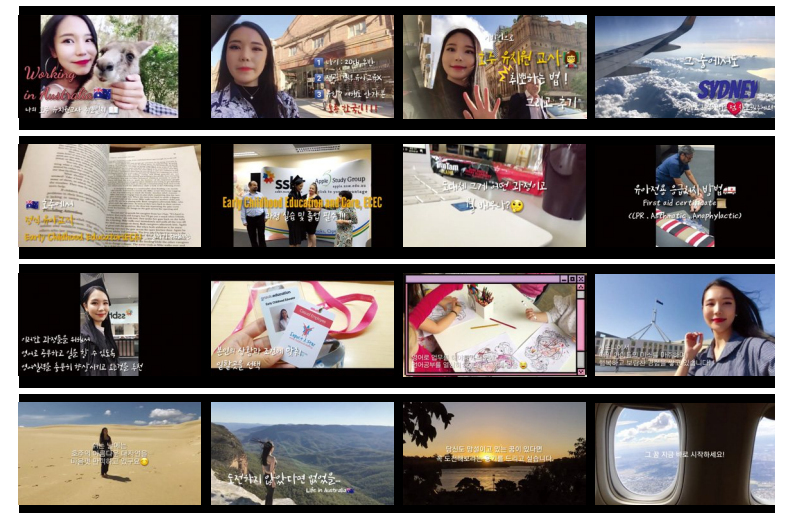
영 상 보 기



해외취업의 꿈을 안고 다니던 패션회사를 퇴사한 후 K-Move 호주 유아교육교사 과정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유아교육 관련 일을 하다가 온 대부분의 동기들과 달리 전혀 다른 전공과 경력을 가지고 뛰어 들었다는 점 때문에 남들보다 더 큰 두려움과 걱정을 안고 시작했지만, 오히려 그렇게 때문에 더 열심히 배우겠다는 의지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취업에 도전장을 내고 나온 이상 한인센터가 아닌 오지센터에서 일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구직활동시 뿐 만 아니라 일을 할 때에도 늘 영어에 대한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좌절을 느끼는 날도 있었지만 부족한 만큼 노력했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만들겠다는 열정과 진심을 알아봐 주는 곳들도 많았습니다. 시드니에서 유아교육교사로 매일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마주하며 하루 하루 행복하고 보람찬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비지원과정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청년들을 대표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온 사람이라는 책임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움을 받은 만큼 저도 다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조금은 무모했던 이 도전기가 저처럼 관련 경력이 없더라도, 영어가 아주 뛰어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2019 해외취업  
성공스토리 공모전



준비 단계

---



연수 참여

---



일자리 매칭

---



사후 지원

---

## 해외취업의 시작부터 성공까지, 청년 해외진출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하세요



### 1 준비단계

“해외취업,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 월드잡플러스 해외취업 가이드
- 해외취업 설명회
- 해외취업센터

### 2 연수 참여

“직무 / 어학 능력이 부족하세요?”

- K-Move스쿨



### 3 일자리 매칭

“좋은 해외 일자리를 찾고있나요?”

- 민간 해외취업알선 지원

### 4 취업성공 및 사후지원

“해외취업에 성공했나요?”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 해외 K-Move센터 헬프데스크



## 해외진출통합정보사이트 월드잡플러스를 소개합니다!

월드잡플러스는 해외 취업, 인턴, 봉사, 창업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해외통합정보 사이트입니다.  
해외진출의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알아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월드잡플러스로 접속하세요!

해외진출통합정보사이트 **WORLDJOB+** (www.worldjob.or.kr)



- 취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 제공
- 빠른메뉴를 통해 주요 지원 프로그램 확인/신청 바로가기
- 정보 원스톱 제공
- 실시간 가능한 채팅 상담까지!
- 실시간 정보 & 공지사항



취업, 연수, 인턴,  
창업, 봉사, 모집 공고



해외취업 알선



구인, 구직자  
화상면접 시스템



대륙별, 국가별  
커뮤니티



긴급 문의사항  
실시간 고객센터



구직자 홍보



진출희망자 멘토링



해외진출홍보  
SNS 매쉬업



해외유망직종



종합 경력관리



월드잡플러스  
다국어 지원



증명서 관리



취업으로  
청년층 지원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지급



국가정보, 비자정보  
해외안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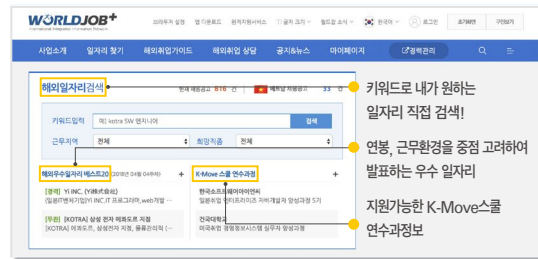
# 월드잡플러스 해외취업가이드

## 01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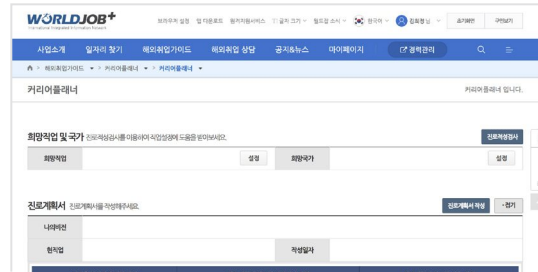
해외취업가이드 메뉴에서 주요국가해외취업전략, 국가별 기본정보, 유망직종 등 정보 / 선배들의 해외취업 성공수기 / 어학능력 역량진단 테스트까지 준비과정에 필요한 정보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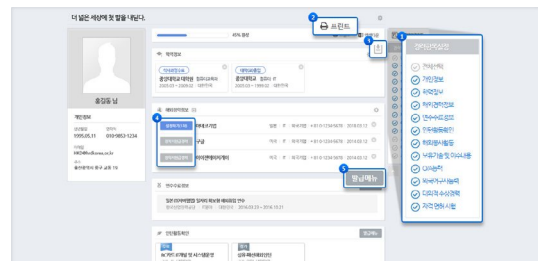
## 02 해외 일자리 직접 검색해보기



## 03 커리어 플래너를 활용한 개인 역량 개발 관리



## 04 커리어 포트폴리오로 해외 경력사항 종합 관리



준비단계  
해외취업,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어떻게  
참여하나요?

## 해외취업 설명회

해외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오프라인 설명회 등에 참여하여  
해외취업 유망직종, 전략, 사례 등 맞춤형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일정 및 모집 인원
찾아가는 해외취업 설명회	해외취업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알려드립니다.	지역별 일정 상이
국가별 직종별 해외취업 전략 설명회	원하는 나라와 직종별 해외취업 준비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직종별 일정 상이
청년 해외진출 멘토링	취업선배 멘토들의 생생한 해외취업 노하우를 들려 드립니다.	별도 공지
해외취업 박람회	해외기업과의 1:1 면접에 도전해 보세요!	별도 공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월드잡플러스 사이트(www.worldjob.co.kr)접속  
공지사항을 통해 각 프로그램별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접속방법 - 월드잡플러스 메인 ▶ 상단메뉴 ▶ 해외취업가이드 ▶ 해외취업 전략설명회
- 월드잡플러스 메인 ▶ 상단메뉴 ▶ 공지&뉴스 ▶ 공지사항

맞출형상담  
해외취업이  
막막하신가요?

## 해외취업센터

해외취업센터에 방문하면,  
해외취업 상담 및 구직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나요?

구분	혜택내용
해외취업 오프라인 상담 (사전 예약 필수)	취업 희망국가의 비자 제도 안내 및 유망직종 등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한 1:1 맞춤상담
해외취업 아카데미 (사전 신청 필수)	해외취업 구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글로벌 인재의 조건, 네트워킹 스킬, 외국어 이력서 작성 및 면접법 등을 진행) - 신청 : 매월 신청 진행, 기수당 정원 50명 내외로 선발 - 혜택 : 외국어 수업 진행, 교육비 전액 무료, 수료증 발급 등
시설대관	구직자가 해외취업준비에 필요한 스터디, 회의 소모임 등 필요공간 제공
상시채용관	해외구인업체, 유관기관, 월드잡플러스 기업회원 대상 채용설명회 등 해외취업 관련 행사 무상시설 제공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구직자**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누구나 참여 가능(프로그램 별 사전 예약 및 신청 필요)
- **구인 기업** 구인을 희망하는 해외 구인기업, 해외취업 유관기관(민간알선기관, 연수기관, 리쿠르트사 등 공단 해외취업 수행 유관기관)이라면 상시채용관 이용 신청가능

어떻게  
참여하나요?

- **오프라인 상담** 월드잡플러스 ▶ 해외취업상담 ▶ 해외취업센터(방문상담)예약 메뉴 이용  
상담가능시간 : 평일(09:00~12:00, 13:00~18:00) / 토,일,공휴일 제외
- **대관/상시채용관 신청** 월드잡플러스 ▶ 해외취업상담 ▶ 상시채용관/시설대관 신청 메뉴 이용
- **아카데미 신청** 월드잡플러스 ▶ 해외취업가이드 ▶ 해외취업 아카데미 메뉴 이용

해외취업센터,  
이렇게  
찾아주세요



• **E-mail** kmove@hrdkorea.or.kr

• **주 소** 서울 해외취업센터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402호

busan@hrdkorea.or.kr

부산 해외취업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시청역 롯데 골드로즈빌딩 610호



• **E-mail** kmove@hrdkorea.or.kr

• **주 소** 군산 청년해외취업지원센터  
전라북도 군산시 내항1길 4,  
군산상공회의소/군산청년들 4층

busan@hrdkorea.or.kr

통영 청년해외취업지원센터  
경상남도 통영시 충렬로 31,  
통영청년세움 2층

연수 참여 여  
직무 / 어학  
능력 이  
부족 하 세 요 ?

## K-Move 스쿨

구인기업이 요구하는 어학, 직무능력, 생활문화교육 등 맞춤형 연수과정 수료 후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나요?

구분	1인 최대 지원금액	구직자 비용 부담	지원 분야
장기과정 (600시간 이상)	800만원	공단지원금의 20% 이내 (신흥시장 10%)	- 글로벌기업, 해외진출기업, 해외유망직종 기업 등의 취업 연계
단기과정 (200시간 이상)	580만원		- 동남아, 중동 등 신흥시장 일자리 연계
대학	580만 또는 800만원	없음	- 해당국 부족 직군, 기술·기능 및 전문직종으로 자격취득 또는 해당국 맞춤형 훈련과정 이수 후 취업 연계
트랙 II (1000시간 이상)	1,350만원	10% 이내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구분	내용
민간 과정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래 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만 34세 이하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0%범위 내 초과모집 가능) - 구인업체가 요구한 채용조건(연령 등)에 부합하는 자
대학 과정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로 사업 참여 학교의 졸업자 또는 최종학년 재학 중인자로 연수 종료 후 취업 및 해외 취업이 가능한 자
공동 제외 기준	- 공단의 해외취업 연수과정(공단 인턴 포함) 수료 후 연수개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참여 중에 있는 자 - 연수 종료 후 취업을 산정기간 내 졸업 및 해외취업이 불가능한 자 - 연수참여(예정)일 기준 고용보험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종인 자 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용직 포함 - 해외연수 및 취업을 위한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자 - 연수참여(예정)일 기준 해외여행에 제한이 있는 자 - 연수 개시일 1년 이내에 8개월 이상 연수, 취업 국가에 해외체류 사실이 있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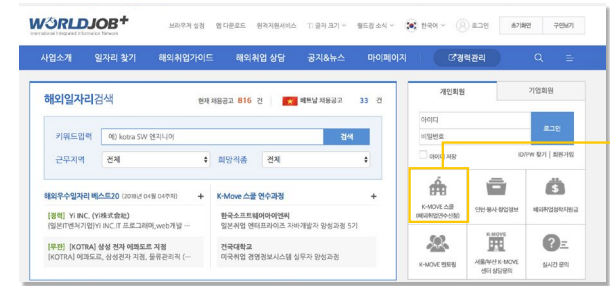
어떻게  
참여하나요?

월드잡플러스 사이트(www.worldjob.or.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모집 과정 및 일정은 연수 과정에 따라 상이)

• **접속방법** - 월드잡플러스 메인 ▶ 오른쪽 빠른 메뉴 ▶ K-Move스쿨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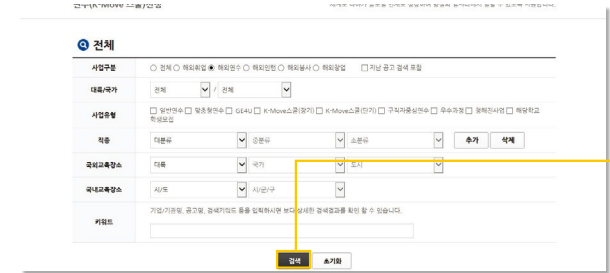
K-Move스쿨  
이렇게  
신청하세요!

### 01 월드잡플러스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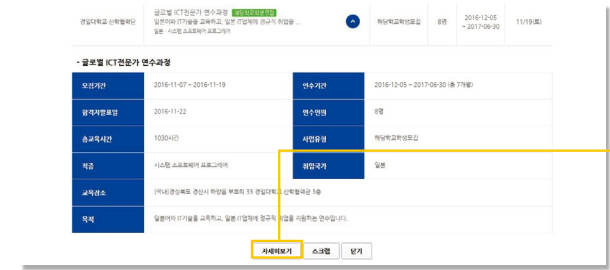
월드잡플러스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 우측  
빠른메뉴의  
K-Move스쿨 클릭

### 02 연수과정 검색



사업, 국가, 유형, 직종,  
교육장소 선택 및  
세부 키워드 입력 후  
검색버튼 클릭

### 03 연수과정 확인



검색 후  
해당 연수과정의  
자세히보기를 클릭하여  
세부 내용을 확인

### 04 온라인 지원하기 클릭



연수과정  
세부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지원하기를 클릭,  
이어서 선택 후 지원  
(월드잡플러스 내 이력서  
사전 등록 필요)





일 자 리 매 침  
줄 은 해 외  
일 자 리 를  
찾 고 있 나 요 ?

## 민간 해외취업알선 지원

국내·외 민간알선기관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해외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우수한 해외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이  
있나요?

민간 해외취업 알선을 통해 해외에 취업하게 되는 경우, 구직자가 부담해야 하는  
알선 수수료(200만원 또는 300만원)를 공단에서 알선 기관에 직접 지원합니다.

어떻게  
참여하나요?

월드잡플러스 사이트(www.worldjob.or.kr)에서 각 알선업체별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 **접속방법** 월드잡플러스 메인 ▶ 상단 메뉴 ▶ 사업소개 ▶ 민간알선지원 ▶ 공고확인

### 주의사항

취업비자 발급 대행, 도착 후 픽업서비스 등 알선업체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이 그 실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민간알선기관과의 계약시 개인 부담금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최근 일부 **알선기관의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사례** 등이 접수  
되고 있으니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취 업 성 공  
및 사 후 지 원  
해 외 취 업 에  
성 공 했 나 요 ?

어떤 혜택이  
있나요?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어떻게  
참여하나요?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해외취업에 성공 시, 해외에서의 초기 정착 및 장기 근속을 돕기 위해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구분		지원금액 및 방식
지원금 우대국가 / 취업애로 청년층	최대 800만원	(1차) 취업후 1개월 300만원
		(2차) 취업후 6개월 200만원
		(3차) 취업후 12개월 300만원
선진국 분류국가	최대 400만원	(1차) 취업후 1개월 200만원
		(2차) 취업후 6개월 100만원
		(3차) 취업후 12개월 100만원

- 신청일자 순 선착순 지원

- 만 34세 이하
- 가족 합산 소득 6분위 이하 해외취업 성공자
-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
- 취업인정 기준일 이후 해외취업 성공자
- 취업인정기준을 만족하는 해외취업 성공자  
(연봉 1,500만원 이상, 단순노무직 제외, 근로계약 1년 이상, 취업비자 등)

월드잡플러스 사이트(www.worldjob.or.kr)에서 신청 가능

- **접속방법** 월드잡플러스 메인 ▶ 로그인창 하단 빠른메뉴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클릭
- **지원절차**

01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02 취업성공 (인정기준 부합)	03 1차 지원금 신청 (취업 1개월 후)	04 2차 지원금 신청 (취업 6개월 후)	05 3차 지원금 신청 (취업 12개월 후)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 전, 가입 및 구직등록 필요	취업증빙서류 확보 및 1차 지원금 신청 준비	근무 시작 1개월 이후부터 3개월 간 신청	동일 기업에서 근무시작 6개월 이후부터 2개월 간 신청	근무 시작 12개월 이후부터 2개월 간 신청



발간사



대상



최우수상

취업성공  
및사후지원  
해외취업에  
성공했나요?

## 해외 K-Move센터

16개 해외 거점 K-Move센터에서는 해외네트워크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이를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공유합니다. 또한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을 위해 사후관리 및 현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합니다.

국가	지역	주소	연락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Graha Survey or Indonesia Lt. 19 suite1901, JL.Jend. Gatot Subroto KAV.56, KEL. Kuningan Timur, KEC.Setiabudi, Jakarta Selatan 12950	62-21-574-1522
베트남	호치민	KOREA BUSINESS CENTER, HOCHIMINH CITY, Room. 708B, 7th Floor, Diamond Plaza, 34 Le Duan Avenue, District 1, Hochiminh City, Vietnam (VIET NAM)	84-28-3822-3944 (내선번호 : 121)
	하노이	13 Floor, Office Block of the Charmvit Tower, Grand Plaza, 117 Tran Duy Hung Street, Cau Giay District, Hanoi. Vi etnam	+84 24-3946-0511 (내선번호 : 123)
일본	도쿄	〒100-0005 東京都千代田 丸の3-4-1 新 際ビル 9階940 KOTRA東京(JAPAN)	81-3-3214-7075
	오사카	〒541-0052大阪市中央 安土町2-3-13 大阪 際ビルディング20階	81-6-6262-8028
	나고야	〒450-0001 名古屋市中村 那古野1 - 47 - 1 名古屋 際センタービル23階	81- 52-561-3936
중국	베이징	Beijing Puxiang Zhongxin 29th Floor, Hongtaidongjie, Wangjing,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CHINA(PEOPLE'S REP))	86-10-6410-6162 (내선번호 : 58)
홍콩	홍콩	Room 3102, Central Plaza Building, 18 Harbour Road, Wanchai,Hong Kong	852-3465-2920
미국	로스앤젤레스	4801 Wilshire Blvd., #104, Los Angeles, CA 90010	1-323-954-9500 (내선번호 : 145)
	뉴욕	460 Park ave. 14th FL. New York, NY 10022 U.S.A	1-646-918-5831 1-646-918-5706
UAE	두바이	#202, Level 102, Arenco tower, Media city, P.O. Box 12859, Dubai, UAE	971-4-450-4360 (내선번호 : 110/310)
독일	프랑크푸르트	MesseTurm 33. OG, Friedrich-Ebert-Anlage 49, 60308 Frankfurt/M, Germany (GERMANY)	49-69-2429-9222
호주	시드니	KOREA BUSINESS CENTER, SYDNEY, Suite04, Level24, 1 Market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AUSTRALIA)	61-2-8233-4066
캐나다	밴쿠버	KOREA BUSINESS CENTER,Vancouver, 780-999 Canada Place, Vancouver, BC, Canada (CANADA)	1-604-683-1820 (내선번호 : 212)
싱가포르	싱가포르	KOREA BUSINESS CENTER, SINGAPORE, 7 Temasek Boulevard, #13-02 Suntec Tower One, Singapore (SINGAPORE)	65-6715-9723
멕시코	멕시코시티	Paseo de la Reforma No. 265 piso 2, Col. Cuauhtemoc CP06500 Mexico, D.F	52-55-5514-3173 (내선번호 : 706)